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1720-8829 / 홈페이지 : www.sanchon.com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2월 11일 수요일(주간) 제399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자비의 선물' 나누기

거리에는 벌써 연말 분위기를 내는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총총히 발길을 옮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상에는 행복만이 가득한 것 같다.

하지만 연말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밥 한 끼 해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불우청소년들에게는 물질적으로는 물론 마음으로도 유난히 추운 계절이다.

이런 때에 뜻있는 불자들이 주변의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 '자비의 선물'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우리는선우, 대불련, 중앙신도회 등 불교신행단체들은 28일까지 '자비의 선물' 나누기 행사를 벌이기로 한 것.

이번 행사는 신행단체들이 불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물품 봉투를 나누어 주고, 각 개인이 후원물품을 담은 봉투를 조계종 복지재단으로 보내면, 복지재단이 결식아동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복, 학용품, 음식물, 전자제품, 팬시제품, 문화상품권까지 결식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비의 선물'이 될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를 당하고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여건이 나아졌다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때, 작지만 정성이 담긴 후원은 행련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행사들은 늘 연말 반짝 이벤트로 마련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곤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자들이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는 보시바라밀 실천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동참문의:02)723-5101(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유신(취재2부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3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6-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경희: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9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북한산·천성산·금정산 관통도로 전면 백지화, 대안노선 추진 검토"

한나라당·민주당 대선후보 불교관련 공약 발표

불교계 최대 현안인 북한산 관통도로 및 부산고속철 천성산·금정산 관통노선이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북한산 관통도로 및 부산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 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전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재 의원은 "백지화는 기존 노선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기존 노선 대신 대안노선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도 5일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한산 및 천성산·금정산 관통도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6일에는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와 하순봉, 김기배 의원이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대안노선을 강구하겠다는 당 방침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불교특별대책위는 "노선조사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전면 재검토를 당의 공약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불교계와 시공사 및 건설교통부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북한산 및 천성산·금정산 도로 건설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조계종 공동대책위, 불교환경연대,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경부고속철 금정산·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민주당의 백지화 공약과 관련해 5일 환영의 뜻을 표하는 논평을 내고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에 따른 수락산·불암산 터널 공사의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불교환경연대와 경부고속철 시민종교대책위는 "논평 차원일 뿐 정식 공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만간 문서를 통해 공약으로 채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찰수행환경 및 자연파괴의 부당성을 이유로 북한산과 천성산·금정산 관통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범불교도대회 및 시위를 벌여왔다. <한나라·민주당 공약 비교 3면>

한명우 기자 mhan@buddhapia.com

총무원 이전 등 32개 사업에 64억

태고종 예산 확정, 종회부의장 대은스님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은곡)는 2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56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 청사 이전을 비롯해 32개 종책 사업과 2003년도 예산 64억8천6백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중앙종회에서는 또 공석 중이던 종회 부의장에 대은(인천 용현사), 총무원 재정담당 부원장에 혜공(대구 관암사)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종단 위상 재정립을 위한 구심도량으로 새로운 총무원사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현재 총무원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신촌 봉원사 등 서울 지역 2~3개 사찰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태고종은 재정자립이 내년도 사업 집행에 관건이 되는 만큼 국민불자카드와 보험 보급사업, 분담금 납부제도 재조정 등 종단 재정확보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태고종 종회는 이밖에도 △종단 제도 개혁 및 발전계획 수립 △종무행정 전산화 작업 △선암사 장경각 경판 정대불사 △장례문화 선도 및 장묘(납골)사업 추진 △인권위원회 설립 △1사찰 1복지 활동 전개 △동방불교대학 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 등의 내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김철우 기자

북사찰 30곳 4년간 단청지원

평불협·조불련 합의 내년 3월 평양 법운암부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평불협)가 북한 사찰 30여곳에 단청을 지원해주기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 이하 조불련)과 합의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조불련의 초청으로 방북한 평불협은 5일 '박태화 위원장 심상진 서기장 등과 만나 북한이 지원 요청 한 59개의 사찰 중 4년간 30개 사찰에 단청을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30개 사찰 단청 지원에 앞서 평양 용악산 법운암에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단청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운암 단청 지원은 내년 3월 단청문화재기술자 김성룡 씨를 비롯 5명이 방북해 재료전달 및 기술전수 방식으로 이뤄지며, 입재식과 회향식 때 남측 불교계 인사들이 방북할 예정이다. 또 단청 지원시 문양은 기존의 것을 기본으로 하되 금단청을 하고, 법운사와 성불사 개금불사도 함께 할 계획이다.

평불협은 불사 추진을 위해 '북한불교중흥회(가칭)'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 및 정부의 봉일기금을 지원받을 방침이다.

법타스님은 "이번 합의사항은 10일 열리는 평불협 이사회를 거쳐 조불련측에 공식문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59개 사찰 중 나머지 사찰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추본은 "민추본 기본원칙이 단청불사 추진인 만큼 두 단체가 함께 불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인도인 3천3백명 개종식

인도불교청년회 주도, 법륜스님 참석 예정

인도 UP주 이타와와 럭나우에서 14일과 17일 각각 3000명과 300명이 참석하는 개종식이 열린다.

프라가난다 스님이 수계를 하는 이번 개종식은 지난 10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규모 개종식이 주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자 각 지역별 소규모 개종식으로 전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행사는 YBS(Youth Buddhist Society, 인도불교청년회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YBS는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인도불교 돕기 명목으로 지원한 3곳(UP주 마하마야 아카데미, 메인뿌리 나비간지, 칸노즈 바레쭈르) 모두 법당 및 교육시설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효순·미선의 극락왕생 기원" 조계사는 4일 대웅전에서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을 위한 천도재를 개최하고, SOFA개정을 촉구했다. 불자들은 조계사 대웅전에 설치된 신효순, 심미선 양의 영정이 놓인 영단 앞에 헌향·헌화하며, 두 소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관련기사 4면> 사진=김두식 기자

신행수기 접수마감 임박했습니다 제8회 공모
12월 17일까지 … "각 부문 시상 푸짐"
불교계의 청렴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심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가 4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교입문 하며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 당선작 발표: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buddmaster@buddhapia.com
시상내역
▷대상(우수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현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종각역에서 도보로 1분거리, 조계사 옆-
종각 우정에쉐르
교통 | 1호선 종각역 도보로 1분, 광화문 사거리, 안국로 인접
경제 | 국세청, 40여개의 대사관, 500여개의 외국기업 밀집
환경 | 조계사주변 공원화, 우정공원으로 둘러쌓인 쾌적환경
설계 | 타워형 설계로 양면 채광 및 조망권 극대화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
2003년 11월 빠른 입주
(현재 골조공사 진행중)
고품격 마감재와 차별화된 인테리어


선착순 분양중!
분양문의: 02)736-9898
우정건설(주) 제일은행 성산토건(주)

사 설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

불교 이야기 중 가리왕의 전설이 있다. 도망치던 비둘기를 숨겨준 가리왕에게 뒤쫓아온 독수리가 비둘기를 내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자 독수리는 가리왕에게 '당신은 공평하지 못하다. 비둘기를 살려주는 것이 당신의 자비라면 배고파 죽는 나를 방치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자비심인가?' 하고 비판한다. 이에 가리왕은 자신의 살을 베어 비둘기 무게만큼 주기로 제안하고, 아무리 많은 살점을 베어 달아도 비둘기 무게만큼 나가지를 않았다. 마침내 가리왕 자신이 저울에 올라서자 비둘기 무게만큼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은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에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사람이니까 그들이 한국인 보다 소중하다는 논리는 있을 수없다. 반면 한국인이 미국인 보다 우월하다는 논리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의 가치는 우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에는 차별이 있는가 보다. 미군 궤도차에 두 명의 여중생이 깔려 사망했음에도 정작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국가우월주의와 생명차별의식이 이면에 깔려 있다. 법적으로는 SOFA로 불리는 불평등조약 때문이다. 진정 미국이 우리의 우방임을 자처한다면 한국인의 인권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등한 조약이 되도록 SOFA를 개정하여야 한다. 작금을 보면 인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미국이 인권을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두 여중생의 꽃다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SOFA개정에 솔선해야 한다.

사찰환경 수호기구 만들자

2002년 한 해 동안 불교계는 수행환경지키기에 유례없이 많은 힘을 쏟았다. 서울외곽 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불교계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결말이 나지 않았다. 해가 넘어 가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통령후보들이 북한산과 천성산 관련 도로와 고속철 공사의 '백지화' 혹은 그에 준하는 비중으로 내놓는 공약에 기대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시공사는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에 따른다'고 한 합의사항을 은근히 강조하는 모양새까지 취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미타사와 강남 봉은사 옆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돼 사찰을 휩히 들여다보는가 하면 경기도 용인의 화운사는 고압 송전탑에 포위될 지경이다. 봉도사 인근에는 대규모 위락시설 공사가 강행되고 있고 통영 미륵산에는 케이블카 공사로 사찰이 위협받고 있다.

사찰이 위치한 청정공간을 파고드는 개발의 바람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이 터질 때마다 사부대중을 동원해 반대 시위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러 번의 경험에 의하면 '일'이 터지고 나면 언제나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사찰이 개발의 바람을 먼저 감지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때문에 종단을 초월하는 범불교적인 사찰환경수호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문화유산과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초종단적 기구를 설립해 거기에 모든 종단을 비롯한 불교 구성원들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주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진각종 의료법인 내년1월 설립

종회의결후 '추진위' 구성, 복지부에 인가신청

첫사업으로 대구에 노인전문병원
경주 위덕대 의과대 신설 구체화

진각종이 의료법인을 설립한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17일 열릴 임시중앙종회에 의료법인 설립추진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종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의료법인 설립 실무를 추진할 '(가칭)진각의료법인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진각종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의료법인 정관 등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1월 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 진각종은 노인전문병원, 종합병원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특히 기존 진각복지재단, 학교법인 회당학원 등의 종단 산하 법인체와 연계해 병원 건립에 따른 의료법인의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주 위덕대학교 의과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진각종은 우선 첫 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을 내년 상반기에 개원한다. 노인전문병원은 대구 대봉동에 소재한 8층 건물의 진각문화회관에 세워지며, 규모는 병상 70~90개 정도를, 소요 예산은 20~4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병원 이용대상은 스승(진각종 승려의 통칭) 뿐만 아니라, 신도 및 일반불자 등이며,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이미 전국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의 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제반 조사를 완료했다.

진각종이 이번에 의료법인을 설립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진각복지재단·학교법인 회당학원·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등 4개 법인체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진각종의 의료법인 설립은 불교계에서 조계종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다 많은 불자들이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최근 정부가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설립과도 그 취지가 맞아 떨어져 불교계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법인 설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광 정사(대구 경산심인당 주교)는 "현재 의료법인의 모든 준비 작업은 완료됐다. 노인종합병원은 현재 회관에 있는 세입자들이 나가는 대로 곧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병원 건립과 위덕대학교 의과대학 설립도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찰 인터넷설치 정부지원을"

불교정보화협의회 총회, 건의문 채택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는 11월 29일 오후 6시 창립총회를 갖고 회칙을 확정했다. 회원으로 참여한 14개 종단과 단체 가운데 10개 종단·단체 대표가 참가한 이날 총회에서는 캠페인 세미나 등 향후 사업계획도 세웠다.

특히 협의회는 도심외곽 사찰들이 초고속인터넷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 정부의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연태 기자

불교문화상품개발 세미나
13~14일 강화 전등사서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은 13일~14일 강화 전등사에서 '불교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의 상징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 개발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이미지의 산업적 응용의 현황과 전망(이접원 동국대 미술과 교수) △불교로 본 한국인의 조형의식(윤범모 경원대 미술과 교수) △사찰건축의 관광자원화(김봉열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불교이미지와 디자인 산업(박규현 대구대 산업디자인과 강사) △전통불화의 산업적 응용(이기선 불교조형연구소장) △문화재 속에 나타난 불교문양 슬라이드 쇼(안장헌 사진작가) △한국 전통문양 CD롬 프리젠테이션(조원희 지도리 대표)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된다.

도후 이사장 스님은 "세미나를 계기로 전통 문양 등 각종 디자인의 자료화, 디자인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각 문양의 전통 문화적 의미 복원과 현대화, 한국전통 문양 사진집 발간, 한국전통 문양 CD롬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동안거 실시
2만여 대중 13일부터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한 달간 총본산 구인사에서 동안거를 실시한다. 이번 동안거는 모두 2만여 명의 대중이 참가하게 되며 각 말사, 지부, 지회가 동시에 결제식을 갖는다.

천태종은 승려안거 외에도 재가신도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두 번 하안거, 동안거를 각 한달씩 실시하고 있다. 결제식은 13일 밤 10시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된다. (043)423-7100~8

김철우 기자

총무원장 남정스님 종회의장 화담스님

총화종 중앙종회 개원, 내년예산 96억 확정

총화종 제14대 중앙종회가 11월 29일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 대웅전에서 개원식을 갖고, 신임 중앙종회 의장에 화담스님(연화사)을 선출했다. 또 종회는 14대 총무원장에 남정스님을 재선출했으며, 내년도 예산 96억여 원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종회는 중앙 5원장 등 종무행정 기관 부서장을 선출했다. 선출된 부서장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장 동오(천불사) △선원장 금산(정수사) △교육원장 청해(만경사) △감찰원장 고담(천불정사) △포교원장 청담(관음사) △호계원장 만오(성덕사) △문화원장 도공(감로사) △총무원 부원장 남은(원적사) △기획실장 행원(석본사) △서울 종무원장 현오(약왕정사) 스님.

김철우 기자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연말까지 사은행사 … 관음보살도 증정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를 보다 편리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시면 지로용지를 들고 일일이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가시지 않게 되어 보다 편하게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이나 기존 독자가 새 구독료(월 5000원)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에게는 사은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세음보살도(김의식 作, 27cm×37cm, 시중판매가 2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면 수준 높은 예술품이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방법
1.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2. 자동이체 신청가능 은행: 모든 은행 및 수협, 우체국(11월부터 시행)
3. 이체 희망일: 매월 5, 15, 25일 중 택일

▶자동이체 문의·신청 전화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총지종 창종 30주년 기념 www.chongji.or.kr

한국불교 최초의 일대불사!

태장계·금강계만다라 봉안 대법회


태장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

불교총지종에서는 창종 3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불교사상 처음으로 胎藏界曼荼羅와 金剛界曼荼羅의 兩部 曼荼羅를 조성하여 봉안하는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태장계와 금강계의 양부 만다라는 대승불교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大日經과 金剛頂經에 의거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 종단 연구진의 7년간에 걸친 기획과 정통밀교의 맥을 이으려는 전 종도의 발원에 의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불교사상 초유의 일대사이며 불교중흥을 알리는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계대덕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으로 법회가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총기31(2002)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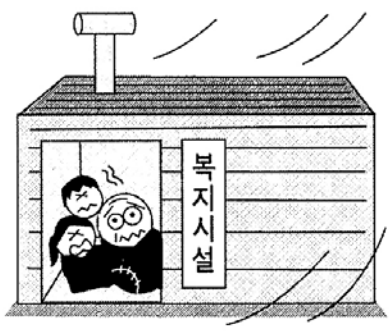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統理院長 法 空 합장

▶일 시: 총기31(2002)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

▶장 소: 불교총지종 총지사(전화 552-1080~3)

'현대' 만평

박 구 원



컨테이너에서 올겨울 나겠네



◇6일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 제4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토론자들이 분야별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유아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놀이 위주 불교교육방법 개발을
동호회 중심 조직 활성화가 과제
통합 명상교실·재활 프로그램 필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토론회 내용

유아, 노인, 장애인 등 불교복지 취약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불교 사상과 이념을 복지 현장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5일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 제4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토론회 및 이날 배포된 〈조계종 사회복지 창간호〉 내용을 종합한 결과, 불교 유아 복지의 향상을 위해 불교 이념이 내재화된 교육환경 구성,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복지의 경우에는 의식개혁 운동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불교 유아 복지의 경우, 언어와 독서 영역, 수 및 과학 영역, 조작 및 미술 영역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불교문화와 사상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대원스님(동국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은 이날 복지대회에서 발표된 '불교유아교육 사상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나치게 종교 위주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인격과 개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리 위주의 교육보다는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만날 수 있는 놀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놀이가 인연이 돼 발심을 낼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불교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노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기 적체현상 해소, 노인 동호회 중심의 조직 활성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능인스님(일산노인복지관장)은 '불교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종교색이 강한 프로그램은 이용자 노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 창간호〉에 실린 사례별 평가 결과에서도 종교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장묘 문화와 분묘 문화 개선 등 가치중립적 노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 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로 바라보는 의식 개혁운동과 장애인들이 불교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해성스님(광림사 연화복지원장)은 토론회에서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인 '통합 명상교실'이나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스님은 "전국 유명 사찰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 배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는 것과 불교 교리를 수화로 전달할 수 있는 포교사 양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 사상과 이념을 복지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기 위한 이번 연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이 설립된 지 7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불교계 사회복지인들은 평가했다.

강유신 기자 sharmok@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 국익 고려 돼야"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신동아'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사진)이 최근 발행된 〈신동아(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불교관을 비롯해 해인사 대불건립 문제, 스님들의 룸살롱 출입사건 등 불교계 내부문제와 대선 · 대북 · 언론 문제 등 정치 ·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특히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직설적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돼도난담'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정대스님은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와 관련해 "반대는 하지 않지만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물질숭배주의와 물신화를 경계하는 것은 옳지만, 그때그때 역사적으로 떨어지는 과제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막는 "세상에 얽매여야 하기에 당할 건 당해야지, 그게 피하겠다고 피해지는가. 인간은 고가 있어야 행복하다. 시련이 없는 세상엔 행복이 없다. 시련 없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정치 사회문제와 관련한 이야기 중, JP와 관련해서는 "대의를 위해 참을 줄 아는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고, '이회창 후보 집권시 최대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서는 "소신발언이었으며, 섭섭하라고 한 얘기다. 그래서 지금은 넉넉해지지 않았는가. 아들 병역 문제는 5년 전 이미 검증했다.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몽준 후보인터뷰는 후보단일화 이전에 이뤄졌다를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공도 안 들이고 그냥 주

정치 악순환 막게 대통령 중임제를

해인사 청동대불 시주자가 원하면 건립 가능

스님들 룸살롱 출입 타락으로 안봐

을 수는 없다"며 시주자가 원하는 불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님들 룸살롱 출입사건에 대해서는 "타락이라고 보지 않는다. 세속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루라도 없으면 못 사는 것만 스님들에게 지키길 요구한다. 같이 한잔 먹고 뒹굴기도 해야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세상이 혼탁하니 종교계도 혼탁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다. 다시 태어나면 이 길 안 간다. 중 노릇 해보니 불교라는 자유가 나를 속박하고 종교라는 자유가 오히려 나를 속박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종교라는 미명하에 자유마저 속박하는 길은 안 가겠다는 것이다. 자유인이 돼 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위 먹으려는 풍토는 좋지 않다. 참고 때를 기다리는 자가 이기리라고 본다. 대통령 하고 싶으면 공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햇볕정책과 김정일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 정도가 아니라 국민과제로 여기고 있다. 김정일이 남한에 못 올 이유가 없다"는 소신을 밝혔고,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지지한 적 없다. 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언론이 성장하는 과정에 국세까지 물리면 언론다운 언론이 창출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 정권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질문에는 "단임제는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도 막판에 일 난다. 정치적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중임제가 필요하다. 인사관련 중 문제는 잘못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 한명우 기자

불교계 요구사항	한나라당 공약	민주당 공약
북한산 관통도로 및 경부고속철의 한 노선 폐기		한 노선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및 문화재행정조직 일원화	문화재청장 차관급 승격, 국가문화유산처 설립	
황룡사 · 미륵사 복원	전통사찰 복원 위한 법적 대책 마련	황룡사 · 미륵사 복원 국가사업으로 추진
검찰청 · 경찰청내 문화재사범전담반 설치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 관련법 제 · 개정	검찰청 · 경찰청내 전문적이고 상설화된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
조계사 문화지구 지정 및 우정국로 전통문화거리 조성	조계사 문화지구 지정 및 흥본산성역화 지원	조계사 문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우정국로 전통문화거리로 조성
불교문화재 보존관리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확대	불교문화유산 관리에 불교계 참여 및 불교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불교문화재 보전 및 관리 예산 현실화, 문화재사찰 방범 · 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공직자 인사 종교간 형평성 유지	특정종교 편향 또는 개인적 종교색 드러내는 행위 규제	불교계 입장 대변할 수 있도록 정부산하기구에 불교계 추천인사 참여 배려
군 · 내 군종장교의 인사 형평성 유지	군종장교 충원 및 계급별 정원까지 종교별 차별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 유도	
불교 청소년단체 육성		청소년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불교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사업 시범실시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개국 지원	지방망 확충 지원	지방국 추가 개국 지원
불교전통문화의 정보화 지원	정보화 지원 확대 및 불교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찰 수행환경 보호 위한 법령 개정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법 제 · 개정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생명과 환경 보전 위한 관련법 및 제도 개선	환경 영향평가법 · 자연공원법 · 도시공원법 제 · 개정	도시공원법 등 각종 규정의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
국립공원 효율적 보존위한 대책 강구	공원입장료 폐지 긍정 검토 및 국립공원 관리체계 개선	
남북불교교류 지원 확대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 및 복원, 남북 공동학술조사 지원 확대

문화재청 차관청으로 승격 한나라당

검찰청내 문화재사범 전담반 민주당

국가소유 불교문화재 · 폐사지 반환 등 반영 안돼

양당 불교계 공약발표

지난 11월 한나라당이 불교계 공약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도 4일 불교계 공약을 발표했다.

양 당 불교계 공약은, 공약발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이 대선후보에게 제시했던 27가지 불교계 요청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 및 경부고속철의 한 노선 폐기 △고위공직자 인사의 종교간 형평성 고려 △불교문화재 관리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확대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개국 지원 등 현재 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돼 온 현안들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그동안 불교계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및 공원입장료 폐지 긍정 검토를, 민주당의 경우에는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 백지화 및 검찰청 · 경찰청 내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를 각각 독자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양 당 모두 △국가 소유 · 점유 불교문화재 및 폐사지의 불교계 반환 또는 위탁 △전통사찰 보수 지원비 증액 및 각종 부담금 폐지 △국립공원 및 전통사찰 인근에서 행해지는 국책사업의 사전 협의 제도화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 및 협조 등 조계종이 요청했던 현안들에 대해서는 공약에 반영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망구축을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인권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진영을 바꾸는 이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꿈을 ★ 이루십시요!
정신력을 키우고 기위 나간다면 귀하의 꿈도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부흥원 / 건강 / 성취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보십시요
귀하의 소중한 꿈들을 이루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새해맞이 기도

1.새해를 맞으며 개인적으로 무엇을 발원하고 싶으십니까?
①경제 ②직장 ③건강 ④가정화목 ⑤기타

2.새해맞이 기도를 사찰에 가서 하실 생각입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설문 참여: 12월 12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400호 A판 4면에 실습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1주기를 맞이하여 법보종찰 해인총림에서 법전 종정예하를 모시고
추모재를 봉행코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문도 및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6(2002)년 12월 20일(금요일)
(음 11월 17일) 오전 10시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문의처 : 해인사 종무소 ☎ 055-931-1001~2
원 당 암 ☎ 055-932-7308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 인 사**

증 명 : 종정 법 전
봉행위원장 : 주지 세 민
문도 대표 : 성 법

궤도차희생 여중생 추모·SOFA개정 촉구

불교계, 3보1배·108배 항의 집회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천도재 봉행

미군 궤도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에 항의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는 4일부터 추모법회, 3보1배, 108배 항의집회를 갖는 등 여중생 추모와 SOFA 개정촉구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경산 안홍사는 4일 추모법회를 개최했으며, 재가연대 실천승가회 대불청 대불련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불교대책위원회(준)는 6일부터 11일까지 매일 12시 미대사관 옆 광화문시민공원에서 108참회했다. 또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스님과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스님은 9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4일 2천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54톤 미군 궤도차에 희생된 신효순 심미선 극락왕생 발원 천도재 및 SOFA(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촉구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조계사는 법회 후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7일 밤 광화문앞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동참했다.

경산 안홍사도 4일 지역 시민, 사회, 종교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효순, 심미선양의 넋을 위로하는 영가 천도재를 개최했다.

불교계 10개 단체로 구성된 '미군범죄 근절과 SOFA 개정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준)'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진관스님과 청년불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군 참회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범불교도 108배 정진을 실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목요단식 108배 법회, 야간촛불시위, 제사회단체 연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사청년회도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미선·효순 왕생극락 발원, SOFA 개정 촉구 청년법회를 개최하고 저녁에는 유가족과 함께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불교인권위원회는 13일 미국대사관에서 조계사까지 행진하며 항의시위를 할 계획이다.



◇평불협 대구경북본부는 5일 대구백화점에서부터 미군부대까지 3보1배 정진을 하며, SOFA개정을 촉구했다.

평화통일불교협회 대구경북본부는 5일 안홍사 주지 장적, 경흥사 주지 하종, 반룡사 주지 천은 스님, 안홍사 신도회, 대구 정토법당 회원 등 사부대중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백화점에서 미군 부대까지 여중생 살인미군 무죄판결 규탄과 소파협정 전면 재개정을 위한 3보 1배 정진을 벌였다.

영남불교대학 총동문신도회(회장 배선혜)도 4일 "미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고 살인미군 처벌을 위한 항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법당등 굴산사터 사역 확인

태풍으로 드러난 유적 긴급발굴조사

지난 8월말 발생한 태풍 루사 덕분에 사굴산문의 본산인 굴산사터의 사역이 확인됐다.

태풍으로 주변 농경지가 유실되면서 주춧돌 등 유적 일부가 드러난 강릉시 구정면 학산2리 굴산사터(시도기념물 11호)를 긴급 발굴조사했던 강원문화재연구소 고동순 연구원은 6일 열린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주관 제3회 강릉학 학술세미나에서 "사역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굴산사터는 남북 길이 250m, 동서 길이 140m에 이르는 대규모 질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실시된 조사에서는 법당과 회랑, 승방 등의 건물터가 새로 발견됐으며 '굴산사(屈山寺)'명 기와도 함께 나왔다. 특히 법당터에서는 화강암을 잘 다듬은, 가로·세로 각각 1.24m, 높이 35cm에 이르는 대형 정방형 주춧돌이 출토돼 법당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 연구원은 "사역 대부분이 사유지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 굴산사터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공명선거불교협 출범식

공동집행위장 법현스님

19일에 치러지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해 공명선거실천불교시민운동협의회(공동대표 법타·수경·법륜·백창기, 공불협) 출범식이 개최됐다.

4일 만해교육원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법타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주지 스님 및 신도회 간부와 친분이 있는 특정정당 후보가 사찰에 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며 "불자를 스스로가 각성해 여기에 현혹당하거나 이용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현스님(공동집행위원장, 동방대 교학처장)은 출범 선언문 낭독을 통해 △온라인 공명선거 실천 및 투표 참여 운동 △부정선거 감시 고발 전화 1588-9898 운영 △불교 유권자 행동지침 등을 발표했다.

한편 공불협에는 종단협, 동산반야회, 경불련 등 총 11개 불교단체가 참여했다.

남동우 기자

동국·승가대 신입생 모집

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동국대와 중앙승가대가 200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는 3,804명(서울 2,155명, 경주 1,649명)을 모집하는 정시에 국내최초로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를 받는다. 또 당락의 영향이 적은 '면접고사'는 사범계열 및 문예창작과만 제외하고 폐지키로 했다. 동국대 원서접수는 10일부터 13일까지이다. 문의 (02) 2260-3031~4

또 중앙승가대도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4개과에서 신입생 122명을 모집한다. 문의 (031) 980-7717

김원우 기자

종교관점서 본 사형제도

종교언론인협, 심포지엄

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는 14~15일 강화도 가족호텔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를 주제로 제6회 종교언론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차차석 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이 '종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대해 기조발제하며, 각 종교별 주제발표및 토론에는 최규창(기독교신문 편집국장), 정유제(밀교신문 편집국장), 우세관(원불교신문 기자), 서경희(신인간 기자) 서상덕(카톨릭신문 기자) 씨가 참여한다.

김원우 기자

용문사 임시법당 파손

비닐 찢기고 불상도 옮겨져

일주문 100m 전방에 현대식 향토민속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에 반발해 지어놓은 임시법당이 강제철거 당했다.

용문사 부주지 보인스님은 "1일 스님들이 임시법당을 잠시 비운 사이 비닐로 만들어 놓은 법당이 날카로운 물건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안에 있던 부처님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며 "이는 박물관 건립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문사 향토민속박물관 건립 문제는 양평군이 98년 5개 업체의 설계공모를 거쳐 지난해 10월 64억 7천여만원을 들여, 연면적 766평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실제높이 18m) 공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보인스님은 "양평군이 사찰경관과 잘 어울리는 모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불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약속해 놓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전이나 설계변경을 할 것"을 양평군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청은 "이전이나 설계변경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수행환경 결사수호의지 천명

용화사 케이블카 반대 16일부터 산문폐쇄

통도사 영축산환경위 발족 초산유원지 대응

화운사 용인사암련, 송전선로 추가건설 저지

수행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용화사, 통도사 등 사찰들과 불교계가 결사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용화사는 통영시의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결정에 대해 16일부터 산문을 폐쇄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98년부터 4년이 넘게 지속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문 폐쇄를 결정한 용화사 주지 선곡스님은 "산문폐쇄라는 막다른 조치로 사찰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불교성지요, 시민들의 휴식처인 미륵산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기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초산유원지 개발로 사찰 인근 산이 파헤쳐지고 있는 통도사는 11월 29일 경내 도서관에서 영축산 환경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자연파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영축산 환경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구성을 구성한 자리에서 '초산유원지 공사 즉각 중지와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앞으로 법적, 물리적 대응책까지 모두 동원해 초산유원지 공사와 신평 우회로 공사로 인한 자연파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내외 고압송전철탑 설치 계획으로 사찰이 송전탑에 둘러쌓일 위기에 놓인 용인 화운사는 4일 용주사에서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용인시 사암연합회는 "현재 한국전력이 공사중인 화운사 전면 345KV 송전선로 건설도 화운사측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화운사정, 후면에 154KV 건설을 하는 것은 화운사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물론 방문객에게도 위압감과 혐오감을 준다"며 "이는 사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사찰 존폐와도 관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미희·남동우 기자

영월 나한상 출토 절터는 '창령사'

명문기와 출토, 문헌 뒷받침

지난 해 5월 조선전기 석재 나한상 300여 점이 무더기로 출토(본지 341호 참조)됐던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 2리 절터의 이름은 '창령사(蒼嶺寺)'로 밝혀졌다.

발굴조사를 맡았던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윤석인 연구원은 11월 30일 열린 강원고고학회 학술대회에서 "'창(蒼)'자가 새겨진 명문기와와 '령(嶺)'자명 기와가 수습되었는데, 정밀분석 결과 '창(蒼)'자의 '口'와 '령(嶺)'자가 서로 연결되어 '창령(蒼嶺)'임을 알 수 있다"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영월부읍지〉 등의 문헌기록과 비교해 볼 때 절 이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동국대 중앙도서관 준공

첨단시설…열람석 2천석

동국대는 3일 신축현장에서 중앙도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도서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16,196㎡ 규모로 지난해 5월 착공, 18개월 만에 완공됐다. 112억원의 공사금액이 투입된 신축 도서관은 불교학 자료실을 비롯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가식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전시실, 세미나실 등을 갖췄다. 또 중앙아트리움, 드라이에어리어 천장 등의 자연채광법, 중앙 냉.난방설비, LAN 등 현대적 첨단시설을 완비했다.

김원우 기자

목탁소리

포교하러 룸살롱에?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신동아(12월호)〉 인터뷰 내용을 놓고 말들이 많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대부분 비난조다. 심지어는 "총무원장도 '막 말'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대놓고 스님들 '욕' 올 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난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총무원장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뷰를 하면서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거북함을 느낀다.

정대스님의 인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불자들 대부분은, 스님들의 룸살롱 출입사건에 대해 "술 한 잔 먹은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건 타락이 아니다",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과 관련해 "시주자의 뜻이니 따라야하지 않나"라고 말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불교계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그럼 룸살롱에 포교하러 갔나?" "전국 룸살롱불교연합회라도 결성해 포교에 한몫 하셔야죠!"라며 비아냥거리는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물론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한 것도, '여편네' '자기네' 운운하며 용어사용에 신중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과 소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공인이라면 표현과 말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는 위치에서의 책임있는 자세다. 총무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곧 불교계 전체 정서를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대스님은 인터뷰에서 "세상이 혼탁하니 종교계도 혼탁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말 대로라면 혼탁한 세상과 종교계가 정화돼야 하고, 총무원장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터뷰 내용은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법보종찰 해인사 겨울 수련회

법보종찰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서 법맥과 종풍을 이어온 수행도량이었으며, 근래에는 용성, 고암, 자운, 성철, 일타, 혜암스님등 종단의 어른들이 주석하면서 선풍을 진작시켜온 한국불교의 종가(宗家)이기도 합니다.
해인사는 현재에도 법전 종정예하를 중심으로 25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인의 문화유산인 고려팔만대장경을 봉안한 사찰로 이름 높습니다.
한국불교사에서 처음으로 총림(叢林/종합수도원)으로 지정된 해인사, 그러므로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수행전통과 불교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사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법당을 가득 메운 스님들이 연출해 내는 해인사의 새벽예불은 그 어떤 장면보다 장엄하고 감동적이며, 산사수련회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2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해인사 겨울수련회는 3박4일 일정이며 여유로운 내용과 일과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불기 2546년 12월 일

■ 겨울수련회 일정

차수	기 간	연 령	대상자	인 원
1차	12월 18일(수)~12월 21일(토)	제한없음	일반인	100
2차	12월 25일(수)~12월 28일(토)	제한없음	수련동문회·일반인	100

※ 겨울수련회는 한파관계로 2차례만 실시하며, 1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2차는 수련회 경험이 있는 동문들에게 우선적으로 참가 기회를 드립니다.
■ 신청방법 : 1. 접수기간 : 2002년 11월 16일부터 선착순 마감
2. 접수처 해인사 포교국 (055-932-7430)
■ 인터넷 접수 : www. haein-sa.org ※ 접수는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수련회 참가비 : 개인당 8만원
■ 입금안내 : 농 협 / 843174-51-006770 (예금주 해인사) 우체국 / 611806-01-000455 (예금주 해인사)
※입금하실 때는 해당하는 수련회 차수를 이름 뒤에 기재하여 주시고, 입금된 접수비는 불참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통 보 : 입금이 확인되면 수련생으로 확정되며, 자세한 수련회 안내는 메일로 개인 통보해 드립니다.
■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털신, 방한복, 털모자, 장갑 등
※수련복은 해인사에서 지급하오니 개인적으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 안내 및 문의 : 해인사 포교국 055-932-7430, 해인사 종무소 055-931-1001~2
■ 자원봉사 모집 : 수련회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대학생 환영)
■ 전용버스 이용 안내 : 서울, 경기 지역 참가자는 수련회 당일 오전 7시에 서울 강남 버스 터미널 건너편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하오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에 관한 문의와 예약은 합천고속관광 장해용 기사(055-931-1390, 017-587-1390)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 인 사 주지 세 민 합장





◇동안거 간경결제대중들로 가득 찬 실상사 화엄학림 강당



◇실상사에 모인 금강경 결제대중들. 금강경결제의 논주소임을 맡은 각묵스님이 대중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실상사 화림원 금강경결제

고뇌하고 사유하며…치열한 토론의 장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을 바로보자"
禪중심 획일화된 현 수행풍토 반성
100여대중 발심 새롭게…논강 8번 남아

11월 30일 오후 6시. 지리산 자락의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 강당은 동안거 용상방(좌 방부를 들인 사부대중으로 가득 찼다. 동안거라면 보통 주요 선방이 있는 사찰로 모여들어야 할 일이지만, 이 곳에 모인 대중들은 실상사 화림원 동안거 금강경 결제 문을 보고 온 이름만 대도 알만한 출·재가 수행자들이다. '임오년 동안거 금강경 결제 용상방 증명 청화 통광, 논주(발제) 각묵, 입승(사회) 현응, 원주 성륜, 서기 해강, 부전 대은, 원감 재연, 대중 도법…'

금강경결제 일정	
11월 23일	왜 금강경인가
11월 30일	상이란 무엇인가
12월 7일	법소유상 제시하방은 잘못된 번역인가
12월 14일	조사는 대승이고 아라한은 소승인가
12월 21일	금강경과 공직
1월 4일	무엇이 제일바라밀인가
1월 11일	무아를 알아버린 한국불교, 천주교의 아류인가
1월 18일	마음은 흐름인가, 물생물멸인가
1월 25일	산나(살)를 척파하면 허무주의가 되는가
2월 8일	어떻게 산나(살)를 극복할 것인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실상사 화엄학림 강당 (063)636-3990



◇각묵스님의 발제문을 진지하게 읽고있는 비구스님들.



◇토론장에선 누가먼저랄것 없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왜 금강경 결제를 선택한 것일까. '조계종의 오늘과 내일, 소의경전 금강경으로 다시 본다'는 대주제 속에 그 답이 있다. 채연스님(화림원 원감)은 이렇게 설명했다.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면서 대승불교의 중심에 있는 경전인데, 불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소의경전이 수행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지요. 소의경전의 필요성 자체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요." 결제는 선방에서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강경 결제는 선 중심의 획일화된 수행풍토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2천명이 넘는 스님들이 석달 동안 선방에서 정진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인이 나오지 않는다' '수행이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말로는 무아를 말하고 있지만, 무아의 함된 의미를 두고 고뇌하거나 사유하는 이는 드뭅니다." 논주 소임을 맡은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의 지적은 한국불교의 수행풍토에 던지는 의미심장한 일갈이다.

"소의경전은 종단 구성원에게 있어 생명줄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종단구성원들로 하여금 소의경전에 의지해서 말하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의 표현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소의경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이번 결제는 중명을 맡은 통광스님(쌍계사 강주)의 법문으로 시작됐다. '공부의 목적은 실상반야를 이루는데 있으니, 결제 기간동안 용맹정진으로써 일체의 상을 여의어 실상의 도리를 깨달으라"고 당부했다.

이 날의 주제는 '상(相) 산나(이란 무엇인가'. 각묵스님이 지난해 출간한 〈금강경 역해-금강경 산스크리트 원전 분석 및 주해〉가 교재이다. 논주 각묵스님은 산스크리트 원전과 구마라즙 현장 번역본을 비교, 강의를 진행했다.

"불교수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마음챙김)를 간단하게 취급한 결과, 팔정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념(正念)이 대승불교의 실천도인 육바라밀에서는 상실되어버리고 대승불교 수행의 어느 곳에서도 강조되지 않는다. 부처님이 외도의 선정수행과 고행을 바른 수행이 아니라고 파악한 것은 외도의 수행에는 선정은 있지만 정념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념이 없는 선정은 정정(正定)이 아니다."

이에 대해 해강스님(화엄학림 학감)은 "육바라밀에 정념이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다. 선정바라밀 속에 정념이 있다."고 반론했다. 구마라즙이 제유발취보살승자(諸有發趣菩薩乘者)를 발(發)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으로 의역한 의도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각묵스님은 "금강경은 깨달음의 문제를 보편화시키고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로 보살을 설정하고 그 보살의 궁극적인 태도를 산냐의 극복에 두기 때문에, 구마라즙은 발취보살승자를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으로 의역을 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해원스님(동화사 강주)은 "금강경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선남자 선남녀가 등장하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매는 그것이 아무리 깊고 수승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개념을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미세한 상에 걸려 있는 것이므로 무아를 바르게 보는 지혜를 완성할 수 없다"는 발제문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의 반론이 제기됐다. 토굴에서 왔다고 밝힌 정범스님은 "삼매는 아 인 중생 수자상에 연연하지 않고 수행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참가대중들의 표정은 토론이 거듭될수록 더욱 진지해졌다. 한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번뜩이는 눈빛 속에 3시간여의 토론은 마감 내렸다. 참가대중들은 깨달음을 향한 같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새삼 확인했다. 토론을 통해 더욱 치열한 구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발심을 새롭게 했다. 실상사 화림원의 금강경 결제는 아직도 8번의 논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실상사=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ago@buddhapia.com

참선 대신 간경수행
사부대중 벽 허물어

"자주 만나 법을 논하라. 화합 속에 만나고, 화합으로 마감하여, 화합하여 법을 실행하라"는 부처님의 유훈에 따라 모인 실상사 화림원 금강경 결제에 든 100여 대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시대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마음을 모은 이들이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기에 앞서, 남의 견해에 귀 기울이고, 진지하게 따져 '바른 길'을 찾겠다는 것이다.

재가불자들은 재가불자대로, 출가대중은 출가 대중대로 제각각 앞 뒤 맞지 않는 주장과 제 나름의 견해에 매몰되어 다른 시각과 견해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한 풍토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실상사 화림원은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가 따로 수행해야한다는 벽을 허물고 참선 대신에 금강경 간경 수행을 선택했다. 이 곳에 모인 대중들도 "일체의 상을 여의어 실상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불자라면 누구나 수행지침서인 경전을 바로 보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암스님 열반1주기 추모재
세민 합천 해인사 주지는 20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혜암당 성관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일주문



통일서예대전 시상식 개최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은 13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제6회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자원봉사자 대회·자선바자회
지성 동화사 주지는 11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9교구 자원봉사자 대회 및 복지법인 '동화사' 설립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제2회 전국불교음악제 열어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7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전국불교합창단 연합회와 함께 제2회 전국불교음악제를 개최했다.



신임회장 등 임원진에 임명장
정여 여여선원장은 3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변성창, 도진윤 신도회장 등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육조단경' 주제로 강연
종호 동국대 선학과 교수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육조단경'을 주제로 강연한다.



자원봉사자 송년의 밤
설웅 속초종합복지관장은 13일 오후 6시 속초 켄싱턴호텔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연다.(033)631-8761



제1차 동계수련회
원행 원주 구룡사 주지는 26일 구룡사에서 참선지도, 문화유적답사 등을 실시하는 제1차 동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총무원사무실 은평구 이전
송정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은 최근 총무원 사무실을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1-11 도명암으로 이전했다. (02)351-3679



조동종 25차 정기종회 개원
덕진 대한불교조동종 중앙종회의장은 12일 오후2시 서울 보리원 대법당에서 제25차 정기종회를 개원한다.



53선지식 초청 특별법문
우학 대구 영남불교대학장은 16일 불교TV 회장 성우스님, 18일 뉴욕불교방송 김자원 사장을 초청, 53선지식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불교복지회 12돌 후원인대회
지도 불교사회복지회 대표이사는 14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복지회 설립 12주년을 기념하는 후원인 대회를 개최한다.



산신 석굴법당 낙성 법회
설호 당진 일심사 주지는 12일 경내에서 국태민안과 국민대화합 기원 산신 석굴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국가사회 발전 정책세미나
이호식 연세행정학회장은 17일 오후 2~5시 연세동문회관에서 '제11차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회장
고경순 대구 자비의전화 회장은 7일 대구 엘리제웨딩부페에서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회장에 취임했다.

고침 본지 398호 6면에 실린 대운 본원종 총무원장을 '종회의장'으로 바로잡습니다.

"미국포교, 생활 문화 이해 먼저해야"

LA 대각사 주지 진각스님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 견문을 넓히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LA 대각사 주지 진각스님이 5일 미국 포교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놓은 에세이집 〈인간의 참된 실존〉(이화출판사刊) 출간차 한국을 방문했다.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진각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해 외국 포교에 나서야 한다"는 숭산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86년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와 LA 등지에서 포교에 진력해 왔다.

스님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한다.

"한국 승가의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스님에게는 개인주의적인 미국 불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스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적응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미국의 힘은 어린이 교육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 미국의 어린이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는 스님은 LA 동국로얄대학 한의과와 하와이 켄싱턴대학원 등 졸업하고 하와이 달마사 주지를 역임했다. LA 사암련 부회장 등을 맡고 있는 스님은 또한 미연방 교도소의 아시아 불교인 총담당으로 범죄인 교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에 고산스님
공로상 상덕스님·한연수 씨

조계종 제14회 포교대상에 고산스님(쌍계사 조실 · 사진 왼쪽)이 선정됐다. 포교원은 선정이유에 대해 "전국 각 지역의 포교와 법회 현장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법문요청을 다다하지 않고 달려가, 수행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로상에는 재소자 · 경찰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스님(사진 중앙)과 군포교에 노력하고 있는 한연수 포교사단 군포교특별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선정됐다.

원력상에는 정현스님(재소자포교), 박용하(어린이포교), 김형중(청소년포교), 이병두(청소년포교), 곽철수(군 · 노인포교)과 김주효(직능 · 문화체육 포교), 김영한 서청주전화국 불자회장, 김활선 대한불자가수회장이 뽑혔다. 또, 김태복 장군이 종교편향 대처와 군포교 기반 조성 공로로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혼합성 백혈병 앓는 5세 상철이

전셋집 정리해 수술비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학병원에 온 상철이와 엄마.

"아파?" "아니, 안 아파." "머리는 왜 없어?" "자꾸 빠져서 밀었어."

빡빡이 상철이(5세). 7일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상철이는 자기가 무슨 병을 앓는지 모른다. 유치원 가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매일 병원을 다니고, 머리카락이 없어 까칠까칠한 머리가 어색할 뿐이다.

상철이는 지금 무서운 병을 앓고 있다. 상철이가 앓고 있는 병은 소아암 중의 하나인 혼합성 백혈병. 림프성 백혈병과 골수성 백혈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 백혈병은 피를 만드는 조혈기관에 생긴 암으로, 발생빈도는 낮지만 일단 걸리면 치명적인 병이다. 상철이는 남들이 하나 앓기도 벅찬 병을 둘씩 안고 살아야 한다.

지난해 5월 혼합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상철이는 9개월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져버려 빡빡 밀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쑥스럽다. 그래서 매일 여동생 미예랑 둘이서 논다.

심심한 것은 견딜 만하다. 어른도 힘겨운 항암치료를 받을 때는 상철이도 기운이 없다. 일어나 놀고 싶어도 누워 지낼 수밖에 없고, 먹은 음식은 대부분 토해낸다. 항상 명랑하고 잘 웃지만 이때만큼은 징징거리며 운다. 혈관을 찾기 힘들어 열 번 넘게 주사바늘을 온몸에 꽂는 일은 오히려 수월한 편이다.

상철이 아버지 곽호찬(35) 씨는 충남 온양에서 택시 운전을 한다. 한달 꼬박 운전을 나가도 월수입은 150만원. 상철이 병원비로 매월 1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얼마 전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25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집도 정리했다. 어쩔 수 없이 상철이네는 외할머니 집으로 이사했다. 첫 손자인 상철이를 바라보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다. 아픈 손자에게 돈 한 푼 못 주기 때문에 눈물만 흘린다.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학교 다니고, 공부 잘 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상철 엄마 양재숙(34) 씨는 이번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기를 빈다. 재발을 하면 더 독한 약을 써야 하기에 상철이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세상에서 돈까스가 제일 맛있다는 5살 상철이가 병을 훌훌 털고 활짝 웃는 날은 언제일까.

연락처:(041)546-7054
후원계좌 : 조흥은행 605-04-873938(예금주 곽상철) 강유신 기자



삼론종, 대승보살수계법회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혜승)은 1일 대전 대덕문화체육관에서 대승보살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석봉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해 열린 이번 법회에서는 1천2백여 신도가 보살계를 받았으며, 종단발전 유공자 시상식과 종무행정기관 부서장 및 교구장 임명장 수여식도 열렸다.



보현불교대, 미얀마수도원 방문
대전 보현불교대학(학장 법장 수덕사 주지) 학생 18명은 11월 27일 미얀마 마하시수도원을 방문, 수도원 법당에서 친선교류법회를 봉행했다. 순례단은 이날 수도원에 가사 200여벌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매년 마하시수도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기로 했다.



불기협 언론인의 밤 개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재우)는 2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제6회 언론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 등 150여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재우 회장은 "불교 언론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不立文子 見性成佛에 있는 것이다

통일부장관상수상 大圓法人 泰日大師 作品
동양미술대전 특선 및 동경국제 서화대전 문대상 당선작품

달마단전 건강 3분 즉시 기통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성산모를 통하여 달마가 될 수있는 것이며 수행삼보를 통하여 보이는 세상을 초월, 보이지 않는 자성을 보아 종교통일세계평화통일 불국정토를 이룩하는 도통군자 되소서.

● 사람들이 종교를 왜 믿고 도통견성수행을 어디에 쓸려고 수많은 세월에 도전하는가. 그것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오직 달마 직관법 뿐이고 사람은 누구나 루진통을 하여 달마가 될 수 있는 법도이므로 우리곁에 가까이 와있는 달마법도로 생명의 본체인 비만, 중풍, 치매, 당뇨, 암, 관절염, 신경통, 음양관리 등 만병을 이길 수 있는 달마단전건강 3분 즉시 기통법으로 만병을 관리하는 의통 능력자 되소서.

★ **달마 단전 건강 3분 즉시 기통법으로 배꼽을 움직이어 건강, 수명, 장수하는 自性三寶 수행으로 見性成佛 하소서. 배꼽 그 원천인 핵심을 벗긴다..! 달마면벽 9년의 비법으로..**

進天十海
退地五印

진태인 道改備방망이의 비전의비법을 아시나요?

이 신비스러운 진태인으로 천하를 다스리고 만조백관을 관리하여 천하를 통일한 중국의 황제들에 감추워진 비법과 주문으로 각종 질병 및 고액과 심신의 일체를 막아 비전으로 사용했던 신선들의 해인법도의 장대.
그 베일을 벗기고 지도자 사명자 도통군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단 한번의 기회!

✧ 문자의 최초인 천문유초에 내려오는 대한의 국운 대창을 받은 이 회창 후보의 국민이 원하는 공약을 본 태일대사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도통군자 15진주. 루진통 진법으로 生과 死의 창생 동지경신 도통대법회

제73회도통군자들에 천장지비의 비법이 임오년 12月17日子시와 18日오시(음11月14, 15日)에 다시 없는 해인도법 잣대로 루진통에 신비의 초능력을 얻어 지구촌의 이그러진 법도와 종교의 얼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병 육신의병 마음의병 정신의병 잡신의병을 제도 하는 대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각종 중음신과 잡신(수마, 인마, 병마)에 병명도 없이 우환, 질병, 각종 병의 고통으로 겁살 단명 중풍에 시달리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십년할 공부를 단 한번으로도 말문과 영통비법을 통하여 초능력으로 만법을 다스릴 용맹정진도통에 도통하시어 천하의 비밀장으로 소원성취하시고 인류 스승되소서. 진사성인출, 오미낙 당당의 비밀장과 **만병의 근원인 잡신에 병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얻어 인간에게는 주처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종교와 하늘에 의지하거늘 무엇때문에 종교를 믿고 도를 통하여 어디에 쓸려고 고행하십니까! 이번 법회에는 생명을 노리는 중풍, 치매, 혈압당뇨병, 관절염, 각종 병을 자기 스스로 이러한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오니 입문하시어 견성득도하여 무병장수 하소서.

● 입재 : 12월 17일 화요일(해시) ● 해제 : 18일 수요일(해시)
02)821-6622/821-7767~8/016)239-3110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출구 500m 남쪽 (버스 85,25,105,26,303,142,26-3,102번) 모자원고개 하차.

응조달마 **진인 경신 도통 회장** 天龍眞人
!! 명당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心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교육원 진불선원장 泰日法師

허허! 내 손주들을 먹이고 있소이다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안심하고 먹이십시오"

수신천사토종오가피는
인공감미료나 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천연 원료만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손주들을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만들었고,
성광수씨의 손주들 부터 먹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룬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던
수신토종오가피!

이제 어린이를 위한 수신천사
토종오가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성광수씨가 재배한
고구마를 드립니다!

지금 '수신천사토종오가피'나
'수신토종오가피'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성광수씨가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천연 무공해
고구마를 한상자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자매품 : 수신토종오가피

지금 전화주십시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55-7555

직장직능 불자회들 연말 이웃돕기 '잰걸음'

무의탁노인 지원 · 소년소녀가장에 성금
바자회·일일찻집 운영, 쌀·김치 제공도



◇서울 도봉경찰서 불교회내 봉사모임 '좋은 사람들' 회원들이 도봉구 관내 무의탁 장애노인들을 초청, 잔치를 베풀고 있다.

성남의 소년소녀가장 추세은 · 정문 남매를 돕고 있는 우리은행 불자회. 매달 성금과 생활용품을 보내는 등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책상에 두 남매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생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 따뜻한 축하의 말을 건넨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회원들은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는 직장 직능단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을 찾는 직장불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 서울 · 부산불자회, 한국중공업 법우회,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 서울은평구청 불심회,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 불자약사보리회, 선재마을의료회, 도봉경찰서 불교회 등 20여 단체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해지는 연말, 소외받는 이들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이들 단체들의 이웃돕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소년소녀 가장돕기, 무의탁 노인돕기, 각종 봉사활동 등 다양하다.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는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무의탁노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이웃돕기활동을 펼쳐 구청내에서도 모범단체로 꼽힌다. 종교에 관계없이 도청공무원 자녀 중 중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돕고 있는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는 이달 말 도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30여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한다.

자신이 가진 시간, 물건, 돈 등 5가지를 소외받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는 Give-5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봉경찰서 불교회. 불교회내 봉사모임 '좋은 사람들' 주관으로 소년소녀가장 3세대 6명에게 매월 생활비와 생필품을 보내고,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때는 양부모 역할을 한다. 또 65세 이상 장애노인 40여명들의 가정을 방문, 도우미 역할과 외출을 돕는다.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는 자매결연을 맺은 무의탁노인 15명에게 생활비를 전달한다. 회원들은 4년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바자회, 일일찻집 등 이웃돕기 행사를 열어 재정마련에 열심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서울 강북지역 중학생 6명에게 매월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이달 말 쌀과 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처럼 주변의 이웃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직장단체들이 늘고 있는 것은 직장불자들에게 불교를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 직장단체들도 법회를 주활동으로 하고 있는 회원들의 신행활동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웃돕기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점도 꾸준히 증가하는 한 이유다.

구로승무소 법우회 이우재 회장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이웃돕기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단체들은 회원들이 이웃돕기에 나설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불우이웃돕기는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직장단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는 10명의 불자가 회사내 불교신행단체 결성을 발원해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믿자'는 굳은 의지로 90년 3월 창립됐습니다. 당시 60여명의 회원들은 창립의 여세를 몰아 대덕 스님과 법사들을 초청해 매주 법회를 열고, 불교기초교리와 불교예절, 불교의식, 경전 등을 공부했지요. 그동안 배운 경전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아함경, 범망경 등 10여가지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반야요전'이라는 법요집과 신입회원을 위한 '기초교리 입문', 수지독송용 '불자 수첩'을 제작해 회원들의 올바른 신행활동을 도왔어요. 회원들의 소식과 불교소식을 알리는 회보 '반야'도 꾸준히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98년 3월부터는 사내전산망에 한전반야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모든 직원들에게 부처님의 법향이 두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460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야회는 창립 및 운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사업소 신행단체 창립을 도왔지요. 한일병원 반야회, 삼천포회력 반야회, 청송양수 법우회, 고리원자력 반야회 등은 반야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으로 결성된 단체들입니다.

또한 전력이불자연합회를 결성한 것은 회사가 전력사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등 8개 회사로 분리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지역과 소속 모임은 다르지만 연합회를 통해 강한 법우애와 동질감을 얻고 있는 거지요.

평탄한 길이 있으면 거친 길도 있는 것처럼 반야회도 여러 역경을 겪었습니다. 핵심조직인원이 한꺼번에 지방사업소로 전출되었을 때, 8개 회사로 분사되었을 때 등 모임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놓인 적도 있습니다. 회원들이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신입회원은 거의 없고, 법회 참석율도 떨어져 사기가 저하된 때도 있었지요. 그 때마다 회원들은 강한 응집력과 불심으로 더욱 결속을 다졌습니다.

오히려 회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활속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수행을 해야 하는지, 또 회사내 전법활동은 어떻게 펼치고 법회의 내실을 다질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지요. 반야회는 앞으로도 경전CD 배포, 구도정진 법회 확대, 회사내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직장내 올바른 불자신행 모임으로 거듭나고자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순형 구도부장 (원자력건설처)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원들이 한일병원 반야회원들과 함께 환자를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사내전산망에 '홈피'…전 사원에 법향
지방사업소 불자회 창립도 적극 지원

내년 세계교수불자대회 개최

교불련, 대불련 지도교수협의회 구성키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내년에는 세계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하고 세계교수불자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대내외적으로 위상 강화에 나선다. 교불련은 11월 30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사단법인 설립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연기영(동국대 교수) 현 회장을 재선출하는 한편 2003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결의한 사업계획안은 대불련과의 연계를 통한 대학생불자 신행지도 강화, 세계교수불자 연대, 세계불교학자 현황 파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불련지도교수협의회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2월중 열어 10월에는 공식 결성하고, 8월중 법륜교수불자회 주관으로 태국, 일본,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 10여개국의 교수불자들을 초청해 불교학술대회 형식의 세계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자신행집 발간과 학술회의를 열어 불법홍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연기영 회장은 "교수불자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안정 등 내실을 기하면서 대외적인 활동력을 높여 가야 한다"면서 "새롭게 창립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상 강화와 재도약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서울은, 하나은행과 합병
불교행우회 12일 회향식

서울은행 불교행우회(회장 권태중)는 12일 본점 17층 직원식당에서 회향법회를 열고 '서울은행 불교행우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달 2일부로 서울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 은행명칭도 하나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나은행 불교행우회로 내년 1월 재출범할 예정이다.

권태중 회장은 "불자회가 없는 하나은행 직원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 내년 1월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철불협, 지회활성화 지원

내년 사업계획 확정, 박창식 운영위원장 유임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이용일)는 1일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단위 지회의 활동력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에 역점을 둔 2003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철불협은 권역별 합동성지순례와 수련회 개최, 전법팀 강화 등을 통해 지역간 교류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철도대학 불교학생회 지원, 철도노동자 무사고기원법회, 환경살리기 걷기대회 등 사업을 펼쳐 나간다. 또 후원회원인 '수다타' 회원을 모집, 재정확보에도 나선다.

이날 2003년을 이끌어갈 새 임원진도 구성했다. 운영위원장에는 박창식(구로승무사무소) 현 위원장을 유임하는 한편 지역위원장에 재경단체 이정권(도화역), 남부권에 최비석(부산철도차량정비창), 중부권에 김태웅(대전기관차승무소), 동부권 이경재 전법팀장(영주기관차승무소)을 각각 선출했다.

우리 모임에선

경산조폐창 금강회 11일 총회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11일 오후 4시 20분 회사내 금강원 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2003년 회장단 선출과 1년 사업평가, 회칙개정, 모임 활성화를 위한 방안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단체장 동정



국회직원신드회 정기총회
김종환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장은 17일 정오 국회내 정각선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선출한다.



회원들과 백양사 참배
황진욱 MBC 불교연구회장은 7~8일 장성 백양사에서 회원 3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순례법회를 열었다.



법회장소 조계사로
이선희 한국세무사불자회장은 이달부터 법회장소를 조계사로 이전, 13일 설법전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법륜회 합동 송년법회
정후시 성북구청 법륜회장은 10일 서울 빅토리아호텔에서 성북사암연합회, 성북경찰서 불교회와 함께 송년법회를 열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2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겨울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2년 12월 11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삼매체험 선 수련 법회
▼ 5일동안 수행으로
1)직관수행의 길로 바로 들어간다 - 직관수행은 멀고 힘한 것이 아니다.
2)불교와 선 수행의 기초가 확립된다.
3)모든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맹목적인 미혹한 삶에서 탈피하여 뜻하는 일을 하고 활동하며 살 수 있다.
4)불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깨달음과 해탈의 삶이 보인다.
5)기복과 타력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6)그릇된 불교관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난다.
7)참선의 정도에 어긋나지 않고 활동하며 살 수 있다.
8)수련후 삼매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1. 대상및인원 20 ~ 60세 남 · 녀 일반인 70명
2. 수련일정 (4박5일)

차 수	1차	2차	차 수	1차	2차
수련기간	12월 23일 ~ 27일	12월 29일 ~ 1월 2일	대 상	일반인	
신청기간	12월 20일까지		인 원	70명	

3. 접 수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편 이용자는 속히 신청하여 항공편을 예약하여야 합니다.
(항공편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접수 통지합니다.)
※항공사 예약전화 :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4. 신청 및 서류 아래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세요
1. 성명(한글.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자택,직장) 4. 전화(자택,직장,휴대전화) 5. 종교
6. 직업-학교(과)반 7. 참가동기 8. 수련회 참가경험 유·무(유경험자는 순서별, 언제 어디서 기간) 9. 원하는 차수
5. 문의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전화를 해주세요.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6. 접 수 처 제주시 화북 1동 4684번지 조계종 원명선원
☎ 064-755-3322 팩스 064-755-0880 (팩스 신청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www.wmsonwon.net(wm선원닷컴)
즉심즉각 열린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晉會 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목어 'TV 속 종교 편식'



도수
정업도량 회주

불교인인 나의 눈으로 보아서인지는 몰라도 요즘 TV를 보면 두드러진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 특정 타종교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십자가 목걸이를 한 출연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전에는 삼가던 자기종교 자랑을 염치없이 늘어놓는 경우도 눈이 띄게 늘었다. 드라마 대사에도 종교적 색채를 필요이상으로 담는 경우가 많아졌다. 심지어 종교적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뉴스에서 까지 특정종교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경우마저 있다.

이런 분위기는 마치 모든 TV가 특정종교의 선교활동에 나선듯한 인상을 줄 정도이며 특정종교를 가까이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출연자들이 TV출연을 더욱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는 TV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종교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D와 기자, 작가, 리포터, 심지어 촬영기사까지도 TV화면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타종교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 불교인들이 부끄러워 해야할 대목이다. 고작 BBS와 btn에 만족하며 그곳을 중심으로 한 자리다툼에 급급해 오지는 않았던가 돌이켜 볼 일이다.

하지만 특정종교가 공중파 TV를 장악해 가는 사회적 흐름도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종교적 신념이나 선교의지를 가질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아직 눈을 돌리지 못하는 지식인이 많은 것 같다. 문화적, 종교적으로 지나친 편식이 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거기에 우려할만한 역기능은 없는지 TV방송 종사자정도면 한번쯤은 심각하게 살펴 볼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와 생활패턴을 편집증 환자처럼 만들어가는 TV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다고 생각해 며칠전 내 방에서 완전히 퇴출시켰다.

불자 세상보기



김징자
언론인
본지 논설위원

폭로·인신공격 난무… '正語지수' 바닥

석가모니 부처님을 '리얼리스트'라고도 한다. 서양의 종교 철학자 사이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특히 부처님의 첫 가르침, 사성제와 팔정도. 생의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 길과 방법을 설하신 부처님 가르침이 현실에 뿌리 두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고(苦)를 없애는 길, 그것은 치우친 양극단을 버린 중도(中道)로서의 팔정도(八正道)다. 인간 심리적 윤리 도덕성을 깊은 종교성 안에 포괄하고 있는 이 팔정도야말로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검증해 보는 좋은 잣대가 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 거짓말, 양설(兩舌), 험담, 거친 말이 아닌 올바른 말(正語)을 하고 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내놓은 '선거에 즈음하여'를 보면 이번 대선 분위기가 전에 없는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폭로 선동 등으로 얼룩지고, 편 가르기와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올바른 말'의 설자리가 없어 보인다.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모은 것은 노무현 정몽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두 후보간 TV토론 이었을 것이다. 노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 토론에서 노 후보는 '부처님도 방편을 쓰셨다'는 말을 했다. 정몽준씨가 'DJ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밝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왔다 갔다 식 노 후보의 언행을 언급했을 때 나온 답변이다.

정치인 가운데는 문자 속 밝은이가 많아 성현들 말씀이 곧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말의 전쟁터'에서 상징성 풍부한 '문자 속'은 빠질 수 없는 첨단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해 보면 '부처님의 방편 설법'도 실상 노후보가 처음 쓴 말이 아니다. 3김 가운데 한분이, 노후보가 이번에 받았던 비슷한 질문에 같은 답변을 제법 써 먹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방편 설법'은 부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방편이지, 세속인의 것이 되고 보면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 적 '거짓말'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의 군주론을 빌려 보면, '인간이란 단순한 동물이라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기 쉽다. 그러므로 속이고자 하는 자는 속일 상대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3김 가운데 그 한 분, 그리고 노 후보를 유독 '거짓말 잘 하는 정치인' 쪽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서로 간 '오십보 백보' 여서 경중 가리기가 어렵고 국민들도 이를 어느 정도 묵과해 주는 관용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대의 민심은 서양 중세 마키아벨리의 시대 민심보다 크게 진화해서 쉽게 속지도 않는다. 다만 그러려니, 속는 척 할 뿐이다.

노 후보는 3김 시대의 화법 하나를 무심히 배워 구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방편 설법'에 재미붙여왔던 그 한분과는 스타일이 매우 다르다. 거칠면서도 속이 곧잘 들여다보이는 언행을 구사하는 그를 유권자들은 '가볍기는 하나 오히려 솔직한 인물'로 평가한다. 정치인 가운데 비교적 거짓의 때가 덜하다는 평가일 것이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명쾌한 설명이 불가능한 아들들의 병역 문제 등 몇 가지 외혹이 그의 정어(正語)에 대한 믿음을 여지없이 의심케 하고 있다.

아마 16대 대선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지역감정에서 자유롭다'든가 '지역 주의를 없애겠다'일 것이다.

지난 3일 있었던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세 후보 합동토론에서도 양강(兩强)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노 후보는 상대방의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부추김을 성토했다.

토론에 함께 참여했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역시 정당과 지역간의 고리 끊기를 촉구했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으로서야 눈에 보이는 지역감정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이고 더구나 상대 후보가 지역주의를 이용할 때 이를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경남 출신인 노 후보, 그리고 영남을 스스로의 기반이라 믿고 있는 이 후보가 부산과 경남에서 격돌하며 쏟아내고 있는 말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지역주의 아닌 것을 찾기 어렵다.

도청, 각종비리, 정치자금 등 어느 한편은 분명 거짓말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의혹들이 이 시점에서 돌출하고 있는 현실도 어지럽다. 선거풍토가 어떻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는가.

만약 '정어 지수(正語 指數)'라는 것을 만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16대 대선의 정어지수는 바닥권이다.

지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가운데 바닥권은 역설적이게도 희망과 연결돼 있다. 주가지수나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제는 오르는 일만 남았다는 희망을 갖는다.

한국 정치에도 그런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바로 지금부터라도 정어지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후보, 정어에 조금이라도 다가서려는 후보가 있다면 민심은 그 쪽으로 기울 것이라 믿는다. 아무리 '거짓말'이 '정치'라는 불가피한 영역 속에서의 필요악이라 해도 미래 정치는 정어지수로 계량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덟 가지의 올바른 길, 그 팔정도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길만이 유독 그 경지가 높을 수는 없다. 수준, 즉 물의 높이는 함께 오르내리는 이치와 같아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진실된 성질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른 공력을 단련해 왔을 것이며 악의(惡意)나 관능에서 벗어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며, 그리고 그 행위 역시 올바른 길을 택해 갈 것이다.

개인적 생의 괴로움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괴로움을 올바로 파악하는 일, 그 괴로움을 없애는 일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면 팔정도야말로 정치 지도자들이 택해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후보 간 정견이 중요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다. 물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고 당당한 대결은 정책대결일 것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정견이나 공약이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민심에 부합하고, 이를 약속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팔정도에서 나온다면 후보의 됨됨이 검증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계에 정어지수 도입을 권장하고 싶은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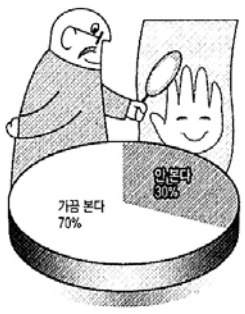
불립문자(不立文字)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세계는 선가(禪家)에만 있지 않다. 몇 천 년을 진화(進化)해 온 민심은 이제 후보들이 쏟아내는 말의 홍수 속에서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 된 세계를 볼 줄 알고 빠른 속도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를 전할 줄도 안다. 짐작컨대 지금 한국 정치인의 정견(正見)지수는 민심의 정견지수에 비해 낮을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는 1류인데 정치는 3류 4류'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보다 진실 된 후보'를 올바르게 파악한 민심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참여해 의사 표시를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국민 각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 민심을 투표로 보여 주어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생각

운세 자주 보십니까?



불자들은 각종 매체에 나오는 운세를 얼마나 자주 볼까?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이같은 질문을 해 본 결과 응답자 50명 가운데 35명(70%)이 가끔 본다, 15명(30%)이 안 본다고 응답했다.

각종 매체 운세 가끔 본다 70%

또 운세를 본다면 얼마나 믿느냐는 질문에는 38명(86%)이 믿지 않고 흥미로 본다, 6명(14%)이 좋은 내용은 믿고 나쁜 내용은 믿지 않는다고 답변해 대다수 불자들이 재미삼아 한두번씩 운세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식 기자

이렇게 들었다 — 변호사 윤리교육

그릇된 윤리의식에 피해 국민 없길
기울지 않는 바른 법 수행 준수해야

내년초부터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변호사연수규칙에 '변호사는 협회가 정한 변호사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는 신참 변호사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까지 연간 일정 시간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은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금지, 성실변론 등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조항을 명시해 왔으나, 이를 어겨 정직·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20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윤리교육' 실시 방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사후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 윤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변호사협회의 자정 방안이라는 점에서 등을 두드려 줄만 하다.

법률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등록하는 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도 이 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니 변호사들의 비뚤어진 윤리의식으로 더 이상 피해 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할지언정, 의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해 바른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또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중아함경>

▩만약 사람의 마음이 곧으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제법집요경>

▩다만 법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유행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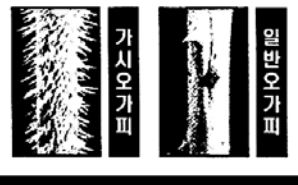
▩관리들은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범법하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보호, 법에 의한 처리, 법에 의해 안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다. <아쇼카왕>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보낼수있는곳
성라실버타운
경기도 가평소재
(유료양로원)
▶시설안내◀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숙실평형 : 9.5평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주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TDP神燈-생명의 빛!!
중국의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에너지파, 수퍼원적외선 등 방사파장을 신체에 동시 투사하여 인체의 면역기계와 순환기계, 소화기계, 등 생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으로 열에 약한 병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의료기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TDP치료기를 1대씩...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가정상비용 의료기
※ 각종 참고자료 - 4,300여명의 환자별 임상실험 통계
미국 FDA검증(No.K875052)
한국 의약품안전청 허가(제수허 01-206호)
TDP 신등은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과 악성 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관절염 증상으로 허리, 무릎, 팔목 등 관절통증에 시달리는 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성인병에 시달리는 분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이뇨장애가 있는 분
◆고질적인 치질, 치루, 탈항으로 고생하는 분
◆부인병 - 냉증, 세균성 염증, 생리불순, 생리통을 가지신 분
◆자주 재발되는 피부 트러블을 가지신 분
◆전립선 기능장애로 신경이 쓰이는 분
유고 국제 박람회 금상 수상, 벨기에 부뤼셀 만국박람회 은상 수상
◆중국 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의 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 가정용)
◆한국-1995년도 보건복지부 수입허가 이후 국내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중
건강21 02)457-2831~2 (자료책자 무료우송)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869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 위치 : 경남	• 위치 : 경기가평
• 법당 및 요사채 : 160평	• 법당 : 22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요사 : 40평
• 부지 : 200평	• 부지 : 34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6억 5천	• 가액 : 1억 3천	• 가액 : 1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평생같이 살분

5000만원 내고
남 · 여 부부 환영
남 · 여 불자 환영
0502)999-0506
011)308-6542

구 합 니 다

공부하는 비구니스님으로서
부산인근에 아담한 토굴
암자 임대 주실분을 찾습니다
019)588-6448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심야전기 온돌

▸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 안내

● 위치 : 김해	● 위치 : 진주 부근
● 대지 : 약 700평	● 대지 : 약 6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22평
● 요사채 : 30평	● 요사채 : 45평
● 가액 : 6억	● 가액 : 3억 2천
※ 김해 진영 중간 지점	※ 진주에서 15분(마을인근)
※ 확 트인 전망 교통편리	※ 깔끔한 기도 및 포교도량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토굴안내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마을내 소재
● 대지 : 124평
● 大방1, 中방2, 기름보일러 시워실, 창고, 마당, 터밭, 주차가능 주변환경깨끗, 교통편리, 물공기 맑음
● 가액 : 3,000만원

054)932-3698
011)9164-1140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소재(천하제일의 명당) 영호남 기차역 10분거리 고속 IC 20분거리
● 등기이전 830 실제사용 1300
● 법당, 산신, 요사채 8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뒷산과 대로변에 강이흐르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장기도 도량으로 불사중에 있음
011)381-1102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포교당

● 위치 : 부천소사역 200m	● 위치 : 수원시내
● 법당 : 40평	● 대지 : 96평
● 요사 : 방 2개	● 법당 : 40평
● 보증금 : 3천	● 요사 : 70평
● 월 35만원	● 양도가 : 3억 5천(2억대출가능)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뒤는 산이며 도심 사찰 임
● 위치좋은 도시 포교당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절터 농장 부지 안내

● 위치 : 하동군 청암면 지리산 칠승봉자락
● 답 : 230평
● 전 : 168평
● 임야 : 2600평 (모두 대나무 밭)
● 가액 : 2500만원
● 답 : 1570평 평당 2만원

011)9550-7088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금성면 입석리(구)진로 농장
● 특징 : 진주에서 30분 거리
지리산 자락의 석대산을 병풍 처럼 두른 정남향의 부지
농지 전용 부담금 1/10
토목공사 완료
● 부지 : 3천7백평(준 농림지 때 평당 5만원

011)9307-8318
011)755-7172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
● 크기 : 21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가액 : 3억 1천만원

016)818-8076
018)507-006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지방도 옆
● 대지 140평
● 전 : 888평
● 사찰 건평 : 25평
● 답사후 상담 결정
● 별도로 2727평 전이 있음

017)810-1364
054)672-1364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업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인국동 한국임보원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찰 안내

● 위 치 : 서울특별시 소재(수락산)
● 부 지 : 1,000평
● 법 당 : 40평(입법당)
● 요사채 : 20평(방5개)
● 가 액 : 10억원
● 특 징 : 수락산에 위치한 고찰로 산신각과 약수터가 유명한 사찰임
● 위 치 : 제주도 북제주군 소재
● 부 지 : 800평(대지)
● 법 당 : 50평(노천법당)
● 요사채 : 30평
● 가 액 : 10억원
● 특 징 : 관광사찰로 지정된 도량으로 불자들을 위한 암로원건립이 허가된 사찰 임.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입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화양리 4거리
● 크기 : 23평 방1, 거실 겸 주방 법당, 욕실
● 시설일체, 몸만 들어가도 됨
● 가액: 보증금 800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1200만원(조정가능)

011)251-5287
02)461-6091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지리산 입구
● 건물, 법당 20평
● 산신각 4평, 독천각 2평
● 요사채 2채 약 50평
● 심야전기, 대지 임야 약 2000평
● 차량 무한정 진입가능
● 기도처나 복지시설로 적합
● 70년 묵은 소나무 쌓여있는 도량

011)9372-5977

포교당 안내

● 청주시내 위치좋음 주차장 완비
● 건물 3층 건물중 2층(60평)
● 큰방3, 법당30평 샤워실 주방
● 시설A급 완벽 현재운영중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900만원

019)338-0008

사찰안내

● 법천사 경남 함양군 안의면
● 대지 : 3400평
● 대웅전(법당) 50평
휴게실 25평, 주택 60평
● 대진고속도로 88고속도로 교차지점

055)963-2250
019)294-2250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 6호선 신당역)

사찰 (부지) 안 내

● 진주 사천시 사천운동장에서 차로 5분거리
굴법당 포함 약600평 경치좋음
일금 3억 2천만원
● 진주 사천시 2000평 중 종교부지 500평 허가됨 일금 평당 4만원
● 마산시 진동 도로변 절뒤편은 암석으로 조성되어 있음
● 경남 고성 부지 500평 대웅전 (단청 및 목조 완성) 도로변, 아파트 옆 일금 1억 9천만원
● 경주시 감포읍 75평 건물 2동 스님기도처 및 쉬는 곳으로 안성마춤 일금 4천 만원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통합병원 앞 산자락에 무허가촌 약 120평, 9평 법당 콘테이너 1개 일금 4500만원

※ 위 물건들에 대하여 인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양도 · 양수 전문 011-836-2502 / 시티공인중개사 051)624-8888

사찰안내

● 전철역 10분거리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 대지 : 38평
● 특징 : 주택가이면서 주변녹지가 있고 전원주택 같은 외곽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수려
● 가액 : 1억 2천만원

016)481-6909
019)276-2388

사찰(급)안내

● 위치 : 삼현포 앞바다가 멀리서 희미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7)595-5958

태백산 기도도량 사찰안내

●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알을품고있는 형국이며 산세, 암석, 계곡, 절경이 아주 좋음
사찰 100m 앞에는 촌양봉화로 가는 길이 잘되어 있고 큰계곡 유원지가 있음 사찰부지 185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되어있으며 기와건물 50평 지어있고 전기, 전화, 수도 시설도 잘 되어있음 ● 가액 답사후 절충

018-223-2101

토굴(사찰)안내

● 충남 청양군 대치면 계곡리 (인접 지역에 장곡사 있음)
● 부지 : 건평 37평(2001년 신축)
● 대지 : 400평 · 전 300평
● 임야 : 2300평 형질변경 가능함
● 특징 : 침갑산 줄기에 좌청룡우백호가 뚜렷한 지형임 심야전기냉방 노타리 재배사 및 저장고 시설되있음
● 가액 : 1억 5천(분리 가능)

011)434-7209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산속	● 위 치 : 서울 시내
● 부 지 : 12,000평	● 대 지 : 170평
● 법 당 : 35평	● 법 당 : 50평
● 요 사 : 35평	● 요 사 : 90평
● 가 액 : 12억	● 가 액 : 9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남 부근
● 대지 : 600평
● 요사채 : 110평
● 대웅전 : 25평
● 가액 : 14억

● 위치 : 경북 예천 군청 옆
● 대지 : 100평 ● 요사채 : 15평
● 대웅전 : 13평 ● 산신각 : 10평
● 가액 : 1억 1천

충청도, 경기, 서울 사찰 양도 하실분을 찾습니다.
011)9820-0112, 041)554-0112 천안기와공장 박대리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시설 녹지) 2500평
● 가건물 3동
● 신도가구수 5천세대
● 가액 : 10억

011)597-445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시 부림시장 오거리 5층 건물중 3층 45평
● 법당, 삼존불, 탱화 시설물 집기 일체
방2개, 주방, 응접실, 화장실, 샤워장
● 보증금 7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중 일부만 받고 양도하고 나머지는 1년후 양심에 맡김 급한사정임

011)9973-4248

김해포교당

● 삼존불(금장불 신중단 종합탱화 영가단 방3칸 거실大자 2층 대로변)
● 가액 1500만원에 30만원 (전세포함)

055)321-7057
017)842-503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역에서 10분거리
● 법당 : 40평 산신각 : 10평
● 요사채 : 방 9개, 심야보일러
● 기도처로 명당자리
● 가액 : 전세 3,500만원
● 즉시 불공 가능

011)845-3596

풍수 강좌 감정 상담

新 지리풍수학 저자직강
www.poongsoo.net
전국 유명 혈지 상담(陽宅, 陰宅)
※ 강좌 - 수요일 : 주간반 3시 ~ 5시, 야간반 7시 ~ 9시

한국지리풍수연구원 02)762-3330

석불 인연 찾습니다

● 석불(지장불상) 모실 절이나 인연있는 스님 불자님 찾습니다.
● 높이 12자, 좌대 11자, 옥촛대 70mm 1상
● 녹다기 향로 1상, 노천초꽂이 160개
● 조성가격 : 7000만원 ● 절충가격 : 5000만원

011)599-999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합천간 국도 중간 지점
● 법당 25평 기와 단청필 보일러실
● 요사체 2동 합 50평
● 산신각 용왕당 천연자연수
법당내 법화경 400권 봉안
● 대지 250평
● 답사후 결정

016)421-9154

포교원안내

● 위치 : 의정부 시내
● 크기 : 방3개, 욕실2개, 창고1개, 법당 총 65평
● 특징 : 건물 5층에 5층 (옥상사용가능)
● 가액 : 전세 500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638-8229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4층건물 모두 사용
● 건평 : 250평, 대지 : 157평
● 가액 : 3억9천5백 (융자 3억 포함)

055)385-0065
011)570-335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 대 지 : 총 159평, 법 당 : 25평
● 요사채 : 50평(실평수 60평)
● 교통편리, 주차 20대이상 가능
● 가 액 : 6억 5천만원

011)9073-1560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 방향 바꿈, 건물 멀리 옮김,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 곳 교체
신축 및 기와 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대표 : 姜忠 (주)고도건축
대구시 동구 각산동 389-2

053)964-0858 · 011)804-1748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사륜 진입가능
● 전기전화 없음
● 평수 : 밭 2734평(대지 110평 포함)
● 집지을 터 닦여 있음
통나무 많음
전망 좋은 산간 오지
● 가액 : 2200만원

011)9370-1854

사찰 안내

● 위치 : 수락산 당고개 전철역 500m
● 평수 : 300평, 법당 30평
● 요사 : 20평, 나한전 30평(노천)
● 약수 2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3억 5천

011)9997-9932
02)952-7220

사찰안내

● 부지 : 4천평
● 법당 : 35평
● 산신각 : 15평
● 요사채 : 50평
● 양도가 : 2억
● 산세좋은 기도도량 임

011)530-1975

탈 종 공 고

● 성 명 : 김형규(581009-1476411) ● 법 명 : 수 월

상기 본인은 태고종의 종지 종승을 받들 수 없어 득도수계당시 은사스님과 이연하는 동시 태고종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1일 위본인 김형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예하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 옥각리
● 실평수 100평 사용평수 100평 합 200평
● 법당 20평반, 산신각 3평반, 돌탱화
● 요사채 10평 1동, 11평 1동, 탑,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비로자나불
● 인수품 약 2천만원 동내 270호
● 교통편 : 정류장에서 5분거리 ● 상수도 지하수 2가지
● 가액 : 9천 8백만원

011)9405-8186/043)733-8186~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 2번출구 근교
● 건물 : 2층 약 60평 최적요지 법당(아미타삼존불 모셔져 있음) 30평, 방 2개, 공양간 1개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110만원 권리시설비 5000만원(집기일체 포함) 본인은 사찰공사 완공 이전함 10년 포교당 자리

02)2247-0323
017)253-6892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등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템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448-1144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011-732-6933

북한산 노적사
화엄신중7 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철야정진기도 (음)매월 7일(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지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청림 정직회(거사회)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02)353-5016,354-7900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통쵤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법 회 안 내
삼각산 심우정사
초하루 법회 오전 10시
보름 법회 오전 10시
서울 종로 신영동 산4번지
02)391-1421주지 범진 함장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남양주 보광사 태극권 주말수련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모집인원 25명 내외.
031)594-1316

수도사법회안내
매월 초하루 정기 법회
요가선체조 수지침 강의
달마대사 부처佛자 그림 무료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675
051)512-4008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하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북한산 용암사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복지도량 건립 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복된장, 고추장 판매수익금은
전액 복지도량 건립에 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053)581-0770

소원성취기도도량
재단법인 성운사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철야기도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9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1
031)314-7577

지장기도도량
김포큰절 무량사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30분
매월(음) 18일 지장재이럽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철야정진 법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1리 산269-16
031)989-7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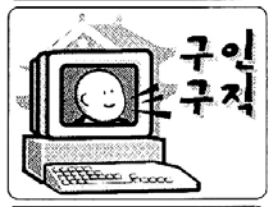
봉황산 미륵암
(영통쵤학관)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삼각산 청련사
매월 초하루, 보름 정기 법회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02)379-3935, 6938
주지 윤지명 합장

염불만일회 정토사
초하루 보름 관음재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02)396-3405

용천사 법회안내
매월(음) 1일 초하루 법회
매월(음) 18일 지장제일
매월(음)24일 관음제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416
02)883-9328/02)872-6367

천수암 법회안내
매월(음) 1일 초하루 법회
매월(음) 15일 보름법회
경기도 연천군청산면 초성리 489-7
011-487-75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종로구 평창동 삼각산
>아이있으신 분도 가능
02)379-8697
0 11)758-9511

송리산 명상문화센터입니다
산을 좋아하고 명상에
관심있는 분으로
처사 1분 보살님 1분을
모십니다
054)535-0378

한국불교범음회 학인모집
초급,중급,고급
매주 수,목
(오후 5시-7시)
051)554-1518

연화세계 혜인큰스님
점안식 초청 법회
양력 12월 15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585-5108
011)390-01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급여 80만원
▷보너스 별도
011)763-1690
054)745-0246

보살님, 처사님
토굴 같이 쓰실 분
혹은 혼자 쓰실분
011)748-7604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구합니다.
011)315-3041
011)483-59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정선 암자
033)378-8793~4
011)378-72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영탑사
031)867-4131~2
018-370-4133

공양주 보살님 구함
(충주)
▷ 산세좋은 조용한 암자
043)855-7127
011-711-7127

사무 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487-8500
02)475-8600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932-2537
011)738-0338

부전스님 모십니다
▷ 강원 철원
016)880-73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이천 원경사
www.wonkyungsa.com
031)641-6311

출가하여 승려가
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남 · 여) 40세 이하
011-459-3282

배우자를 구함
한국과 일본에서 포교원을 운영중인 포교원장이며
경영을 포교사업을 함께할 45~52세 불심이 있는
여성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011)814-6677(운경)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2)2234-219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분당
031)719-040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숙식제공
041)736-5700~2

사미니를 모십니다
▷전남 나주
011)617-6835

공양주, 처사님
각 한분씩 모십니다
▷종로구 평창동 삼각산
02)379-8697

창건 도량에서 지내실
비구 비구니 스님 찾습니다.
▷ 경기도 여주
031)881-3371
011)259-5989

저의 모든 능력을 드립니다.
불교승려이며 역학 및 불교의식에
능하고 38세의비구스님으로
모든 것을 마음만 맞으면
남은 인생 무료로 드립니다.
011)9391-6987

구 합 니 다
기도 정진중인 역학가능.
비구승으로 서울시내 포교당
운영 할 암자나 토굴 임대나
운영을 맡겨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011)659-2738

한 국 스 님 을 찾 습 니 다
법명 李僧圀
중국 남경에서 인연을 맺은 의형제 周仁勇이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中國 南京 雙塘里 56號 601室
중국남경(025)220-7934 한국연락처 033)332-6022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수 스님 입니다.
사찰 운영권 맞겨 주십시오.
011)9859-7425

사찰 종무실 직원 구함 북한산 노적사
남녀 제한없이 40세 미만, 사찰내 숙식가능자
컴퓨터 경리 사무 등이 가능하고 사찰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분
문의 주 간 : 02)353-4924, 011-9734-4924, 353-5016
야 간 : 02)353-4924, 011-9734-4924
노직사에서 행자(스님되실 분 40세 이하)도 모집합니다

행자모집
(지망생 약간명)
011)9705-6880

(이전. 강죄)


불 선 도
이 심여년 전통수련관
한국불교 전통 기공 불선도
태극권 운기공 전기단법 횡강호흡
氣치료 즉시 효과감 봅니다
수련시간 : 오후 3시~4시, 7시~8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200-30
051)556-9700

(사)한국여성불교연합
사무실 이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번지
상걸러리 4층 401호
사무실 내 연꽃교육장(40석) 연중개방
02)738-5586/5568

기적의 부처님! 화악산 대응사 약사여래불!
확실한 소원성취, 스님의 가르침대로
3일만 기도하십시오.
청도군청 뒷산 054)371-2887 · 373-3658

북경관광 및 한방체험 방문단 모집
기간 : 6박 7일 금액 149만원 세일, 모집하실분 환영 / 수당지급
게이트관광 02)465-2577

등록증, 임명장 교부 통보
총무원장 취임에 따른 명의 변경으로
등록증 임명장을 교부하오니 기일내에 교부바랍니다
기 간 2002년 12월1일 - 2003년 1월 31일
교부장소 법상종 총무원
02-415-1602,1634,1688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보경 회의신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산도피안사
도피안사 파라미타수행원
(하계, 동계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031)676-8700~2

사륜중고차 전문
▷전무 : 심상팔
문의 상담 받습니다.
011-272-7643

비구니 학인입니다.
초하루, 지장재일에
기도해 드립니다.
016-9336-2210

사주 오행 쑥뜸
냉증, 만성질환자
퇴직자 부업 상담
031)447-8090
안양 만안구청 / 명학역 앞



낙화 (민속촌내)
세계 유일의 향나무 명함 제작 기업
주문 수량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연락주십시오
011-262-4371

승복 및 개량한복 맞춤 판매
가사, 장삼, 승복, 신도복, 개량한복 일체
각종생활 도자기도 있습니다
아 라 냐
부산시 부전동 부전지하상가 F6호
051)818-8063

한국목탄연구소
기(氣) 에너지의 증폭됨을 알 수 있는
고강도 숯으로 만든 숯 목걸이
전신의 노폐물과 수독을 배출하는
대나무수액시트
02)925-0300

쑥담배 BULE (블루)
쑥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물입니다. 발명:대한불교 건강복지회
대 표 청청 고운맘
(주)황금산트레이드
02)663-9229

누 리 공 방
불단 닫집(천궁) 법상 경탁 등 전문공방입니다.
박연호 합장
011)703-9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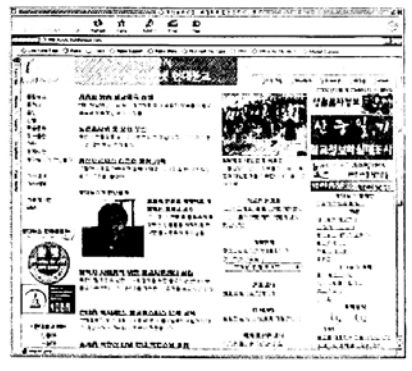
동성불교사
개금 천불 범종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031)575-2532
FAX: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송강기획(주)
불교음반전문유통업체
02)745-6015

삼환식물성양초
특 징
그을음이 없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
양초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없다
031)766-0242~3391



나우하우징
사찰건축, 실내인테리어,
전원주택, 리모델링 등
종합건축 전문 기업
02)596-3232

Mo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1544-1088

출판, 불교기획
연 중
불서기획, 출판 정성껏
대행해 드립니다
019-696-0701

붓다 예술원
단청, 탱화, 개금
대표작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일주문, 종각 단청
곡성 태안사 대웅전, 극락전,
천불전 단청
대구 염불선원 대웅전 단청 이외
130여 사찰 단청 및 탱화, 개금 시공
30년의 전통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불사를 임하겠습니다
원적암 혜원(스님)합장
011-509-0124

신간
四 柱
格局用神 격국용신
總說捷徑 총설첩경
通變話術 통변화술
(前編, 後編) 전편, 후편
사주의 격국용신과 통변술은
초보자라도 알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역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著者 李恩周
青雲易學院
02)723-7449

A+TOUR 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상품 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불교성지순례
▷ 국/내외 여행
▷ 할인항공권/여권/비자
▷ 카나다 유학/어학연수/영어캠프
▷ 투어디자이너 및 영업사원모집
(주)에이플러스여행사 02)735-8844

기와지붕시공전문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덕신기와
011-302-7802

목초수액시트
잠자는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판매원 : 가자라이프
02)5454-010

"도와주세요"

봉로원	02-313-7028
자제정사	031-356-9030
대정사	031-336-3108
목련의 집	031-534-8554
거북마을	031-952-4801
녹향원	031-847-1466
굴암사	031-676-4221
선재동자원	031-876-2235
쌍암사	031-872-3472
행복한집	031-258-5727
동지 청소년의집	031-439-0222
부루나양로원	032-577-5108
송덕사	033-343-6264
소쩍새마을	033-762-9870
효심원 은빛마을	041-933-3905
석림사	041-741-0414
봉곡사	041-543-4004
정회사	042-257-1901
진여원	043-851-6013
보광정사	051-524-8932
더불어사는집	051-805-6400
정토마을안락원	053-852-7888
해뜨는집	054-482-1392
자비원	054-474-7700
본향원	054-435-8880
불로사	054-430-1878
죽장사	054-481-2736
호암사	054-541-7863
옥천사	055-672-0100
보리수마을	055-672-0078
자림원	055-391-4558
호산마을	061-373-8844
쌍봉양로원	061-373-9041
수덕의집	061-337-7600

불교계 영세복지시설 후원의 손길 뜸해

"왜 이렇게 춥지?" 월동걱정

"어서 오십시오." "혹시 스님이세요?" "네, 스님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16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산 보광정사 주지 지홍 스님은 택시기사다. 보광정사의 매달 운영비가 350만원이 넘는데, 신도들에게만 무조건 만들어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법명사 김광명화(54) 보살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기름값이 없어 양로원 노인들이 모이는 안방 보일러를 끌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정을 아는지 할머니 세 명이 낮볕을 쬔다며 대청마루에 옹기종기 모여있다.

부루나양로원 기름 아끼려 보일러 가동 줄여

선재동자원 올 후원금 예년보다 25% 감소

기댈 수만은 없어 스님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이들 고사리 손에 공책과 연필을 사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요새는 벌이도 시원치 않다.

5일 인천시 가좌동 부루나 양로원. "방안이 왜 이리 춥지?" "어머니, 죄송해요…." 양로원 노인들의 점심을 추위가 본격 시작되는 12월. 현재 정식 복지법인으로 등록한 복지시설 외에, 불교계가 운영하는 조건부 신고시설과, 미인가 복지시설은 총 36곳. 이들 시설 대부분이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후원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겨울나기가 막막한 실정이다. 더구나 IMF이후 후원자들이 급격히 줄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뜸하다.

구미공단에 위치한 자비원은 공단 사정이 악화되면서 부쩍 후원금이 줄어들어, 스님이 연료비 마련을 위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50여명이 모여사는 선재동자원은 예년에 비해 후원금이 25% 가량 줄어든 상태다.

이밖에 자비원, 보리수마을, 자림원 등 대부분의 영세 복지시설들은 재정의 대부분을 사찰 보시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경비마련에 고충이 큰 상태다. 교계의 일부 복지시설이 수용자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장애인, 무연고 노인, 고아 등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가슴 아픈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회당사상…' 심포지엄

위덕대, 12일 교내서 개최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가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을 맞아 학술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사업 위덕대학교 봉행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교내 인문사회과학관 중강당에서 '회당사상과 새 불교운동'을 주제로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을 연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회당 구도소설 및 회당논설집 출판기념법회', '심인진리의 대중화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박원구기자

지역시니어클럽 심사

경주 신라문화원 지정

신라문화원이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시니어클럽에 지정됐다

신라문화원은 11월 22일 지역시니어클럽 3차 대상자 심사에서 최종 선정돼 총 1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박원구기자

청담사상연구소 17일 창립

진주산업대, 생애·사상 학술세미나도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기를 맞아 대학에 스님의 마음사상과 문학을 조명하는 연구소가 설립된다.

진주산업대학교(총장 정해주)는 17일 오후 2시 종심관에서 대학부설 청담사상연구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 목정배 총장(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 '청담대종사의 생애' '청담대종사의 마음사상'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청담사상연구소(소장 김기원 교수)는 앞으로 청담 마음학과 참회정신 마음문학에 대한 연구발표 및 학술연구지 발간, 학술대회 및 연수회 개최 및 청담 마음론 참회 체험 보급, 장학사업, 국내외 사료발굴 및 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산업대 전신인 진주공립농업학교 12회 졸업생인 청담스님은 1924년 재학시절 3·1 진주학생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으며, '학우단'을 조직, 일본말 안쓰기, 교복안입기, 우리글쓰기 등 무저항 학생운동을 전개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카운슬러대학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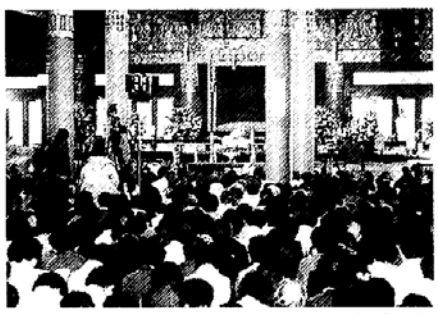
영남불교대, 상담인 양성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5일 25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불교카운슬러대학'을 개강했다.

불교카운슬러대학은 불교 전문 상담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영남불교대학 3층 대법당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3개월 과정으로 마련된 불교카운슬러대학은 경북대 철학과 김윤동교수의 '인간과 행복의 조건', 대한가족복지협회 청소년 상담실 성교육전문 이재경씨의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전 여성의전화 공동대표 최정회씨의 '상담전화의 실제' 등 대학교수,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된다.

박원구기자



◇4일 통도사 화엄산림 입재식에서 법문하는 부방장 초우스님.

통도사 화엄산림 입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4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 법회 입재식을 봉행하고 30일 간의 화엄경 법문을 시작했다.

영축총림 부방장 초우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을 비롯한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재식에서 초우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진리의 세계인 화엄경의 세계를 우리 마음에서 만날 수 있는 값진 법회가 될 것"이라며 "모든 동참 제자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자유스러운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천미희기자

가야불교문화원 14일 첫 삽

건평 4백평…전시실·연구실·조사전 갖춰

가야불교와 가야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조명하는 가야불교문화원이 14일 김해시 동상동 부지에서 기공식을 갖는다.

건평 4백 평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 김해 동상동 토지구역 정리구간에 건립되게 될 가야불교문화원은 가야불교유물 전시실, 청소년상담 및 쉼터, 연구실, 다목적 세미나실, 장유화상을 모신 조사전 등을 갖추게 된다.

가야불교문화원 건립을 위해 결성된 가야불교문화원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대성)는 지방비 1억 3천 만원을 비롯 국고보조금과 김해불교사암연합회 재정 2억 등을 투입해 2004년 초 완공을 목표로 불사를 시작했다.

가야불교문화원이 완공되면 가야문화 복원사업, 가야문화 학술연구 및 간행 교재 기관지 발행,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국제문화 교류,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야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가야문화원 건립추진위원회는 14일 김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일)와 공동주최로 불우이웃돕기 및 제 8회 찬불가와 함께 하는 법회를 연다.

천미희기자

순천 조계산에 불교테마공원

시, 188억 들여 각 문화재 대대적 보수·복원

순천 조계산일대가 불교테마공원으로 변모한다.

순천시는 송광사와 선암사가 위치해 있는 조계산을 불교를 테마로 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각종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순천시는 2일 총 1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송광사와 선암사를 비롯해 조계산 일원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복원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승보사찰 송광사에는 전시관, 불교영상관과 세미나실, 불교자료실 등을 갖춘 불교문화유산관을 건립하고 기존 진입로 외에 오솔길을 이용한 친환경 진입로 2.4km를 개설한다. 또 태고총림 선암사에는 한국불교에 대한 교육과 영산재 등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전통문화대학과 쾌불, 탱화 등을 전시할 불교미술관 및 야생차 만들기 체험장을 건립한다.

순천시 문화홍보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새로 건립할 불교문화유산관, 불교전통문화대학, 불교영상미술관, 야생차 체험장 등의 설계에 들어가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을 끝낼 계획"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조계산 일대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기자

절에서 책 읽는다

선암사, 도서관 개관

부산 선암사(주지 사명)가 시민들을 위한 선암도서관을 개원했다.

4일 개원한 선암도서관은 지금은 30평 규모로 조촐하게 시작하지만 지속적인 불사를 통해 부산시민을 위한 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이를 위해 선암도서관은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구입하고 비치할 예정이며 불교 영상 비디오, 불교만화, 미술잡지, 불화전문 도서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개방되는 선암도서관은 신도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대출도 가능하다.

사명스님은 "향후 불사를 통해 200평 규모의 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찰 재정 중 일부를 도서 구입비로 책정,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암사는 보다 내실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뜻 있는 불자들의 도서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051)803-7522 부산=천미희기자



◇'아름다움과 깨달음전'이 4일 개막, 15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된다.

'…깨달음展' 전남 광주서도 호평

불교계와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근 현대 대표작가들의 불교사상을 기저로 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가 예향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전시실에서 5일 개막됐다.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이 문화부 후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10월17일 서울 가나아트센터를 시작으로 경주, 속초에 이어 광주에서 15일 폐막된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 주관으로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광주전 개막식에서 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스님은 "이번 기획전은 근현대 불교미술을 우리 미술계에 제대로 알리고, 지역문화활성화와 포교를 기하고자 마련했다"고 인사했다.

이어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은 "불교미술이 얼마나 다양할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짐작케하는 훌륭한 전시가 열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불교사암련 부회장 광민 무각사주지는 "아름다움과 깨달음의 조화를 만끽하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려 기쁘다"고 축하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송광사 대흥사등 전남지역 5개寺

주말 산사체험프로그램 상설운영

전남 5개 사찰에서 주말 산사체험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된다.

전라남도는 순천 송광사를 비롯해 해남 대흥사, 미황사, 구례 화엄사, 장성 백양사 등 5개 사찰의 협조를 얻어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7일부터 상설화했다.

송광사는 사찰체험과 함께 순천만 철새탐조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켰고, 미황사는 달마산 산행과 땅끝전망대 관람, 대흥사는 윤선도 생가 탐방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해진 천일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특화했다. 또 백양사는 선체조, 다도체험, 등만들기 등 산사의 정취를 느끼는데 중점을 뒀고, 화엄사는 사찰풍수기행과 인근 산동면의 온천관광을 프로그램에 삽입했다.

해남 미황사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전남도청 앞에서 출발하며, 송광사와 화엄사는 첫째·세째주 토요일, 둘째·네째주는 대흥사 화엄사·미황사등으로 갈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산사체험사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062)607-3332 박봉영기자

익산 쌍릉 월말 발굴조사

주차장등 건설, 공원으로

익산 미륵사의 창건자인 백제 30대 무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국가사적 87호 '쌍릉'(전북 익산 석왕동)의 발굴 조사가 12월 말경 시작된다.

익산 쌍릉은 지름 30m 높이 5m의 대왕묘와 지름 24m 높이 3.5m의 소왕묘로 구성돼 있고, 각종 문헌에는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이라고 전해지고 입증되지 못한 상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쌍릉 주변 유물 조사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등을 건설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유신기자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화엄회원들은 정각사의 대소사를 책임진다. 사진은 초하루 법회에 참석한 화엄회 임원들.

'최고신도' 자부…보현행 실천

산본 정각사 화엄회 임원들

우리 절 우리 신도

절일·봉사 닥치는 대로…유치원 계획

곁에 누군가 있어도 마음속 빈 공간이 알싸한 기운을 감돌게 하는 계절.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계절에 따뜻한 정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 산본 정각사(주지 정엄) 화엄회(회장 전숙현) 임원들이 그들이다.

화엄회 임원들은 사찰 대소사는 물론이고 각종 봉사활동에 열성이다. 기획사무부, 사내봉사부, 대외봉사부로 시작해 도서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등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중 임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은 봉사활동. 화엄회의 발족 취지를 살려 법당청소에서부터 불기닦기, 공양준비 등 대내봉사와 경로잔치, 복지관 자원봉사 등 대외봉사 활동을 펼친다.

특히 한달에 3번 산본에 있는 가야복지관을 찾아 고아, 장애인, 노인들을 보살핀다. 처음에는 입안이 더헐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나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에 힘을 낸다.

봉사활동은 신심이 기본이지만 재정도 무시하지 못한다.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이외에 양평 무왕사, 죽림사와 자매결연을 맺어, 그 사찰에 다니는 신도들이 농사지은 것을 판매한 이익금으로 충당한다. 주로 참기름과 들기름 판매가 대부분이지만 도농간의 상호상생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임원들 중에는 여러 가지의 재미있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중 임채현(47, 자도행) 홍보부장은 원성 스님의 그림을 보기 위해 정각사에 들렀다가 화엄회 회원이 되었다. 경기도 퇴촌에서 산본 정각사까지 왕복 4시간 거리지만 한달에 10일 이상은 절을 찾는다. 각종 재일과 수요일 불교경전강의, 금요일 찬불가 합창단 모임 등 가사일도 바쁘지만 절에 나와 열심히 불법을 배운다. 제월(43, 무량심) 법당관리부장은 일본에서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그 인연으로 한국까지 오게 됐다. 그 외에도 많은 회원들이 절을 내 집처럼 생각한다.

화엄회는 올 3월에 발족했다. 발족당시 30여명이던 회원은 지금 60여명이 넘나든다. 안으로는 삼보를 공경하고 정각사를 내호하여 불자들의 뜻을 모아 보현행원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이 결성 취지다.

회원들은 주지스님의 뜻을 좇아 29일 '삼존불 봉안 및 민족통일 기원 법회·송년 국악대축제'가 끝나면 내년부터 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숙현 회장을 비롯, 정혜윤 총무, 정경월 기획사무부장, 김정연 사내봉사부장, 안정희·송순분 대외봉사부장, 제월 법당관리부장, 임채현 홍보부장, 김현자 도서부장, 김옥희 어린이부장 등 화엄회 회원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다.

추천의 말

정엄스님 정각사 주지



화엄회는 법당 청소부터 관리 등 사내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경로잔치, 복지관 자원봉사 등 정각사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절에 사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 등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각사 주지 소임을 맡은 지 겨우 1년 정도 됐습니다만 회원들이 있었기에 정각사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금처럼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쳐지지도 말고 늘 함께 조금씩 앞으로 전진했으면 합니다.

백령도에 활짝피는 孝의 연꽃

연화정사 효행수련원 건립불사 한창

남북통일 발원·인성교육 도량으로 특화



◇15일 연화정사 건립기원 천일관음기도에 입재한 스님과 불자들.

북녘 땅, 몽금포 타령의 무대 장산곶이 눈앞에 밟힐 듯 하다. 장산곶 앞,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효녀 심청이 물에 뛰어들었다는 인당수가 넘실댄다. 하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치열한 현실이 감상적인 기운을 싹늘하게 걷어낸다.

남한 서해 최북단, 인천에서 191.4km, 뱃길로 324km, 북한의 장연군과 직선거리 10km. 남한에서 8번째로 큰 섬, 성당 2곳, 교회 13개, 전체 인구 중 90% 가량이 개신교 신자인 곳, 군 법당 흑룡사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백령도에 효행수련원 · 연화정사(주지 지명)가 건립된다.

백령도에 사찰을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은 5년여 전. 현 주지 지명스님이 인천 능인사 주지 소임을 맡던 중 백령도를 들르면서 시작되었다. 심청전 설화가 나오는 사지(史地)가 있고, 절골이라는 지명도 있었으나, 사지가 수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다.



◇해수관음상이 봉안될 부지. 관음상 정면에는 인당수가 펼쳐져있고 우측에는 심청각이 한눈에 들어온다.

지 184평 등 전체 14,420평. 여기에 법당과 수련원, 연지(蓮池) 등을 조성한다. 효행수련원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남 북으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맞고 있는 청소년에게 우리 효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전승시키기 위해 준비된다.

또한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을 일깨워 발우공양 등의 불교적 수련을 통해 자비와 계율 정신으로 남북통일의 주역으로 민족적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인격체로 육성을 위한 상설 수련원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계획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와 개신교의 반대 움직임이다. 개신교는 백령도를 최초의 복음의 땅이라 주장하며 '사찰건립절대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걸어놓고 있다. 스님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적극적인 동화정책으로 사찰건립반대의 움직임을 희석화시킬 계획이다.

사곶 천연비행장(천연기념물 391호), 콩돌 해안(천연기념물 392호), 감람암포획 현무암(천연기념물 393호) 등 천해의 자연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곳. 인당수와 연지, 연봉바위 등 심청이의 이야기가 전설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곳.

내년 초파일 즘 10m 가량의 해수관음상이 모셔지고 수련원이 개설되면 효행의 섬, 불교의 불모지 백령도에 불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길 것이다.

지명 스님은 "남북간 협력과 화해의 시대에 백령도에 효행수련원 연화정사가 건립되면 분단 민족이 하나됨을 절감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뜻있는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지 총 14,420평…법당·수련원·연지 조성

내년 초파일 해수관음상 봉안-2005년 회향

1천일기도 입재, 개신교측 선 거세게 반대

지명 스님은 효녀 심청의 이야기에 나오는 효 사상과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착안, 효힝수련원을 세우기로 발심을 했던 것이다.

스님은 연화정사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대전시실에서, "2002 세계 고승대덕 발우 禪서화 특별전"을 준비했다. 특별전 준비의 표면적인 이유는 연화정사 재정확충이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신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불교의 사상과 의미가 깃들어있는 발우를 통하여 수행자의 모습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도량 건립을 위해 주지스님의 도반인 상법 스님이 부산에 있는 사찰 주지직을 포기하면서까지 15일 천일관음기도에 들어갔다. 회향일은 2005년 8월 10일.

현재 확보되어 있는 연화정사 부지는 대

"불자들 사명감 갖고 불사 동참을"

연화정사 건립 주도 지명스님



"불교의 불모지 백령도에 절을 세운다고 하니 주위의 시선을 싸늘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화정사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지명 스님은 무엇보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편하고 쉬운 일도 많은데 괜히 어렵고 힘든 일을 벌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님은 이전의 절맥이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고 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참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은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심청각과 연화정사를 중심으로 한 효 사상과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특히 연화정사를 보고 살아있는 불교를 발견할 수 있는 도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부족한 능력이지만 제가 나서서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불자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보태진다면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될 것입니다."

주위 싸늘한 시선 가장 힘들었어요

연화정사 불사 소중한 인연 맺으세요

백령도에 연화장 세계를…

남북통일의 길을 여는 백령도 효행수련원 연화정사 건립불사에 동참하십시오.

대웅전

상설판 시주(대들보 및 용두), 중설판 시주(기둥, 주추), 설판 시주(서까래), 기와 등

해수관음상 건립 불사

서해 최북단 섬, 장산곶이 바라다 보이고 만고효녀 심청이의 혼이 살아있는 백령도! 이곳에 해수관음상을 모시려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남북통일의 길을 열어 민족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대발원에 수희동참하시어 무량한 복의 인연을 증장하시기 바랍니다.

삼천불 효행지장전

중생구제의 대서원을 세우신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삼천불을 모시려합니다.

(1불조성 350,000원 매월 10,000원 35개월)

천일관음기도봉행

옛 가람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백령도에 효행을 근본으로 하는 연화장세계를 꽃피우겠다는 대서원을 세우고 천일 관음기도를 봉행합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선근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는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동참금 : 30만원)

동참안내

불사에 동참하실 불자께서는 아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고 원만한 불사 성취를 위하여 월 약정액을 정하여 자동이체로 입금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불사 동참금은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8-25-0012-892 연화도량
제일은행 100-20-256204 고대환
서울은행 56907-1129608 고대환
우체국 300682-02-006258 고대환
농협 130024-52-168152 고대환
지로번호 7668047 전국은행, 농협 및 우체국 수납 창구

문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 241-1번지
백령도 효행수련원 연화정사 TEL. : 032-836-1441
서울사무실 : 02-549-8592 인천사무실 : 032-885-9711, 773-9711

※백령도 연화정사 참배하실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종 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산문밖의 禪

부장검사 사직하고 법문집 번역 **최순용** 변호사

"'佛法'대로 살고 싶어 명예와 권력의 길을 버렸습니다"



◇세속인들이 선망하는 부장검사직을 놓고 수행과 교육, 일을 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최순용 변호사.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그는 요즘 법어집을 준비하며 더욱 보람을 느낀다. 사진=임민수 기자

공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검사, 특히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부장검사는 소시민들에게는 권력의 상징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부장검사'라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일순간에 놓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권력이 어떤 것인가? 부와 명예가 저절로 따라오는, 그야말로 세속적 선망의 대상이 아닌가.

그러나 최순용(39 · 동국대 겸임교수) 변호사에게 있어서 '부장검사'라는 직함은 뿌리칠 수 없는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

"부처님 법을 알면 알 수록 검사라는 직업이 내게는 적합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익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업무 특성상 안좋은 말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수행시간을 좀더 갖고, 강단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부장검사직을 그만두었어요."

사법시험 준비 때도 불교 공부

최 변호사가 '부장검사'직을 그만둔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권력과 명예를 포기한다는 고민이나 갈등은 애초부터 없었다. 불교공부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다.

서울 농대교수를 지낸 아버님이 법조인이 되길 원해 고시공부를 하고 검사가 되었지만, 마음 한 구석엔 언제나 수행이 '내 길'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81년 대입고를 졸업할 즈음, 예비고사를 준비하다 우연히 집한 불교 책들, 학교 앞 고서점에서 손때 묻은 〈불교개론〉과 〈반야심경〉을 읽은 것이 불교에 흠뻑 빠진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 법과대에 들어가서도 불교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조계사와 수선회, 금강경독송회, 한마음선원, 강남포교원, 보리수선원 등 인연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법문을 듣고 수행도 해보았다. 서울대에서 석 · 박사과정을 마치고 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반야회 총무를 2년간 맡아 50여 연수원생들의 신행을 이끌었다.

검사로 활동하는 한편, 무엇이 올바른 불교 수행법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96년 1년간 유학한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서 붓다가 설한 근본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에 눈뜨게 된 전기를 갖았다.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간화선 일변도가 아닌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에 따라 부처님의 수행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던 것이다.

99년 근본불교 명상수행모임인 연방죽선원의 법주 스님을 만난 이후, 고타마 싯다르타가 깨달음에 이른 수행법인 아나파나사티(Anapanasati, 출입식념 즉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것)와 사티파타나(Satipatana, 자신의 몸(身) 감각(覺) 마음(心) 법(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사념처(四念處)에 근거한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검사직을 자연히 놓게 되었다. 특히 지난 5월 한달간, 연방죽선원에 머물며 수행지도를 해준 미얀마의 고승 우 조티카 스님(U Jotika Sayadaw)을 가까이서 모시고 수행한 것이 검사직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우 조티카 스님으로부터 집중적인 위빠사나 지도를 받은 후 곧바로,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부장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어 8월부터 우 조티카 스님의 법문집 〈The Residence of Mindfulness(마음챙김의 거처)〉을 번역한 것은 담마 공부의 깊이를 더해준 계기가 되었다.



◇매일 아침 · 저녁 한 시간씩 좌선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정리하는 최순용 변호사.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 조티카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은 평정심을 가진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뒤 스님의 보석같은 법문집을 접한 후, 진지하게 담마(Dhamma, 法)의 길을 가는 구도의 심정으로 분주한 생활 중에 매일 조금씩 스님의 말씀을 번역해 이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재임시 도난 불교문화재 다량 회수

최 변호사는 그간의 번역 작업을 '진흙 속에서 보석 알을 캐내는 일'에 비유했다. 그 보석 알은 부처님께서 설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은' 것임을 재확인하고, 자신 역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대로 진리의 길을 걸으리라 다짐했다. 우 조티카 스님의 말처럼, 자신의 길을 걷고 싶었던 것이다.

"길은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삶은 부장검사직을 그만 둔 이전부터, 수원 용화사 부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어머니 조분연심(66) 보살의 가르침대로 늘 불교와 함께 있었다.

90년부터 3년간 육군 법무관 생활을 하며 21사단 군법당을 후원했으며, 93년부터 대전지검을 거쳐 서울지검, 전주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부임해서는 문화재 전문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문화재 밀매단을 적발하고,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를 회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새 삶을 시작한 그는 요즘 어느 때 보다 행복하다. 지난 9월부터 동국대 겸임교수에 임명돼, 형법학을 가르치는 틈틈이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마냥 즐겁다.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정진하는 시간도 생겼고, 언제 어느 때나 깨어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

"지금 하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이 sati(마음챙김) 수행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김채경 기자

"전통무늬의 아름다움 아세요?"

전통무늬 DB구축 **박해정** 사장

"문양(文樣)은 일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단청은 무늬라고 해야죠."

최첨단 GPS용 전자지도를 제작하는 벤처기업 강산에정보엔지니어링의 박해정 사장(44).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에 탑재하는 위성항법장치(GPS)에 쓰이는 최첨단 전자지도를 제작하는 박 사장은 10년 째 한 가지 일에 미쳐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옛 건물에 승어있는 전통무늬를 발굴하고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자료로 만드는 일.

10년 동안 모은 자료가 3만 건을 넘는다. 그의 손을 거쳐 불국사, 봉정사, 화엄사, 운문사, 부석사, 미황사, 전등사, 보탑사를 비롯한 주요 궁궐 속의 아름다운 단청, 창틀 무늬들이 디지털 자료가 됐다.

사찰·궁궐 단청, 창틀무늬 등
10년 동안 3만건 넘게 수집



◇"이 무늬는 감은사지 3층탑에서 나온 것 입니다." 박해정 사장이 전통무늬를 이용해 만든 장식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박 사장이 처음 전통무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십 년 전, 신라삼보(三寶) 중 하나였던 황룡사 9층 목탑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던 중, 80m가 넘는 목탑의 단청은 어떤 모양일까에 의문을 가지면서부터다.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전통사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한국 전통 무늬에 빠져 십년을 보냈다.

힘든 일도 많았다. 그동안 전통무늬 연구란 게 없었기에 어느 한 구석 의지할 곳이 없었다. 좋은 무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야 했다. 고단픈 일이었지만 재미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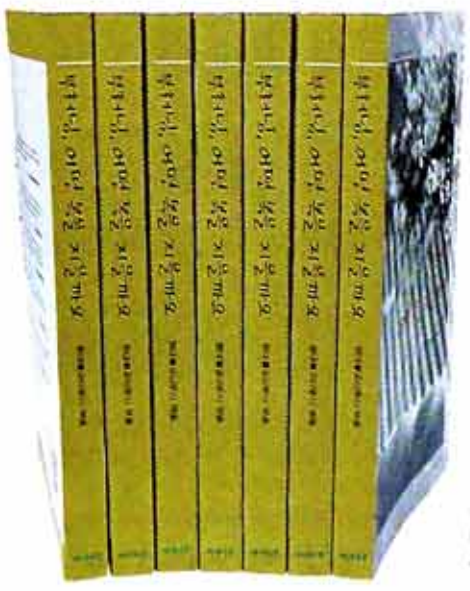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오해의 목소리들. 동업자들은 컴퓨터로 기계 설계를 하는 사람이 '무슨 전통무늬를 복원하겠다'는 거냐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다. 단청 사진을 찍기 위해 찾은 사찰에서는 '도둑놈'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간에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많았다.

자료 더모아 단행본 발간계획
전통무늬박물관 세우고 싶어

박 사장은 고생해서 얻은 자료들을 후학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줄 계획이다.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은 한국 무늬의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기스를 봄아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박 사장은 앞으로 10년 정도 자료를 더 모아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 전통 무늬 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꿈꾸고 있다.

"창덕궁 인정전 용상에 있는 사신도(四神圖)는 일제가 조선 왕실의 대를 끊기 위해 그려 넣은 거예요. 한 나라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죽은 자를 지키는 사신도를 그려 넣은 것이죠. 이제 먹고 살만 해졌으니,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겠죠."

강유신 기자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강주수외 38명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409쪽/값12,000원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모음

신행을 통해 난관을 극복한 공모 당선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쳐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고 의지한 불자들입니다. 누구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밤이나 낮이나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법을 공부하여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야 합니다.
정대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우리가 비록 오탁악세(五濁惡世)에 살고 있어 바른 마음, 바른 법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불법에 귀의한 불자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업장(業障)이 두텁다 하더라도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그럴수록 깊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진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은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수상작들은 단순히 부처님의 가피로 역경을 극복했다는 기복적인 내용보다는 이웃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향하는 '행복한 신행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불교, 생활불교로 정착되고 있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불법과 좋은 인연 맺기를 기원합니다.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역경을 그저 한탄하고 괴로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심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읽을 수록 그내용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불자들도 그렇게 철저한 신앙심을 갖고, 평상심에서 보람을 찾아 매일매일 새롭게 발심하기를 바랍니다.
남정 스님(총화종 총무원장)

다양한 인간 삶의 고통과 번뇌를 오르지 불심 하나로 극복해 낸 불자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의 지면을 통해 소개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서돈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구입문의 :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릴레이 수행일기

신익찬(中)
제일투신 준법감시인



얼마나 기다리며 애태우다 만난 인연인가? '그래도 지난 생의 선근공덕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라는 위안이 들어 많이도 울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사를 걸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 이 불법(佛法)을 전하기 위해 2600여년의 시간동안 수행으로 증명하여 주신 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또 많이 울었다.

처 자식이 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나에게 사실 수행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제 나이 오십이 다 되어 살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적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속세의 인연은 몸을 수행만 하게 놓아둘 리가 없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초조함에 나는 지난 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하였다.

밥을 굶어도 수행은 거르지 않아
세상일 벗어나 명상해준 '몸' 대견

수행처인 열악한 선원의 환경도 그러하거니와 또 수행자의 입장에서 호사스럽다는 생각을 접으려고 영하 10도를 넘어선 혹한에도 난방 생각은 추호도 아니하고, 혼자 있을 땐 형광등까지도 꺼버렸다. 포대기 한 장 두르고 잠이 오면 오는 대로 우선 자리잡기부터 하려고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했다. 그렇게 부지런히 한다고는 했으나 직장 생활하는 생활인인데다 연말까지 겹쳐 도합 15일을 빠졌다. 그래도 반이 넘는 16일을 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과 포기하지 않은 데 우선은 만족했다.

그리고 다시 새해 들어 1월은 11일, 2월은 5일, 3월은 4일, 4월은 1일… 이렇게 점점 명상수행을 빼먹는 날은 현저히 줄어 들어갔고, 급기야 5월부터 지금까지는 단 하루도 빼 먹은 날이 없게 되었다. 어떻게 만난 보물 같은 소중한 인연인데, 게으름을 피우고 딴짓 하려는 업의 속성이 드러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하루에 평균 2~3시간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금년 5월15일 한국에 오신 미얀마의 큰 스님, 우 조티카 스님께서 '매일매일 30분내지 1시간씩 수행을 하면, 세파에 휘말려들지 않게 된다' 는 법문을 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40분 명상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아침 밥을 거르면 걸렀지 명상만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다.

온 나라 안이 월드컵경기로 난리가 났을 때도, 특히 우리나라가 16강, 8강, 4강에 올라 경기를 할 때에도 그 경기 시청하는 것 마다하고 그 시간 스님과 도반과 명상을 하면서, 업을 많이도 소멸시키고 있구나 하며 스스로 자족했다. 꽃피고 새 지저귀는 봄날에도, 피서 간다고 야단법석인 여름날에도, 단풍드는 가을날에도 세상일에 빠져들어 가지 않고 묵묵히 명상을 해준 이 몸이 대견스럽다. 그렇다고 수행시마다 늘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망상으로 때로는 잠으로 수행시간을 보내는 날이 적지 않았지만, 애초 '나'라고 일컫는 이 몸이 억겁의 세월을 거치면서 쌓아온 습관이라는 업의 굴레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환한 광명이라도 볼 것이라고는 당초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다.

禪과 무술이 만나면…



◇적운 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선무도의 '영동입관' 7가지 자세 중 두번째인 용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수련생들.

"선무도(禪武道)는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이루는 수행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사유와 행위의 근본자리를 놓지 않고 생각과 행동의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경주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이 주말수련회에 들어가기 전 수련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다.

11월 29일, 골굴사 야외수련장에는 초등학교 6학년 원종이부터 55세의 도은섭씨에 이르기까지 30여명의 수련생들이 '탁 탁 탁', 죽비소리가 한번씩 울릴 때마다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운 동작으로 팔과 다리를 허공에 움직이며 들숨과 날숨을 고르고 있었다. 기합과 함께 단순하면서도 정적인 움직임인데도, 수련생들의 이마에는 어느덧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었다.

경주에서 기림사 방면으로 20여분 가다보면 석굴사원인 함월산 골굴사가 나온다. 이곳에서는 주말수련회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지난 90년부터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수련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 수련회의 참석 인원이 적게는 30여명에서 많게는 1백여명에 이르고 있어 반응도 좋은 편이다.

골굴사 주말수련회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비결은 바로 '선무도'라는 특색있는 불교무술 수행프로그램 때문이다. 선무도는 무술과 관법을 접목시킨 불교 수행법이다. 본래 불교 금강영관(佛敎金剛靈觀)이라고 하는데, 여러 무술 동작을 통해 작게는 심신의 안정과 크게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법이다. 모든 동작은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느린 동작, 부드럽고 강한 동작이 어우러져 하나의 수행체계를 이룬다.

특히, 선무도의 수행관은 행주좌와(行住坐臥)와 어묵동정(語默動靜)에 이르기까지 생각과 행동과 호흡이 조화를 이뤄 깊고 고요한 선정의 상태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무도의 무술동작은 육체적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수행방편이다.

매일같이 하루 1시간 이상씩 선무도 수련을 해오고 있다는 도은섭(55 · 경북 양남면)씨는 "처음 선무도를 접할 때만 해도 태권도나 쿵푸 같은 무술의 일종으로 알고 건강을 위해 입문했는데, 정(靜)과 동(動)의 조화를 통해 선정에 이르는 수행법임을 알게 되면서 그 매력에 흠뻑 취해, 어느덧 10년이 흘렀다"고 말한다. 지금은 월성원자력발전소 직장내에서도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열성적인 도씨는, "골굴사의 선무도 수련은 남녀노소에 구별이 없는데, 그 까닭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신의 호흡을 따라 수련해 가는 운동이라 몸에 무리도 없고 어렵지도 않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최근에는 선무도가 심신안정과 인성교육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을 일주일에서 수개월간의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아예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수련과정이 엄격하고 예약이 필수적인 골굴사(www.golgulsa.com) 선무도 수련회는 매주 주말수련회 외에도 12월부터 3개월간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한다. 또 주말, 1주일, 1개월 등의 수련도 가능하며, 전국의 17개 각 지부를 통해 수련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

골굴사는 2004년 골굴사 선무도대학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선무생활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054)744-1689, 서울 종로지부=(02)763-2980, 부산 보림지원=(051)524-1600, 인천지원=(032)541-6301

경주=박원구 기자

몸·마음·호흡 조화이루는 수행
수련과정 엄격, 인성교육에 효과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골굴사 선무도



골굴사 주지 적운스님

"선무도는 중도 찾는 수행 프로그램"
2004년 선무도대학 개교 목표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중도관(中道觀)이 부처님 법의 핵심입니다. 선무도는 몸과 마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삼매를 얻도록 하는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골굴사 주지 적운스님은 "선무도를 흔히 중국의 소림사 무술로 연상하거나 단순히 승가의 전통무술 정도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선무도는 불교의 심오한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실천적 수행방편"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또, 현대문명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폐와 공해로 인한 육체의 불균형에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무도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선무도 대중화를 위해 18년째 정진하고 있는 적운 스님은 앞으로 더 많은 불자들이 수련에 동참해 정신력과 체력을 길러 사회에 봉사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수행 캘린더

■금강선원 선문장(禪門莊) 수행=금강선원은 참선전문도량인 홍천 선문장(禪門莊)에서 정진할 재가 불자를 모집한다. 수행은 조석예불, 참선강의, 좌선, 행선, 묵언, 오후불식, 스님과의 면담 등으로 진행된다. (033)433-5845

■겨울 참선 수련=해남 대흥사는 12월 29일~2003년 1월 3일 대흥사에서 '겨울 참선 수련회'를 연다. 참가접수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집인원은 44명. (061)535-5755

■홍원사 거사림회 정기수련=서울 홍원사 성전거사림회는 매월 첫째 수요일 오후 7시30분 보현행원품(도안 스님) 강연,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 아함경(박종법사) 강연, 셋째 수요일 저녁 7시30분 사마타 이론 및 실기(도정 스님) 시간을 갖는다. 매 법회 후에는 '108배 대참회문' 독경 정진이 있다. (02)822-1990

■천태종 동안거=천태종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임오년 동안거를 실시한다. (043)423-7100

■사념처 수행=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사념처(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관법)수행을 한다. 야간반은 매주 월 · 수 ·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한다. (02)2299-3537

■위빠사나 겨울 집중수련='위빠사나 수행가이드 카페'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천안 호두마을(www.vmcwv.org)에서 겨울 정기 집중수련회를 연다. 지도법사는 위빠사나 카페 운영자이자 호두마을 상임지도법사인 정원 법사. 신청=metta4u@hanmail.net

■능엄신주 독송지도=꿈바위불교교육원은 '대불정능엄신주' 의 효과적인 독송방법을 지도하고,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 정진법회를 연다. (02)739-5008

■선상담연구원 명상수행=선상담연구원은 12월 셋째주부터 ~2003년 2월까지 서울 신사동 연구원에서 명상수행 및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1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에는 위빠사나 수행시간이 마련되고, 매주 월 · 토요일 오후 7시에는 명상과 집단상담 시간이 마련된다. (02)733-5311

■봉인사 위빠사나 수련=경기 남양주시 봉인사는 12월 21~29일, 내년 1월 4~12일, 1월 18~26일, 2월 8~16일 위빠사나 수련회를 연다. (031)574-5585

임원공고

대한불교 법상종

종 정 정학암
부종정 최태암
총무원장 최학산
부 원 장 오해월

총무부장 홍성암
교무부장 엄법일
재무부장 추혜명
사회부장 최일공
규정부장 김대광
교화부장 김월암

교육원장 박교덕
교육부장 이능인

연구원장 이혜정
연구부장 김자장

참선원장 오강월
부 원 장 배도선

부산교무원장 장지암
대구·경북교무부장 배도선
강원교무부장 이혜정
경남교무부장 허혜철
충남교무부장 김원상

사정원장 장지암
사정위원 이혜산 이덕암

중앙종회의장 김도명
부 의 장 이법천

■ 총무원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67-6
전화 02)415-1602 / 팩스 02)415-1631

금강불교대학 2003년도 신입생 모집

불교교육의 모범으로서 "생활불교 · 쉬운불교" 를 실천수행하는 본 대학에서는 참된 재가불교 지도자 육성과 불교사회복지 포교에 역할을 담당할 뜻있는 불자를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 1년과정(각과공통 172시간)
각반공통 - 불교기본교육과정 36시간
전문교육 - 108시간 · 수행과정 48시간 · 사회봉사 16시간

▣ 모집분야 : 불 교 반(30명) 매주 목요일(19시-22시)
장례문화반(30명) 매주 금요일(19시-22시)
불교의식반(20명) 매주 토요일(14시-18시)
(수행및사회봉사 = 매월1일 1~2회)

▣ 모집기간 : 2002년12월10 ~ 2003년1월30

▣ 교 수 진 : 전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소속교수 및 스님. 전문가

▣ 특 전 : 각반공통포교사고시응시자인정 = 전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장례문화반 : 장례지도사고시 응시자격 = 전국장례업협회
불교의식반 : (사물 - 법음 - 범패 - 바라.나비춤)
* 포교현장에 그룹활동 *

▣ 기타사항은 본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경남창원시동정동777번지
전 화 : (055)253-0108 / 전 송 : (055)296-6200
홈페이지 : www.kkbuddha.net

불교교육전문도량 금 강 불 교 대 학



◇중심회 회원인 매탄 삼성클리닉 및 삼성한의원 의료진들이 수원포교당 노신도들을 무료 검진하고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다.

바라밀현장

1080명 의료보시하는 '중심회'

"조계종 2교구 스님 건강 우리가 책임져요"

사회 그늘진 곳 의료봉사로 선행
종교·직업떠나 스스로 활동 참여

"조계종 제2교구 소속 스님들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질 겁니다."

이런 큰 원력을 세우고도 드러내지 않고 스님과 노인들에게 무료 검진 및 치료를 맡아온 신행단체가 있다. 수원과 인근지역 재가자 신행모임인 중심회(中心會, 회장 이 황)가 그 주인공.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1080명 무료검진 및 치료' 활동을 올 1년 동안 회향한다는 원력으로 모두 11번의 순회 검진 및 치료를 해오고 있었다.

이들의 선행은 지난 달 10일 수원포교당에서 매탄삼성클리닉 김홍준 원장 및 매탄삼성한의원 곽동우 원장 등 의료진 10명이 투입돼 65세 이상의 노신도를 대상으로 무료검진과 치료봉사를 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 이날 진료는 혈압측정부터 시작해 △자동8강진단 분석(한방의 종합검진) △요검사(10종) △혈당검사 △생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와 함께 투약 및 물리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병원 수준의 검진이었다. 행사장에는 이황 회장과 회원인 유원근 회원, 박상수(매탄삼성크리닉 이사장) 회원 등도 동참해 물리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을 거들었다.

"아이, 시원해. 고마워요."

"뭘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날 수원포교당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은 인원은 75명, 이제까지 스님 300여명을 비롯 1040명에게 의료보시를 했다. 그동안 중심회는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를 비롯해 봉녕사 승가대학 학인스님과 수원 정혜사, 용인 화운사 그리고 광주 나눔의집 등을 순회하며 행사를 펼쳤다. 또, 10월 21일~30일 매탄삼성크리닉에서 불자들에게 생화학 검사(20종)와 혈액학 검사(18종)를 실시했다.

7달간의 무료진료 행사 후원으로 1억여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도 정성을 다하고 있는 박상수 회원은 "스님을 비롯 노인층이 주 대상이었는데 영양실조, 관절염, 신장질환이 많고 비구니 스님 등 여성의 경우 근육무기력증과 부인과 질환도 많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중심회가 의료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특별하다. 1971년 중심회가 태동할 당시부터 용주사 선방의 입승으로 오랫동안 존경을 받던 스님이 지난해 겨울 '무연고자'로 쓸쓸히 병원에서 숨진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때 충격을 받은 중심회는 새로이 결사를 했다. "조계종 제2교구 소속 스님들이나마 건강검진과 치료를 책임지고 해보자"는 발원으로 한 해를 의미있게 회향하고 있는 것이다.

중심회는 1971년 용주사에 모인 대학생들이 당시 주지였던 정무 스님(안성 석남사 주지)을 모시고 결성, 후에 경찰대와 세무대 학생 등이 동참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다니며 선행하는 신행단체로 거듭났다. '어느곳에서 무엇을 하든, 중심(中道)을 잘 지키라'는 정무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학교수, 의사, 법조인, 사업가 등 150여명 회원들이 각자의 업에 충실하며 안성 석남사에서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정기법회도 열고 있다. (02)575-9135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중심회' 이황 회장

노후건강 책임질 체계 확립 절감
치료하는 병원 네트워크화 서원

"스님들을 검진한 결과 나이를 떠나 영양실조, 관절염, 근육무기력증 등 만성 질환이 많은데 놀랐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1080명 무료진료' 행사를 하고 있는 중심회 이황(51 · 일광무역 사장) 회장은 "스님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놀랐다"며 "스님들의 노후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말한다.

직접 스님들과 노인들의 병고를 확인하고 보니,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없게 되었다는 이 회장은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행사를 지속하는 한편 스님들의 노후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을 주선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승가 노후 및 의료복지가 열악해 스님들을 무료나 실비로 검진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필요해요. 이런 병원들이 광역시와 각 도마다 1개 이상 들어설 수 있도록 10여개의 병원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저의 서원이죠."

心 마음비추기

짧은 가르침, 긴 깨우침

풍부한 지식이나 논리정연한 말보다는 때로 어쩌다 들은 한마디의 말이 폐부 속에 스며들어 두고두고 남게 되는 수가 있다. 나도 남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나누었던 짧은 대화는 어느 강의나 글보다도 진하게 마음 속에 남아있다.

지난날 지금은 너무나 널리 알려진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생활했던 때가 있었다. 스님은 무척 따뜻하고 자상하셔서 제자들을 깨우쳐주는 일에 소홀함이 없으셨다.

어느 봄날이었다. 꽃구경도 하고 바람도 쐴겸해서 스님을 모시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유원지를 가게 되었다. 이곳 저곳을 산책하다가 큰 호수 앞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데 스님은 일행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하셨다.

"만약 너희들이 죽어서 부처님이건 하느님이건 염라대왕이건 누군가를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가 '그대는 인간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을 보고왔는가 한 가지를 말해보라' 고 묻는다면 무어라고 답변할 거냐?"

우리는 저마다 이같은 스님의 질문에 한마디씩 답변을 드렸다. 그 답변에는 삶과 죽음을 보았다는 것도 있었고, 사랑과 미움을 보았다는 것도 있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일행들의 답변을 들으신 스님은 웃기만 하실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궁금해서 이번에는 내가 스님께, 스님이 하신 질문을 똑같이 여쭈었다. 이때 스님의 말씀은 "나? 나는 아무것도 본게 없다고 말하련다"였다.

뜻밖의 답변이었다.

옆에 있던 시자 스님이 "스님, 도를 보셨지 않나요?"라고 되묻자, 스님은 "아니 정말로 본 게 없어, 본놈도 없고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을 뿐이다.

평생을 살다보면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다. 마음 속에 기억하고 담아둔 양을 헤아려 본다면 수없이 많은 법인데, 스님은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다.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체이기는 한 것일까. '무릇 형상있는 모든 것들은 진실상' 이 아니라고 하지만 색신이 있는 한 형상을 보지않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본다는 것도 보지 않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기는 매한가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일까?

항상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언제나 떠올려지는 살아있는 법문이다.

寂然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2월-회향의 달

· 회향은 실천의 완성
·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 아름다운 마무리
· 회향, 새로운 시작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함께 구제받는 회향이 참 보시행
이익 버리고 대상 넓혀 베풀어야

자신의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회향'의 길은 곧 보살의 길이다.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보살은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이, 자신과 남이 함께 구제받는 회향이야말로 불자들이 지녀야할 참 보시바라밀인 것이다.

때문에 회향의 범위와 영역은 자신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 만족하지 않고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그 대상을 넓혀 베풂을 실천하는 것이 회향의 또다른 의미이다.

"못생겨서 죄송하다"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코미디계를 주름잡았던 故 이주일 씨(본명 정주일). 그의 62년 희극인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감동적인 연기는 폐암 투병중의 금연운동으로 귀결되었다. 이 씨는 폐암 말기라는 비참한 현실을 딛고 25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게 만들었다.

한편으론 80년대 중반부터 20년 가까이 강원도 고성군과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 어촌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낙도 어린이 돕기 등 남모를 선행에도 앞장서 왔다. 그의 인생이 값질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아름다운 회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30년간 보따리 행상과 폐비닐 수집 등 궂은 일로 모은 12억원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동국대에 기증했던 장내순 씨. 학생들에게 가진 재산을 모두 내어주고 세인의 감동과 부러움을 샀던 그가 지난 11월 25일 별세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진짜 부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몸으로 실천했던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또다시 '아름다운 회향'을 떠올렸다.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신장에 이어 간까지 기증했던 한 불자의 삶이 화제가 됐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원명'이라는 법명만 드러냈던 그는 95년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14세 학생에게 신장을 기증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7년이 지난 올 4월 55세 간암환자에게 간까지 기증했다. 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선물한 그의 보살행은 걸인에게 동전 한 닢 베푸는 일조차 꺼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오년 12월도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이런 때 나와 내 가족에서 눈을 돌려 주위를 돌아본다면 더 따뜻한 겨울,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박봉영 기자



◇희극인 故 이주일 씨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삶을 어떻게 회향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지난 8월 봉은사에서 열린 故 이주일 씨의 영결식모습.

불교 문화관광 상품 개발 세미나 개최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불교가 지닌 전통문화적 가치를 종교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현대화해서 시대에 맞는 한국문화를 창출해 독창성있는 한국문화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세계화하고자 설립됐습니다. (문화관광부 법인인가 제 377호)

본 기획단은 디자인 등 고부가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춰 전통문양등 각종 디자인을 자료화하고 한국문화상품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불교 조형미의 산업적 응용의 현황 점검과 전망을 통해 새로운 세계적인 불교문화상품 개발에 기여하고자 세미나와 함께 불교 문화관광상품을 개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교문화의 현대화 · 실용화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서 그 자체로 문화포교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것이며, 국익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

세미나 일정

○ 일 시 : 2002. 12. 13 ~ 14(1박 2일) ○ 장 소 : 강화 전등사

○ 내 용

□ 1부 - 12월 13일(금요일) 오후 4:00 ~ 8:00

- 불교이미지의 산업적 응용의 현황과 전망 (이점원 / 동국대 미술과 교수)
- 불교로 본 한국인의 조형의식(윤범모 / 경원대 미술과 교수)
- 사찰건축의 관광자원화(김봉열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 불교이미지와 디자인 산업(박규현 / 대구대산업디자인과 강사)
- 전통불화의 산업적 응용(이기선 / 불교미술과 강사)

□ 2부 - 12월 14일(토요일) 오전 9:00 ~ 11:00

- 문화재 속에 나타난 불교문양 슬라이드 쇼(안장헌 / 사진작가)
- 한국 전통문양 CD롬 프리젠테이션(조원희 / 지도리 대표)

불교문양 사진집 간행 및 전통문양 CD롬 제작

○ 추진 일정 : 2003년 2월중 작업 완료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㉟상불경보살품 제20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듣고, 믿어, 기억하면 6근 청정

법화경 전한 공덕으로 만중생 성불

이 20장의 제명(題名)은 석존의 전생담에 등장하는 상불경(常不輕)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이 장은 첫머리에서 "〈법화경〉을 믿어 기억[受持]하는 사람에게 사나운 말, 즉 욕설[惡口]이나 잡된 말[雜言]을 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커다란 죄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법화경〉을 믿어 기억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功德]는 6근(六根)의 청정을 얻는다"고 설하고 난 뒤 이어서 〈법화경〉을 기억한 과거의 예로써 상불경보살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생담을 설하고 있다.

옛날 옛적 아득한 옛날에 위음왕(威音王) 여래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하늘의 신들과 인간·아수라에게 설법하고 성문·연각·보살을 위해 가르침을 설했다. 그 위음왕불이 수명을 다하여 입멸하고 바른 가르침[正法]도 바른 가르침과 비슷한 가르침[像法]도 사라져 버린 후에 또 같은 국토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그 부처님도 위음왕여래라는 이름이었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2만억의 위음왕여래라는, 같은 이름의 부처님이 출현했으나 그 최초의 위음왕불이 입멸하고 난 뒤, 즉 바른 가르침이 사라지고 바른 가르침과 비슷한 가르침의 시대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의 '항상 경멸받은 사나이'라는 뜻의 상불경이라 이름하는 보살비구가 있었다. 당시는 잘난 체하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다. 그 보살비구는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 등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경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보살도를 실천하여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부대중은 이에 대해 성을 내기도 하고 사나운 욕설이나 잡된 말을 하기도 하며 마침내는 몽둥이로 때리고 기왓장을 던져 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가혹한 행위에도 상불경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계속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니 사람들은 지친 끝에 그를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런데 그가 수명이 다하여 임종에 이르렀을 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옛날에 입멸하신 위음왕불께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소리였다. 그는 그 설법을 듣고 모두 기억해 냈다. 그러자 그는 그 〈법화경〉의 설법을 듣고[聞法] 믿어 기억[受持]하는 공덕에 의해서 6근 청정의 은혜를 입어 그 수명이 2백만 억 나유타라는 긴 세월만큼 늘어났다. 그는 스스로 가르침을 듣고 믿어 기억한 〈법화경〉을 널리 사람들을 위해 설하였고 그를 박해한 4부중들도 그 가르침을 들었다. 그는 그 긴 수명을 마친 후에도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서 차례차례로 각각 2천억의 일월등명불(日月燈明佛)과 운자재등왕불(雲自在燈王佛)을 공양하고 그 부처님들 아래서도 〈법화경〉을 계속 설했다. 그 공덕에 의해서 상불경보살은 드디어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이 전생담의 내용이다. 〈법화경〉은 이 전생담의 마무리로써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를 연결시켜 이렇게 설한다. 즉 '상불경'이란 누구인가 하면 현재의 나[석가모니]이며 당시 성내며 상불경을 박해한 네 무리의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현호(賢護)라는 바드라팔라(Bhadrapala), 즉 발타바라(跋陀婆羅) 등의 5백인의 보살과 싱하찬드라(Sinhacandra), 즉 사자월(師子月) 등의 5백인의 비구니, 그리고 위없는 행복을 얻은 사람[善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수가타체타나(Sugatacetana), 즉 사불(思佛) 등의 5백의 우바새(優婆塞)—범본 법화경에는 우바이(優婆夷)로 되어 있다—들이라 한다.

위의 전생담을 〈법화경〉이 설한 의도는 장행(長行)의 맨 끝부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그것은 "이런 까닭에 모든 보살마하살은 내가 멸도한 후에도 항상 이 〈법화경〉을 굳게 믿어 기억하며 읽어주고 외워서 들려주며 해설하고 옮겨 써서 남에게 전하는 것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한 글이다. 〈법화경〉은 상불경보살이 〈법화경〉을 듣고 믿어 기억한 공덕을 설함으로써 이 〈법화경〉의 공덕이 큰 것임을 선양하고, 여래께서 입멸하신 후의 경전 수행을 사람들에게 권장한다. 이 '상불경보살품'이 '분별공덕품'의 후반(後半)에서 '수희공덕품'·'법사공덕품'과 더불어 공덕 유통으로 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상불경보살은 자기와 만나는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를 향해 그들을 예배하고 칭찬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경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보살의 수행을 실천하여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계속 말한다. 여기에는 인간을 최대로 존엄시(尊嚴視)하는 사상과 실천이 교시(敎示)되어 〈법화경〉의 중심 사상의 하나인 일불승(一佛乘)의 사상을 생생하게 실천으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㉕

영화를 통한 삶의 자각

첨단과학의 발달로 한 편의 영화를 디지털화하여 지름 12cm인 DVD 광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게 됐으며,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도 안방극장을 차려놓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디지털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디지털 영상산업의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영화제작사 등 관련기관을 방문한다고 한다. 물론 산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불교계에서도 역시 이 분야를 주목할 때라 판단된다.

한동안 불교 소재 영화인 '달마야 놀자'가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불교계에서는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어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문화 매체를 통한 포교

문화매체 통한 포교 중요성 인식

삶의 진리 얻는 소재 다양화 필요

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

이제 길은 두 갈래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불교 소재 영화를 제작 보급하는 것을 적극 후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기존에 제작된 영화 가운데 시대를 뛰어넘어 대중들에게 삶의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명화들을 엄선해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인데, 이에 대해 졸더 부연하기로 하겠다.

우선 필자의 견해로는 불교 소재 명화의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대중들에게 석가세존이 겪었던 깨달기 이전의 삶의 과정(특히 생로병사의 목격)과 깨달음 및 그 이후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 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최근 감상한 〈The Cider House Rules〉라는 영화(원작은 J. Irving의 소설)가 이 기준에 잘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호머는 두 번 입양됐다가 두 번 고아원으로 되돌아온 아이다. 고아원장이며 산부인과 의사인 늙은 라치 박사는 그를 후계자로 삼고 지극히 보살피며 그에게 의술을 전수했다. 고아원에서 18년을 보낸 호머는 고아들의 생로병사를 목격하며 믿음직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으나 미혼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해주는 라치 박사를 윤리적으로 못마땅해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절 수술을 받으러온 한 쌍의 연인들을 따라 시골 과수원 일꾼으로 취직해 고아원을 도망치듯 떠났으나 그곳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과수원 동료를 돕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린 미혼모의 중절 수술을 집도하며 라치 박사의 삶을 송두리째 체득하고 박사 사후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 박사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각계각층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이런 명화들을 적지 않게 발굴하고, 널리 알려 중생들을 보다 쉽게 자각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두 시간짜리 가짜 영화가 아닌, 각자 사는 일생동안 내내, 주인공으로서의 멋진 한 편의 진짜 영화를 사차원 시공간(우주)을 스크린 삼아 상영할 수 있을 것이리라!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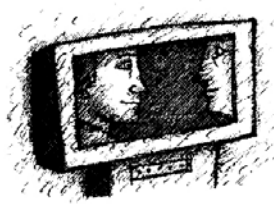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㊲

공부는 실천이다

모든 행위에 진지한 탐구자세 필요

도 닦는 이들이여! 출가한 이라면 모름지기 도를 배워야 한다. 나의 예를 들면, 과거 한 때에는 계율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경과 론을 탐구해 보기도 하였으나, 뒤에 이것들은 세상을 구제하는 약이며 드러내 보이는 말일 뿐임을 알고서, 일시에 이것들을 버리고 도(道)를 묻고 선(禪)을 찾았다. 그 뒤 큰 선지식을 만나보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분명해져서 천하의 노스님들을 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 하루 아침에 문득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공부란 곧 실천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행하는 것이 공부이지, 머리 속에 관념으로 기억하는 것이 공부는 아니다. 마음공부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고, 종교와 철학의 차이가 바로 이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관념적(觀念的)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지식은 관념적으로 의식(意識) 위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 관념적으로 그린 그림이기에 지식은 허망할 뿐, 진실하지 못하다. 우리가 보통 겪는 삶은,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서 관념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진실하게 여겨, 집착하여 애지중지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 위에 그리는 관념의 그림은 마치 허공 속에 불꽃놀이를 하듯이 물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고 있는 순간에는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의식 위에 잔상(殘像)으로 남아 있는 기억일 뿐이다. 요컨대 진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의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마음이다.

마음은 정해진 모양이 없는 재료이어서 어떤 의식의 모양도 만들지 않을 때의 순수한 형태로는 알려지지 않는다. 모양 없는 재료인 마음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의식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평소 우리는 의식이라는 나타나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되는 모양 없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진실로 실재하는 것은 재료인 마음일 뿐이고, 모양 있는 의식은 그 재료인 마음이 순간 순간 연출해내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마치 물결이 이는 물을 보면 물결만이 드러나 보이지만, 사실은 물결은 순간 순간 지나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고, 다만 물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늘 다양하게 나타나는 물결만을 보고 물결에 관심을 가질 뿐인 것처럼, 늘 다양하게 나타나서 경험되는 의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의식은 허망하게 지나치는 순간들의 잔상일 뿐임을 모르고, 진실로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는 마음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마음공부는 헛된 것에 가리어서 진실한 것을 못보고 있는 상태를 극복하여 진실을 바로 보는 일이다. 다시 말해 모양[相]에 눈이 가리어 모양만을 쫓아다니는 삶을 극복하고, 모양 없는 진실이 진정한 본질임을 확인하여 모양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바로 마음공부이다.

그러므로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곧 진실을 찾는 일이며 실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공부에는 오로지 실천이 있을 뿐이고, 어떤 허망한 관념적 이론에도 매달려서는 안 된다.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지금 자기의 모든 행위에서 진지하게 마음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위에서 참으로 진지하고 절실하게 변함없이 바탕이 되는 진실을 탐구한다면, 마음공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매주 수, 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1-9520-0054(이 정 화) http://www.mindfree.net/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늦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몸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경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숙,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정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의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동양의학에 약재로 쓰는 나무의 액기스로 만든
대나무수액 시트
(우리대나무죽초시트)

발에 붙이면 건강해 집니다
마디식물대나무가
관절(마디)를 돕는다
발바닥은 인체반사구의
집합소 죽초가 목초보다
성분이 강하다
※ 불자님께 사은 선물
100매 구입시 W90,000
숯팔지 9미리 단주증정(판매가 W45,000)
수량한정품
(보석같이 단단한 비장탄으로 깎은 수가공품)
(병을 고치려면 먼저독을 빼라 : 책증정)
숯을 전문연구개발하는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송금 조흥은행 359-03-004847

국내외 한국학자료들 어떻게 정리·이용하나

소재·보존실태 파악 급선무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5개국 20여 전문가 참석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학 자료들의 현황과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한국국학진흥원 주최로 11월 28~29일 열렸다. 참가자들이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국학진흥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둘러싸고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 준 소득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동시에 국내에 있는 고문서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존·정리되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도 됐다.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심우영)이 '국내외 한국학 자료의 보존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지난 11월 28~29일 개최한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도 이런 반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국내외 한국학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였다.

특히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관련 사료들의 소재와 보존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도서관 선본 특장실에 소장된 한국본 고서적과 한국학 관련 고서적을 조사한 박현규 순천향대 교수는 "중국에는 많은 국학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해보면 공개를 꺼리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일본 도야마대학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는 "일본 내 많은 곳에서 한국본을 소장하고 있고 목록 정리도 외국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본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서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학 자료 전산화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발표한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자료의 DB구축은 근본적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이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입력 기관이나 주관처의 특수한 목적과 시스템상의 문제로 개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보화 자료의 유통과 공개를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학진흥원 관계자는 "한국 정신사와 문화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국학 자료를 올바로 정리해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국학 연구의 성패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잘 정리하고 보존하며 효과 있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흩어진 문헌 종합목록 작성부터
자료 독점의식 버리고 공유정신 가져야

파리 리옹대학 이진명 교수는 "프랑스에는 2천여 권의 한국 고서와 50여 점의 고지도가 있고 국립도서관에는 〈직지심경〉과 〈왕오천축국전〉 등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이들 자료에 대해 깊이 있고 체계 있는 연구를 아직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에 있는 한국학 자료들은 그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 목록도 작성되어 있고, 마이크로필름이나 CD-ROM 등으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의 종합적인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여러 기관이나 개인이 분산해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관찬사료와 같은 역사 자료들은 우리 조상들의 공적인 재산이며 국민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소장처들이 자료의 '독점의식'을 갖고 폐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국가적인 자료 정리·정보화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며 중복 투자의 위험성이 있다"며 "자료 이용의 개방성과 공유의 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묵 교수는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한 종합목록 작성이 한국학 자료 정리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kinny@buddhapia.com

"최초의 한글 佛書는 '원각선종석보'"

노태조 교수, 불교문화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한글로 된 최초의 불서(佛書)로 추정되는 〈원각선종석보(圓覺禪宗釋譜)〉가 발견됐다.

현재 학계에선 한글 불서의 상한선을 〈월인천강지곡〉이 완성된 세종 28년(1446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발견된 〈원각선종석보〉는 세종 20년(1438년) 천불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이보다 8년이나 앞선 것이다.

노태조 대전보건대 교수가 10월 30일 한국불교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원각선종석보〉는 아직까지 이 책의 이름이나 천불사라는 절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진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본이 확실하다면 한글 창제 시기 역시 세종 25년(1443년)에서 5년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월인천강지곡'보다 8년이나 앞서 간행돼

노 교수는 "한글 창제가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천불사 역시 실제 절 이름이라기보다 당시 궁중에 있던 내불당을 비밀리에 지칭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원각선종석보〉는 〈석보상절〉 〈월인석보〉 등과 같이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그린 석보계 한글 불서로 전체 5권 분량. 이번에 공개된 것은 제1권으로 끝머리에 '정통(正統: 1436~1449년 사용된 명나라 연호) 3년 천불사(天佛寺)'라고 적혀 있어 1438년 개판·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입적한 일타 스님이 중국에서 구해 가지고 있다 제1권을 복사하여 려증동 전 경상대 교수에게 연구 자료로 기증한 것을, 노 교수가 다시 복사해 가지고 있던 것이다.

"체제나 판형, 자형, 어휘, 문장, 방점, 한자에 동국정운식 음이 달려있는 것 등이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 등과 비슷하여 15세기 초 문헌으로 손색이 없다"고 밝힌 노 교수는 "〈원각선종석보〉는 석보계 최초의 한글 불서로, 앞으로 관련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일타 스님이 입적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품이 정리되고 원본이 공개되면 진본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초의 한글 불서라는 주장이 제기된 '원각선종석보'의 마지막장.

정영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11)

인간미 넘치는 나한상

벌써 십 여 년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백과사전 편찬부에 근무하던 시절, 백과사전에 실을 나한상을 촬영하기 위해 여러 사찰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의외의 상들에 약간의 신선한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렇게 엄숙하게 보였던 성보문화재 중에서 이처럼 인간적인 면모가 철철 넘치는 상들이 있었구나 하는 당혹감이었다.

갖가지 다양한 인간적인 모습을 만나는 여행은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는 기회였다. 그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나한상은 마곡사16나한상, 화엄사16나한상, 운수암나한상 등으로 주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상이었다. 그들이 펼치는 세계는 인생의 고귀한 드라마를 연상케 하였다.



◇송광사 응진당 16나한도(1725년). 이 작품의 매력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흐름에 있다. 최근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송광사 나한도 권위적 면모 자취 감춰
등 긁고 상념에 빠진 모습 너무 인간적

성문(聲聞)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침을 얻는데는 네 단계가 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뒤로 갈수록 높은 단계이니, 아라한이 가장 큰 깨달음인 것이다. 그 깨달음의 정도는 부처에 버금간다. 이 아라한(阿羅漢)을 줄여 나한(羅漢)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나한이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제작된 나한상의 모습은 의외로 인간적이고 자연스럽다. 그 큰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그들에게는 전혀 신적이거나 권위적인 면모를 찾을 길이 없다. 어떤 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고, 어떤 이는 호랑이를 쓰다듬고 있으며, 어떤 이는 옆에 있는 분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 이 분들의 자유로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불화에서도 이러한 감동은 그대로 전해진다. 1725년에 조성된 송광사 응진전 나한도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나한도이다. 응진전(應眞殿)이라 하면 진리에 상응한다는 뜻으로, 바로 깨달음에 이른 나한들을 모신 전각이라는 의미이다. 여기 모셔진 나한도 가운데 제12 나가서나존자(那伽犀那尊者), 제14 벌나파사존자(伐那婆斯尊者), 제16 주다반탁가존자(注荼半託迦尊者)를 그린 장면이 특히 흥미롭다. 제12존자는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 어떤 생각에 잠겨 있고, 제14존자는 가려운 등을 긁고 있으며, 제16존자는 위를 바라보며 상념에 빠져 있다. 무언가 깊은 침묵에, 무료함까지 화면에 깔려 있다. 이러한 정서는 조용하면서 가늘게 흐르는 선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한상은 두께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얇게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요롭게 보인다.

특히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 있는 제12존자의 경우, 가는 선묘로 묘사되었지만 둥글게 부풀어진 어깨의 실루엣에서 무엇이든 포용하는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배경은 이들 상의 평면적인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붓질이 거칠고 강한 질감을 통해 입체감을 내었다. 거칠고 입체적인 배경에 가늘고 평면적인 흐름을 보이는 나한상을 대비시킨 것이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흐름이 우리를 이 작품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출시

이 책은 비쌉니다! 그러나, 내용은 몇배 더 비쌉니다!
한문을 몰라도, 출생 년월 일시를 몰라도, 만세력을 펼치지 않아도,
오행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찾아(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 귀신 침범을 정확히 잡아 낼수 있고 그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이 귀신을 밝히면 그 집안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 받게 됩니다)
■ 병자(病者)가 지금 어떤 귀신의 침해로 병들었나를 잘 밝히게 됩니다. 해소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그 귀신만 시식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 천도 시식 굿의 효과를 미리 알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활인 능력이 단박에 높아지고 살림이 편안해 집니다.
이점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 산소탈을 잘 밝혀 내게 됩니다.
그 해소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산소 인가를 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정 빌미 사승을 밝히게 됩니다.
그 처방이 써져 있습니다.
(집안 누구에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될뿐 아니라 해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책은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값 : 2,500,0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전 12권 (부록·비디오 포함) 우단금박표지, 적색모조지, 8절크기, 매일 차트식 바인더

주문 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주문전화 : 02-993-8680·02-996-3335 부산지사 051-851-2349

아직도 구도(求道)하십니까?

긴 수행과 고행만이 깨달음의 길일까요
고통과 죽음을 초탈한 3일간의 체험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깨달았으며
중국의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테크닉(방편)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이상이 아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비약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신앙보다는 직접 체험이 더욱 확실하고 값집니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구고 싶을 때
● 갈등, 괴로움, 미움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악몽과 영가 장애를 스스로 해결하고 천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싶을 때
● 확실하고 영원한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수련 과정

本 性 (3일)	無心, 無我, 無分別智, 업장소멸, 죄의식소멸
無爲法界 (2일)	本空, 寂滅,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해결(천도) 마음의치유와 휴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無上法 (2일)	거듭남의 비밀, 삶의 기쁨

춘마을 禪林院
033)435-6166, 435-8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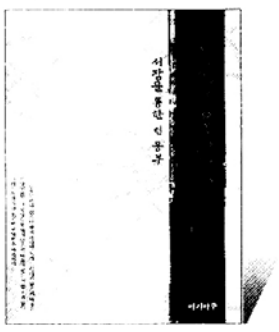
참선 힘드세요? '서장' 읽으세요

거사·유학자 질문에 답한 禪의 요지
62편 가운데 49편 뽑아 해설 곁들여

"공부가 잘 안됩니까. 참선 수행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요. 화두를 붙잡고 앉은 지는 오래 되었는데, 항상 온갖 번뇌 망상이 떠오른다고요. 공부에 진척이 없어 참선 수행을 그만두려는 분들, 혹은 중단했던 참선 수행에 다시 도전장을 내려는 분들. 그렇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요. 어떤 책이냐고요? 바로 <서장 공부>입니다. 혹 불자가 아니시더라도 종교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그런 힘을 지닌 책입니다."

<서장 공부>는 제목 그대로 동국대와 부산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김태완 박사가 쓴 <서장>에 대한 공부 책이다. <서장>에 실린 62편의 편지 가운데 49편을 선정하고, 편지의 가르침에 해설을 더했다.

'서장공부'
김태완 지음
여시아문 / 8천원



<서장>은 대혜 종고(大慧 宗杲, 1089~1163)스님이 그 문하에서 공부하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禪)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대혜서> <대혜문> <대혜보각선사서>라고도 불린다. 임제종 양기파에 속하는 중국 남송 시대의 스님인 대혜 선사는 묵조선(默照禪)을 배격하고 간화선(看話禪)을 제창했기 때문에, 간화선의 전통을 이은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간화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선법(禪法)이다.

간화선이란 화두 살피는 것을 공부로 삼는 선 수행을 이르는 말이다. 화두(話頭)는 공안(公案)이라고도 하며, 주로 선사들이 문답한 일화 가운데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말이나 행위를 문제로 삼는 것이다. 대혜 선사는 바로 <서장>에서 자성을 깨달아 선문(禪門)에 들어가는 새로운 방편으로 간화(看話), 즉 화두(話頭)를 이야기 하고 있다.

우선 조사선과 간화선을 본질을 잘 밝히고 있으며, 선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과 그 공부에 대한 지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또 옳지 않은 견해와 잘못된 견해의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동시에 올바른 견해와 공부의 길을 보여준다.

교계 안팎에서 간화선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이 책은, 간화선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서장>의 가르침을 철저히 파고들어 예나 지금이나 참선 공부하는 이들이 부딪혔던 문제들을 꼼꼼하게 되짚어 지혜로운 수행의 지침을 내려주기에 충분하다.

"참된 공부인이라면 진실한 자기 자신이 무상(無常)한 의식현상의 바탕이 되는 바로 이 유일무이한 모양 없는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참선 공부란 곧 모양 없는 이 마음이 진실한 자기 자신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 확신이 진실로 분명하여 달리 의지할 한 물건도 없을 때, 늙고 병들어 죽는 군졸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서장 공부>를 벗삼아 참된 공부인의 길을 걸어 보자.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미래의 불교역할 무엇일까?"

'역사 속의 한국 불교' 펴낸 역사학자 이이화 씨
과거 반성·내일을 준비하는 자료 되길
기복불교 청산·비구니 지위 향상돼야



"한국사 속의 불교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불교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역사 대중화에 앞장서온 역사학자 이이화 씨(65, 사진)가 한국불교의 역사적 실체와 역할을 살펴보는 책 <역사 속의 한국불교>(역사비평사 刊)를 펴냈다. 그는 "사상사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불교가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핀 특별한 작업"이라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12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불교의 전래에서부터 삼국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불교정치술, 불교문화가 꽃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불교 이단 논쟁과 불교정책의 변화, 호국불교와 민중불교, 임진왜란을 겪으며 변화된 불교의 위상, 해방 이후의 불교교단의 활동과 분쟁까지가 통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작업은 단순히 '역사의 기록'만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4세기 후반 이 땅에 전해진 이래 불교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보다 지나치게 세속의 길을 걸어 때로 시대정신을 외면하거나 천박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 그는 이 책이 과거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불교가 미래의 주도자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복불교 청산'과 '비구니와 신도의 지위 향상', '과도한 불사 지양'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불교는 평화, 평등, 인권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민족, 지역, 종교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과학·물질문명의 범람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신·생활문화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교는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을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5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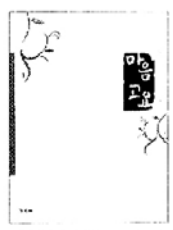
네안의 부처님을 보라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이 펴낸 법문집이다. 평소 스님이 신도들과 법회라는 형식을 통해 만나서 함께 나누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서 쉽고 마음에 와 닿는 것들만 가려 뽑은 것이다. 형식은 법문을 요약한 것이지만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여래, 8천원)



도설 지장경

한국불교법륜종 황도명스님이 펴낸 책이다. 자비의 화신인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널리 퍼기 위해 <지장경>을 쉬운 한글문체로 번역하여, 그림과 함께 실었다. 일반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지장경 공부에도 도움이 될만하다. 황도명스님은 이 책에 이어 <부모은중경> <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도 이해하기 쉬운 한글문체와 그림을 더해 펴낼 예정이다.(법륜종문화사업부, 1만8천원)



마음 고요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자로 유명한 비구니 정목 스님이 낸 에세이집이다. 현재 스님은 마음고요선방을 열어 종교를 초월해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며, 아픈 어린이를 돕는 작은 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다. 출가에서부터 지금까지 맺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이 책에서 스님은, 분별심과 집착을 버릴 때 '마음이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학고재, 8천5백원)



치우천황

2002 월드컵 때 우리 나라 응원단 붉은 악마의 상징으로 알려진 치우천황의 모든 것을 짚은 책이다. 월드컵 축구 4강과 붉은 악마·붉은 악마의 원조 치우천황·백전백승의 치우천황·치우천황의 붕어 이후·중국에서 보는 치우천황과 착각들·붉은 명신 치우천황의 부활 등으로 구성했다. 치우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고준환 교수(경기대 법학부)가 썼다.(메트로, 1만원)



바보와 신사

이 책은 중앙일보에 근무하는 불자 김임천 씨가 만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씨는 조금만 달리 보면 그들은 세상의 억압된 굴레를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라면서, 그들의 삶은 동정과 멸시, 편견이라는 우리의 잣대를 잠시 접고 바라보았을 때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아이티, 7천원)

고려 불교사상 전반적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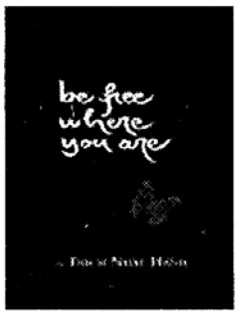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이병욱 지음
혜안 / 1만 8천원

<고려시대 불교사상>은 한국 불교사에서 상대적으로 덜 체계화된 고려불교사상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몇몇 사상가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통일신라에서 후삼국을 거쳐 고려로 이어지는 시대적 변화에 맞물린 불교사상계의 변화와 불교계의 중심인물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순지(順之)와 의천(義天)의 사상에 대해 검토했으며, 3부에서는 보조국사 지눌과 원묘국사 요세의 사상을 다루었다. 4부에서는 원나라 간섭기 이후의 불교사상에 대해 검토했는데, 운묵무기가 고려 천태사상의 흐름을 집약시킨 인물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해외불서 — 당신이 서있는 곳에서 자유로우라



수년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의 고승이 미국 교도소에 초청돼 재소자들을 상대로 법문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신이 서있는 곳에서 자유로우라(Be Free Where You Are)>는 틱낫한 스님이 1999년 10월 16일, 헤이거스톤 메리랜드 교도소에서 미국 재소자들을 위해 첫 번째로 설한 법문을 기록한 책이다.

이 소책자는 미국의 명상가들이나 명상을 배우고 싶어하는 재소자들이 휴대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됐다. 틱낫한 스님의 설법을 들은 재소자들은 예전에도 여러 성직자로부터 교훈적인 강연을 많이 들었지만, 고승의 감화력과 자비심에 이끌려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설법을 경청했다.

교도소 법회장에서 펼쳐진 질문과 대답들은 어느 때보다 힘있는 대화들로 이루어졌으며, 스승과 제자간에는 어려운 이론과 불교용어가 난무하지도 않았다. 평이한 대화로 진행된 야단법석 그 자체로 살아있는 불교의 현장이었다. 틱낫한 스님 지음, 미국 Parallax출판사. 김재경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김산자전	감산 스님	여 시 아 문
2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지 스님	민 족 사
4	마음꽃	경허 스님	고 요 아 침
5	바로 이번 생에	우 빤 디 따	불광출판사
6	쏟아지는 햇빛	아눔라 스님	정신세계사
7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8	아비달마구사론	권 오 민	동국역경원
9	이뭐꼬	성철 스님	김 영 사
10	달마 서양으로 가다	진 우 기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皇極經世

삼천년 동양철학의 집대성!!

입과 눈같이 움직이는 것은 가로로 구멍이 나있고, 코와 귀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세로로 구멍이 나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동물은 머리부터 태어나고 식물은 뿌리부터 나며, 동물은 오히려 가로로 자라고, 식물은 세로로 자라는 것은 왜일까?

같은 유씨가 세운 西漢과 東漢은 각각 12대나 갔는데, 蜀漢은 2대밖에 못간 것은 왜일까?

하나라의 우임금은 리괘(履卦)를 만나 나라를 세웠고, 비괘(否卦)에 임금이 된 걸왕(桀王)은 나라를 빼앗긴 것은 왜일까?

황극경세
무덤 속에서 천년을 기다린 책



두가대 요응회 등은 무덤속에서 이 책을 얻어 앞날을 정확히 예견하였고, 정자 사마광 주자 등 최고의 석학들은 이 책을 철학적으로 귀하게 여겨 연구하였으나, 그 심오함에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그저 신비로운 글이라는 이름으로 비전되었던 책!

활용
- 129,600년의 역사책으로
- 성음율려의 음운학 책으로
- 64괘가 얻은 수리학으로
- 인체 각 기관의 의학책으로
- 역사와 어울어진 격물치지
- 주역의 괘풀이 책으로
- 부록에 나오는 대로 대한민국 30년 대운을 미리 예견해도 좋고, 자신의 운을 미리 점쳐도 좋다.
- 성음율려편을 연구하여 배우자와 동지의 성씨를 알아보자.

추천의 글
- "동양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강절선생의 학문을 엿볼 수 있는 초석은 되리라" / 동방문화진흥회장 대산 김석진
- "현존하는 수많은 동양학관련 서적중에서 이처럼 다양한 철학적 접근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책이 드물었던 것을 상기하면,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나, 도가풍의 의술을 지금의 의술에 접목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 한의사들이 꼭 한번 연구해 볼만한 책" / 경희대학교 교수 홍원식
- "邵子易學의 진수인 이 황극경세를 번역하여 우리 젊은 학계에 널리 알리는 이번 작업은 또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쾌거" 한국주역학회 회장, 충남대학교 교수 남명진

전 3권(소,강,절) 2,500쪽 15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특별부록 황극경세 개인운세 CD

대유학당
959-8385
www.daeyou.net

천문기록으로 역사를 읽는다



옛 관측자료·유물 통해 '단군' 실체 추적

"천문기록 고대사 이정표 밝힐 주요사료"

별과 우주에 대한 관심은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그 증거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에 촘촘히 박혀있다.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가 펴낸 이 책은 천문 기록에 담긴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옛 사람들이 남겨 놓은 자연 현상 관측 기록과 과학적 유물을 통해 단군조선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는데, 박 교수는 "천문학은 하늘의 역사를 밝히는 것만큼이나 땅의 역사를 밝히는 데에도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한다"면서 "역사적 해석이 분분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을 찾아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 · 중 · 일 삼국의 경우 서양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자연 현상을 관측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경우 과거 약 28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약 2100년, 일본은 약 1400년에 걸쳐 다양한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박 교수는 서양이 갖지 못한 방대한 자연현상 관측 사료 속에 아직 해독 되지 않은 수많은 역사적 흔적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따라서 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서양식 접근법과 함께 우리만의 색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데, 이를 박 교수 스스로가 이 책을 통해 실천해 보이고자 했다.

한 예를 들어 3, 4세기 이전의 기록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혜거세거서간에서 벌휴이사금(B.C. 57~A.D 196)까지 총 264개 기사 중 약 4할을 차지하는 101개 기록이 자연현상에 관한 것이다. 그중에서 34개가 천문현상 기록이다. 그러나 이 자연 현상 기록은 역사 구성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 서기 200년 이전에 대한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체의 4할이 아깝게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가진 유물과 사서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한 가지 길은 기존 자료나마 최대한 분석하고 이해하여 사료화하는 것이라고 박 교수는 주장한다.

모든 천문현상에는 반드시 시간 개념이 담겨 있고, 따라서 천문현상을 활용하면 그 현상이 일어난 과거 역사의 시점을 절대적 산출법으로 정확히 추적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문현상기록은 고대사에서 시간적 이정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자연 현상 기록을 통해 우리가 고대문화의 일면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천문 기록에는 단순한 자연 현상 뿐 아니라 옛 사람의 자연관이나 사상, 종교, 정치관까지 녹아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일찍부터 시작된 학문의 하나가 바로 천문학이라는 것이다. 천문학적 기록과 유물은 고대 문화가 어디서 어떻게 피어났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주변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일러주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에 수십 세기 전이 서 있었을 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바로 천문학이며, 옛 사람들은 그야말로 별처럼 빛나는 자료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특별하고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 바로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박창범 지음

김영사 / 1만 3천9백원



우리 삶 바꿔 놓은 화학의 발견

환경문제 대두 등 부정적 측면도 커

새하얀 천, 비누와 설탕, 화려한 색깔의 염색 천, 깨끗한 물, 효율 높은 자동차 연료, 안전한 냉매, 합성섬유, 두연 연료와 식품, 살충제, 비료.

이런 것들이 없는 오늘의 우리 삶이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화학의 프로메테우스〉는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이끌어낸 '화학'이라 불리는 과학의 한 뿌리를 찾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각 시대마다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한 선구적인 화학자들이 소개된다.

비누를 발명한 니콜라 르블랑, 설탕제조법을 창안한 노버트 릴리외, 비료와 독가스로 유명한 프리츠 하버, 나일론과 고무를 세상에 선사한 윌리스 흄 캐러더스, 무연 가솔린의 클레어 C. 패터슨, 색깔 염색의 선구자 윌리엄 헨리 퍼킨,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물의 전문가였던 에드워드 프랭클랜드, 유연 가솔린과 안전한 냉동법을 고안한 토머스 미즐리, 살충제 DDT 발명으로 노벨의학상까지 탄 헤르만 뮐러 등.

"화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간 화학의 프로메테우스들이다. 신들의 전유물인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갖다 줌으로써 문명을 시작하게 했던 프로메테우스처럼, 일상생활에 다시 없는 혜택을 베풀었다.

이 책에서는 화학의 프로메테우스인 그들이 '불'을 발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불'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어떤 문제점을 낳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들이 살아간 치열한 삶과 사회적 배경을 보여주고, 내면의 갈등과 고통까지 엿보게 해 줌으로써 우리 삶에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 동시에 공정한 시각에서 이들 화학자와 그들의 만든 발견이 환경과 공중보건 등 결과적으로 오늘의 우리 삶에 미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츠 하버의 이야기는 조국에 대한 의무와 인류에 대한 의무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의 도덕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그가 발명한 질소 고정법은 수백만명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가 개발한 독가스는 제1차 세계대전을 연장시켰다. 또 토머스 미즐리가 발견한 프레온-12는 안전한 냉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현대 예방의학을 제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지구의 오존층에 구멍을 뚫었다.

화학적 발견이 우리 삶에 큰 혜택을 주었지만, 그로 인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은자 기자

'화학의 프로메테우스'

새런 B. 맥그레인 지음 / 이종호 옮김

가람기획 / 1만 2천원



동물·로봇에도 '마음'이…

전문가 서평

한해가 저물어 간다. 우리사회는 급속히 발전해 가고 물질문명의 혜택은 경이에 가까울 정도로 놀랍다. 인터넷시대와 더불어 하나의 경이는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의 발명일 것이다. 사람보다도 더 정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 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과학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루는 석학이 다름 아닌 다니엘 데넷이다.

다니엘 데넷(1942년생)은 미국 보스턴 출신으로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인지과학에 대한 저술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이다. 그는 보스턴 근처 메드포드에 소재한 터프츠 대학 인지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분야는 단순한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닌 신경과학과 인공지능 등의 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

다니엘 데넷은 하버드대의 학부시절에는 기호논리학과 분석철학에서부터 철학에 입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가 다루는 인간의 마음을 보는 출발이 언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여기에 다윈적 진화론과 근래의 컴퓨터 공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제적 관심을 읽을 수 있다.

기존의 철학에서는 마음에 대해 논의할 때, 우선 인간의 이성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인간에게는 동물이나 기계와 다른 특유의 계산능력과 도덕적 이성이 본래 갖추어졌다는 전제로 인식론을 전개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 인식하는 것도 결국은 이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데넷은 오성이나 이성보다는 언어를 문화자(文化子, 문화적 유전자)를 중요한 인간의 인지능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언어야말로 인간만의 우수한 인지능력의 도구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가 없더라도 동물과 기계도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 '(목적)지향성'이 있는데, 이러한 지향성은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으며 또한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에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만이 마음을 가졌다고 보지 않는다.

그의 지향적 입장에서 '믿음'과 '욕구'를 인간뿐만 아니라, 개나 곤충 그리고 심지어는 온도조절장치에까지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지향성은 전자오락게임에서 사람과 겨루는 장기나 체스 혹은 육구 등에 잘 나타난다. 그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는 사람과의 게임에서 이기려는 '지향성'을 가지고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 한국의 학계, 특히 철학계에서는 낯선 분야지만 인터넷과 컴퓨터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마당에 이 쪽은 인지과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일은, 기존의 모든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재검토를 요하는 것이기에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화두선(話頭禪)에서의 아주 중요한 물음이다. 데넷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언어가 없을 뿐이지 마음이 있다고 한다. 로봇에게도 스스로의 언어는 없지만 '지향성'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나 로봇에게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문화자가 유전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세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언어와 문화자를 배경으로 한 마음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넷은 단지 인지과학의 영역에만 영향력을 갖지 않고, 심리학 · 신경과학 · 인지동물행동학 · 진화생물학등의 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이야기식의 대중적인 글쓰기로 인해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다.

앤드루 브룩과 돈 로스가 편집하고 철학과에서 인지과학분야를 전공하는 석봉래에 의해 번역된 이 책은 다니엘 데넷이 30년간 다룬 인지과학과 인공지능의 이론적 배경을 친절하게 안내하며, 여러 학문영역에서 논의된 데넷에 대한 논평을 잘 정리해서 로봇시대의 마음을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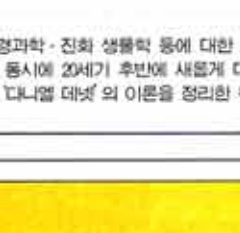
수행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요한 마음을 닦는 것이다. 로봇이니 인터넷이니 하는 용어자체가 어쩌면 어수선한 세태를 반영하는것일 지도 모른다.

불이희재/ 강우태 교수

'다니엘 데넷'

앤드루 부룩 · 돈 로스 편저 / 석봉래 옮김

몸과 마음 / 2만원



인공지능·인지과학 이론적 배경 설명

언어 없기 때문에 문화적 유전 안돼

〈다니엘 데넷〉은 인지 심리학 · 신경과학 · 진화 생물학 등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토대로 인간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는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대두된 학문인 인지과학을 선도하는 세계 지성계의 거두 가운데 한 사람인 '다니엘 데넷'의 이론을 정리한 책이다.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 스님은 온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成)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불교는 염세적인가?

대학시절 가을맞이 시낭송회를 기획한 적이 있다. 해서 유명한 여류시인인 H씨를 초대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분이 재직하고 있던 대학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시낭송회에 오셔서 신작시를 낭송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분은 흔쾌히 허락을 하며, 동국대학은 문학적 전통이 오랜 대학이라 오히려 영광이라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당혹스러웠던 것은 필자가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예전에는 불교를 믿었지만 교리를 공부할수록 염세적인 것이 싫어서 개종했다는 말이었다.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본인이 판단하여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호오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불교를 염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분의 불교관에 대해 자못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부탁하러 간 처지에 교리에 대한 논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일인지라 웃으면서 헤어졌지만 한동안 나의 뇌리는 그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불교는 정말 염세주의적인 종교인가? 물론 불교는 염세주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여류 시인은 불교를 왜 염세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불교의 기르침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4성제 중에서 첫 번째가 고성제이며, 고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8고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분은 이 고성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고성제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인가? 4성제 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결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괴로울 고(苦)자를 붙여 성스러운 진리라 말한 것은 아니다.

고(苦)는 범어인 두카(duhkha)를 번역한 말이다. 두(du)와 카(kha)의 합성어인데 두는 혐오한다는 의미이며, 카는 공허하다는 의미이다. 혐오와 공허함이 겹쳐서 상락아정(常樂我淨)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고(苦)라 번역한 것이다. 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현대의 학자들은 불만과 불안으로 정의한다. 이 세상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들을 불만과 불안으로 내몰고 있으며, 나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求不得苦),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怨憎會苦),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愛別離苦), 육신이 왕성한 것(五陰盛苦) 등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등은 모두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결국 실존에 대한 불안과 불만 때문에 이것들을 고라 본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운 사람과 만남 등은 모두 욕망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결핍증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불만이다. 또한 육신이 왕성하여 발생하는 불안과 불만 등이 있다.

인간이란 숨쉬고 있는 한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안과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살아가면서 소유와 자아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벽에 막혀 불가능하게 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실현되지 않으면 번민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이런 것은 또한 우리들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문제는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맹목적이지도 않으며, 맹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아함경〉에서는 불안과 불만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과정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여섯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섯 기관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며, 짝이 되지 못하면 불안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고 말한다. 인식의 대상이나 접촉, 감수 작용, 지각 작용, 의지와 충동, 애욕의 경우 등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오감과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자체가 우리들을 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오감을 스스로 통제 내지 절제하고, 그것들이 결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임을 인식한다면 불안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

기실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 법관, 장관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 직업이나 직책이 가져오는 권위나 명예, 권력 등 때문이라면 설사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하더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부귀영화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불안과 불만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사는 변화가 무쌍하며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대부분 현실과 사회현상을 직시하지 못한다.

여기서 개인적인 불안과 불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과 불만까지 고조되게 된다. 결국 괴로움으로 표현되는 불안과 불만은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욕망이자 야수성이다. 그것이 순화되지 않는 한 인간세계는 불안과 불만 속을 헤메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욕망에 사로잡혀 고통·비관 자초
苦의 원인 해결위한 노력해야

"잘 산다는 것은



◇'염불하는 이놈이 뭐꼬' 화두를 들고 있는 정관스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환희지보살처럼 살고싶다는 원으로 정진한다.



가

정관

정관스님은?

어린이 포교

'내 나이는 스무살
부증불감'이라고 환한
스님은 1933년 경주에
러서 원효스님을 주인
을 읽고 원효스님처럼
겠다는 원을 세웠던 스
께 갔던 불국사에서 느
풍경소리의 편안함과
경했다. 그러다 15세
라진 할머니를 보고 실
저리게 느낀 스님은
경주포교당에서 동산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20년 전 봄, 부산 대각사에 들렀던 어느 스님은 불도 켜지 않은 어둑한 곳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작업중인 두 사람과 마주쳤다. 그 사람들은 어린이 법회 안내장 발송 작업을 위해 잠깐 시간을 내어 안내장을 봉투에 넣고 있었다. 누구도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두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돌아오지 않는 어린이 법회를 위해 시간을 쪼개 직접 등사기를 밀어 안내장을 만들고 우편물을 발송까지 해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이 두 사람과 마주친 스님은 이미 여러 차례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며 그 조직의 대표를 맡아 달라는 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날 스님은 두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그 청을 수락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 스님이 바로 지금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로 우리나라 어린이 포교의 상징이요 선구자인 정관 스님이다.

"그 날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았을 때, 감동으로 마음이 뭉클했어요. 스님들도 외면하는 어린이 법회를 위해 직장 생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직장 상사 눈치 봐가며 어린이 법회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니, 소님인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종단의 지원은 물론이고 스님들의 관심조차 없었던 어린이 포교를 시작해놓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함께 고생했던 보람이 지금에야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년 전 영주암 학생회 출신들이 영주암 마당에서 뛰놀던 옛 추억을 못 잊어 아이의 부모가 된 지금도 법회를 여는 걸 보면서 포교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직장과 결혼 등으로 전국에 흩어진 이들은 정기 법회가 어려워지자, 인터넷을 통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2월 28일에는 영주암에서 같은 추억을 가진 전국의 불자들을 모아 법회를 볼 계획도 세워놓았다. 스님이 뿌린 씨앗이 알차게 영글고 있다는 증거다.

"특별한 불교관이 없었다면 계속할 수 없었을 정도로 힘도 들었지만 출가자로 살고 있다는 환희심이 더욱 컸지요. 누구 한사람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또 당장 표나는 포교 성과가 없어도 선생님들과 도움을 주었던 스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맞아떨어졌기에 힘든 줄조차 모르고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관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위해 걸어온 지난 세월을 '살얼음판을 걸어온 시간'이라고 비유하면서도 보수를 준 일도 없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일에 마음 하나로 정성을 다했던 선생님들과 그 가운데서 신심을 키워갔던 아이들이 있어 스님의 하루하루는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아무리 고통스런 일이 있다 해도 출가 수행자로 살고 있다는 기쁨에 비하면 그 고통은 햇빛 비치면 저절로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나는 출가생활에 늘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출가자의 기쁨은 가진 게 많은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앞으로 등기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것은 모두 부처님 말씀을 따라 내면을 풍부하게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물질 만능으로 생겨난 인간의 정신적 허기, 갈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참선이나 염불 등의 수행을 통해 내면성을 가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애완 동물이 만 8천 종류나 수입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현대인들의 고독과 정신적 허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모두 정 붙일 데가 없으니 동물을 키우며 내면의 허기를 채우려 하지만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 채우면 또 하나 부족해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죠. 그러니 이제 일시적인 쾌감을 주는 일에서 벗어나 내면의 영적 지수를 높이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참선이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내면을 치유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바로 불교에 있습니다. 선을 통한 내면의 정화만이 물질이나 순간적이 쾌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결핍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스님은 이어 외부세계, 물질 세계에만 온통 마음을 빼긴 현대인들은 이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내면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부의 조건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길은 무엇인지 한번쯤은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방엔 개구리 한 마리 없어도 나는 지금 부자요, 행복합니다. 하하하! 이 행복과 부유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는 근원을 알아내는 사람만이 물질 만능으로 인한 인간 고독을 해결하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 없어도 행복하다'며 껄껄 웃는 스님의 얼굴이 어느새 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얼굴이 된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 때문일까? 눈썹 하나 찡긋하는 것조차 어린이들에게 맞추며 살아온 스님의 웃음 띤 얼굴은 칠십의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 맑다. 그 얼굴은 평생 동안 새싹 불자들을 키워낸 스님에게 뒤늦게 주어진 부처님의 훈장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스님의 맑은 표정을 지켜온 비법은 어린이들과 함께 한 시간만큼이나 한결 같은 스님의 투철한 수행에서 비롯된다. 매일 새벽 3시 10분전 시작되는 스님의 일과는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염불 정진으로 채워진다. 오래 전 졸음을 쫓기 위해 서서 하는 염불을 택했던 스님은 지금까지도 염불을 하며 '염불하는 이놈이 뭐꼬' 하는 화두를 챙기는 방법으로 참선과 염불이 병행된 수행법을 이어오고 있다. 간단한 보건 체조, 공양 시간, 예불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스님은 정진으로 보낸다. 두 시간 정진하고 두 시간 쉬면서 이어지는 정진은 밤 9시 30분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된다.

"내 하루 수행이 곧 내 하루 농사인 셈이지. 농부의 농사가 곡식 잘 키우는 것이듯 출가 수행자의 농사는 바로 수행인 것이지요. 농부가 농사를 게을리 하면 수확할 것이 없듯이 출가자가 수행을 게을리 하면 풍요로운 마음밭을 가꿀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스님의 농사는 염불 참선 외에도 또 한가지가 있다. 매일 열 장의 '불(佛)' 자를 쓰는 것이다. 벌써 30년 이상을 꾸

정신적 허기 수행·염불로 해결
매일 佛자 10장씩 쓰기 30년 계속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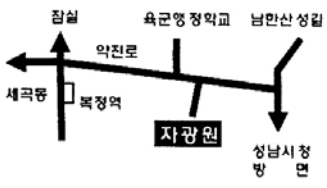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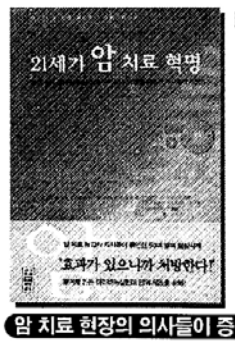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21세기 암 치료 혁명

대체 요법의 첨단을 달리는 아라비녹실란

이제 '서양 의학으로는 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대체 요법이다. 본서의 김수자인 의사 오비즈 이렇게 말한다.
"현재 전미(全美) 125개의 대학의 의학부 가운데 실로 75개 대학이 대체 요법 부문을 신설하고 있다. 그 흐름은 성난 파도와도 같다. 일본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대체 요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합리적,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는 아라비녹실란에 의해 그런 확신에 도달하였다."



▶병원치료인 수술요법 화학요법(항암제), 호르몬요법, 방사선용법등의 치료를 한후 상기 대체요법을한 90명의 환자에 대해 2~5년의 재발확률을 관찰한 결과 현재 86명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면역요법의 핵심적 열쇠라고 할 수 있는 NK세포(면역세포)의 활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발된 4명의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감수자 오비즈 료이치 - 의학박사
저 자 나가사와 오사무 - 의료 저널리스트
편역자 황성주 - 의학박사

암 치료 현장의 의사들이 증언한 50여 명의 임상 사례

이치바시 클리닉의 이치바시 겐이치 원장
유방암 4기로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아라비녹실란 3g을 투여한 지 한 달 만에 NK세포 활성이 2배로 상승했고 종양 지표는 1/3로 떨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또한 '만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하루 3g 의 아라비녹실란을 투여하면서 3주 후에 백혈구 감사를 해보니 6만 5천에 달하던 수치가 정상 범위인 5천까지 내려온 놀라운 일도 있었다.

오모리 내과 알레르기 클리닉 오모리 원장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지 몇 년 뒤에 간으로 전이된 60대 환자는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라비녹실란을 투여한 지 일주일 만에 종양 지표가 내려갔고 그 뒤 암의 크기도 상당히 줄어들어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은 모두 적출해 낼수 있게 되었다

호시가오카 후생 연금 병원의 보우지마 도오루 박사
폐질환을 앓으면서 폐암 3기인 64세의 남성이 수술 후에 뼈까지 암이 전이되었다. 이 환자는 몸이 너무 약해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아라비녹실란만을 투여했는데 6개월정도 후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지면서 암 세포의 크기도 줄어들었다 물론 종양 지표인 ICTP도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구입 및 상담문의 (代) 545-7536 ■가격 8,000원

02.737.8881

성성스레 사는것"

서 뵌 큰스님

님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연합회 총재)

…"늘 기쁨전하며 살고파"

견서는 심했다. 1954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계
로 답한 를받은스님은57년 비구계를 수지하
았다. 어 고 범어사 강원을 졸업한 후 쌍계사
한 소설 주지, 범어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후
일을 가 1984년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
구와 함 회의 회장을 맡으며 어린이포교를 이
학소리, 끌어왔으며 95년에는 불국토 대표이
틀 동 사를 맡아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부처
나 꼬부 님의 자비를 전하는 복지분야에서도
을 뼈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범어사 스님은 "환희지 보살처럼 사람들
보살계 에게 늘 기쁨을 전하며 살고 싶다"는
틀 결 원으로 정진하고 있다.

히 이어온 일과인 스님의 불(佛)자 쓰기는 스님의 또 다
수행방편이 되었다.
"어느 날, 반야심경 10만 번 쓰는 것을 발원해서 실천하
손병윤 변호사라는 분이 자신이 천 번째 쓴 반야심경이
면서 액자를 해서 가져왔더군요. 그것을 받는 순간, 굉
장히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나도 붓글씨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다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스님은 그때부터 붓, 먹, 벼루를 사고 독학으로 붓글씨
를 시작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교본으로
혼자서 연습해서 하루 불(佛)자 열 장 쓰는 것을 일과로 삼
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배우지도 못한 붓을 쥐고 보니
마음에 갈등이 심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아니지,
그래도 결심이 중요하니 끝까지 실천해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스님
은 글씨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매일 열 장씩 쓸 때, 학생회 법우들이 학교에서 돌아오
면 먹을 갈아주곤 했어요. 내가 불(佛)자 열 장 쓰는 것으로
나와 씨름할 때 그 아이들은 먹을 갈면서 올라오는 생각을
살펴 나가는 공부가 된 셈이죠."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 희망없어
부처님 향한 신심 샘물솟듯 하길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를 붓으로 씻어내며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글씨를 쓰고 또 쓰는 사이 어느덧 만장
을 넘어섰다. 만장을 넘어서자 스님만의 독특한 불(佛)자
의 틀이 생겨났고 3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던 내면의 갈
등도 사그라들었다. 스님은 마음의 갈등을 안고 섰던 글을
말끔히 태워 없애고 만장 째 쓴 불(佛)자는 서로 달라고 조
르는 학생회 중에서 추첨을 해서 어느 여학생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때부터 스님은 인연 닿은 불자들에게 부처님 법
을 전하는 마음으로 직접 쓴 글씨를 선물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복작거릴 때 붓으로 씻어내면 그 이상 가는 것
이 없다"는 스님은 영주암 대웅전 편액을 썼을 때의 얘기
를 들려주신다. '법을 새워 '대웅전' 이라는 글자를 쓰고
또 쓰는데, 먹을 갈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간지 오래고
내가 쓴 '대웅전' 이라는 글이 방안에 가득 쌓이도록 밤새



◇ '도량을 비질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고 당부하는 정관스님.

것만 앞세우는 사람보다는 온 국민과 더불어 잘 사는 길을
고민하고 대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내면의 지혜를 갖추도록 이끌어야 하는 스
승으로 우뚝 서야 할 수행자로서 스님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음을 절감한다. 스승이셨던 동산 스님이 몸소 보여주었
던 수행정신과 대중 교화의 자비심을 닮고 싶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동산 스님과 함께 지낸 제자라면 누구나 스님이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도량을 비질했던 일화를 떠올
린다. 정관 스님은 스승의 하루도 빠짐 없었던 비질을 인
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지혜의 실천이며 정성스럽게 사
는 인간의 길임을 늘 새기곤 한다.

"우리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3시 15분이면 어
김없이 일어나셔서 여행가는 사람처럼 즐겁게 법당에 가
시곤 했어요. 그 발걸음이 어찌나 설레고 즐거움으로 가득
한지 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풍경이 떠오를 정도였
죠. 스님께서 기도하거나 법당에 참배하는 것을 보면, 하
나라도 더 있으면 더 받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
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공경심 가득한 마음으로 조왕단을
시작으로 선방, 관음전, 용왕전, 비로전, 탑, 지장전, 산신각,
나한전, 팔상전 등 열 군데가 없는 전각을 모두 참배하셨
는데 늘 똑 같은 시간에 하루 2번씩 정확하게 참배하셨으
니 지금은 흉내조차 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각의 참배처럼 열반 당일까지도 빠지지 않은 것이 6
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비질이었다. "도량이 청정
해야 선신이 옹호한다"는 말씀과 함께 몸소 보여주신 스승
의 가풍을 잇기 위해 정관 스님 또한 범어사 주지로 있을
때 단 하루도 비질을 멈추지 않았다. 밤늦게 돌아오시는 날
이면 잠겨 있는 법당 문을 열고 반드시 인사를 드렸을 정도
였던 동산 스님을 보며 화엄경을 수 백 번 배운 것보다 귀
하고 생생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내 장기는
마당 쓰는 것 뿐이야"라고 했던 스님의 목청이 생생하다.
정관 스님은 "부처님을 향한 신심 하나는 샘에서 물 솟듯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스님의 일
상 속에 되살리는 노력을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금강스님



몇 해 전 사중불사에 손수 굴삭기(포크레인) 운전을 한다는 스님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스님들이 울력으로 직접 집을 짓는 것은 더러 보고 들었지만 중장비 운전까지 한다는 말은 처음 접하였기에 신기한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잘 듣다보니 그 신기한 스님이 바로 금강스님이었다.

10여 년 전 강원에서 공부할 때 '전국승가학인연합'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우리는 해인사 강원의 대표로, 중앙승가대학 대표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금강스님은 둥근 얼굴에 동그란 안경을 낀, 깔끔한 외모에 얼굴에는 항상 맑은 웃음을 띄고 있어서 첫 만남에도 오랜 지기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회의를 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논리가 정연하면서도 인간적이며 여유로운 융통성마저 가져서 '젊은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 다듬어져 있을까' 하는 놀라움과 더불어 부러움을 느낄 정도였다.

금강스님이 살고 있던 해남 미황사는 유서깊은 고찰이지만, 우리나라의 땅 끝, 해남이라는 외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신도의 시주가 넉넉치 못했을 테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불사를 하던 은사스님께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 굴삭기 운전을 하게 된 이유인 듯 했다.

시간이 지난 뒤 우연히 조계사 인근에서 금강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는 나라에 경제위기가 와서 국제금융IMF의 지원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사회에는 실직자가 넘쳐나고 노숙자 문제가 점점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던 상황이었다. 모두가 앞날을 예측 못하는 혼미한 국가의 경제상황은 불교계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지만, 근검절약이 몸에 밴 대부분의 절과 스님들은 조금 더 아끼고 살자는 소극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금강스님은 백양사에서 수련법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실직자를 위한 수련법회'를 위해 자료도 구하고 종단의 지원을 받아보려고 왔던 길이었다. 미황사를 떠난지 시간이 제법 흘렀는 데도 금강스님의 얼굴엔 굴삭기 운전할 때 햇볕에 타서 점처럼 생긴 검은 자국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맑고 기운찬 얼굴은 변함이 없었다. 당시 타 종교나 사회단체에서의 실직자와 노숙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에 비해 한없이 빈약하기만 하던 우리 불교계의 관심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는데, 금강스님의 실직자를 위한 수련회는 비록 그 결실이 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를 바라보는 눈 바로 뜨고, 깨어있는 스님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었다.

2년전 조계종 포교원의 소임을 맡아 왔을 때, 합께 일할 스님자리가 비어있어 추천이 필요했다. 바로 금강스님을 생각하고 전화를 했지만 자신은 아직 산사에서 더 기도하고 정진하고 싶다고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해 여름 신문에서 미황사에서 어린이 한문학당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물론 금강스님이 도맡아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이었다. "그 벽지 외딴 곳에서 어떻게 어린이 한문학당을 하겠다고…" 걱정도 되고 소식도 전할 겸 전화를 넣었더니 무척 밝고 쾌활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너무 잘 돼서 걱정"이라며 자신이 넘쳤다. 오랫동안 심사숙고하여 준비하고 치밀한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땅끝이라는 지역적 취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시켜 인근 학생들뿐 아니라 멀리 외지에서도 문의가 쇄도한단다. "어차피 그렇게 일을 할 거면 서울에 와서 좀 하지 그랬냐"는 타박에 껄껄 웃으며 자신은 서울체질이 아니란다.

지난 가을 포교원 소임을 그만두었다가, 올해

손수 굴삭기운전 불사전념
세상을 보는 눈 항상 열려있어

한일 월드컵 게임을 맞아 '템플스테이' 일을 맡아 다시 서울로 왔을 때, 템플스테이 신청사찰 명단에서 미황사를 찾을 수 있었다. 유수한 본사들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외국인을 맞아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시키는 프로그램은 지금껏 없던 일이라 말사인 미황사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금강스님은 어느 절보다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사 정부나 종단의 지원이 없어도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미황사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선발되게 했다.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동안 미황사는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중요한 사찰의 하나가 되었다. 땅끝이라는 매력과 더불어 금강스님이란 믿음직한 스님이 있는 까닭이었다.

가을이 저물어 갈 무렵, 금강스님과의 통화에서 미황사에 올 여름동안 사람들이 1만명은 다녀갔다고 들었다. 물론 단순한 관광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건 절을 찾아 무언가 체험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일 것이다.

금강스님은 같이 먹고 자면서 정을 쌓고 인연을 맺은 적은 없지만 정말 뜻이 통하는 도반이다. 그리고 절이나 스님을 소개해 달라거나 불교의 인연을 구하는 누구에게라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스님이다. 서산 부석사 주지

대구 팔공산 1인1지장 만불보탑 성취 4000일 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장보살님의 성취공덕이 늘 함께 하길 두손모아 기원 올립니다.
불기 2540년(1996년) 대구 두산동에서 맨손으로 몸소 불단을 만들어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기도수행, 포교복지 원력으로 6년 이제 팔공산 앞 갓바위 입구에 지장보살님의 새 터전 작은도량을 마련하여 1인1지장 만불보탑 불사와 한가정 한평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지장대법사 표허 큰스님을 모시고 만일기도 결사의 원력으로 4000일 기도를 입재발원 올립니다.
지장경 전독 제4차 1000일기도와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새원력과 새날을 기다리지 않고 성취하시는 지장보살님의 두눈과 두손의 무한 가피력으로 선근공덕, 성취공덕, 회향공덕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길 두손모아 지장보살님전에 축원 올립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살

㉮ 입 재 : 불기2546년 12월 8일(음력 11월 5일) 일요일 오전10시
㉮ 1일1지장 인연공덕 동참자 1인, 한가정 한평불사 인연공덕 동참자 5인가족 동참일로부터 1000일축원
㉮ 동참금 : 1인 1지장 (원불, 조상영가, 태아영가 30만원
한가정 한평불사 100만원
인연따라, 형편따라 선원장스님과 상담후 분납됩니다.
㉮ 1인1지장에는 인연공덕 동참자 이름을 새겨 올립니다.
㉮ 한가정 한평불사 동참자는 공덕비에 5인가족 이름을 새겨 올립니다.
㉮ 100일마다 천도재 올립니다.

※ 대구은행 지장선우(055-05-422870-001)

불기2546년 11월 좋은날 조계종 범어사 대구포교당
지장선원장 지 공 손모음
지장선원 ☎ 053)744-0150~1

선무도 화랑 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선무도대학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2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1주, 2주, 1개월)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체육단체, 기업체 위탁연수)
▶ 수련내용 :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 동 참 금 : 학생(1일-2만원) 일반(1일-3만원, 1개월-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 수련비 입금계좌 :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준
▶ 준 비 물 :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장갑
▶ 시 설 : 선무도대학 본관과 요사(숙소)는 신축건물로써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석굴사원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사찰 전통문화와 대자연속에서 불교와 선무도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과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스트레스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특히 피로에 지친 입시생들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크다.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불식)	13시	독서와 사색
		14시	오후 수련(선무도 학생)
5시	좌 선(명상과 선호흡수련)	15시	전통문화 강습(무용, 다도)
6시	조깅, 등산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7시	아침공양(발우 공양)	18시	저녁공양
8시	불교강의(초발심, 부모은중경)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9시	오전수련 (선무도의 정적인 기공수련과 선체조)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선무도)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향한 서원)	21시	점호 및 취침
12시	점심공양		

-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의 문무대왕수중릉 성지순례와 계곡의 얼음 물속에서냉수마찰 수련도 합니다.
-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을 정화하고 한문공부도 시킵니다.
- 임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 규칙을 어길 경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련회 참가자는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
- 지도진: 스님, 사범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전공자 등), 다도 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대학원)
- 홈페이지 www.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는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들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단,1월과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계로 받지 않습니다.)
- 무예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진학<불교학, 체육학> 까지 보장 됩니다.)
-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심신을 휴양하고 싶은 분
(비만증 학생인 경우 1달에 8kg까지 빠집니다.)
-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학교,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장이 가능합니다.
- 인근 도시의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주말 수련회(금,토,일)가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학여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받습니다. (사찰관람 및 선무도수련, 약2시간)
- 외국인 관광문화 체험단 일정이 많으므로 단체연수인 경우 꼭 예약이 필요합니다.
- 본 협회 산하에 약 20여개소의 국내지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대학에 교양과목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산사음악회, 지역축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개폐회식 공연, 근대불교미술 조명 등 올 한해 불교문화계에는 여느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낳았다. 특히 2002년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한국방문의 해' 였던 만큼,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전시회와 음악, 무용 공연이 펼쳐졌다.

'산사음악회' … '깨달음展' 등 문화행사 여느해보다 풍성

사찰주도 지역축제 늘어 눈길

2002 불교문화계 결산

주요 사찰서 산사음악회…대표적 행사로
근현대불교미술전 '아름다움과…' 큰의미
영화 '동승' 30여 국제영화제 초청 신기록



◇올해 불교문화계는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개최로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풍성하게 열렸다. 사진은 신촌 봉원사 영산재 보존회 스님들이 '영산재' 중 식당작법을 펼쳐보이고 있다.

이중 산사음악회는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서울 북한산 심곡암, 해남 미황사, 진천 보탑사, 지리산 불락사, 봉화 청량사 등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성황리에 열려 불교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를 굳혔다. 하지만 일부 사찰은 출연료와 무대 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올해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하지 못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지역민을 위한 소규모 저예산 산사음악회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창단 4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기념 음악회를 연 LMB싱어즈와 교계에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을 통해 전문 실내악단으로 봄음포교를 활발히 하고 있는 '니르바나'의 꾸준한 활동도 높이 살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지역문화의 해'를 계기로 활성화 되기 시작한 지역문화축제는 올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화순 운주사 대축제, 아산 인취사 백련시사, 하동 쌍계사 차 축제, 백양사 단풍축제 등 사찰 주도의 지역축제가 늘어나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새로운 포교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관람객들이 단순한 구경꾼에 머물다 끝내는 행사가 주류를 이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남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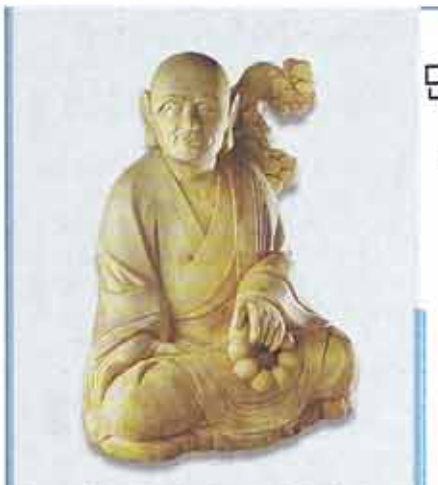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올해는 우리의 불교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목아 박찬수씨(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는 한일월드컵 전야제때 목어를 타악기 대용으로 만들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이명미씨(우바이무용단 무용수)는 부산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원융무애의 정신을 담은 '세계로 가는 기차'를 공연해 외국인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서울 신촌 태고종 봉원사에서는 월드컵 기간중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을 위해 6월 한달동안 매일 영산재를 축소한 '갈라 영산재'를 상설로 공연하기도 했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이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 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은 그동안 고미술품 위주의 연구와 전시회가 대부분이었던 불교미술계에 20세기 유명작가들의 본격 창작품을 한 군데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중 근현대 최고의 불상으로 꼽히는 김복진의 '정혜사 관음보살입상', 정종여의 '진주 의곡사 여래좌상 괘불', 근대 대표적 유화가 오지호의 '공주 무등산 아미타 후불탱화' 등은 미술계에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한국의 대표적 미술 전시회로 이번에 19회를 맞은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은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성 풍부한 다양한 작품의 출품이 예년에 비해 적어 일반 미술계의 역량있는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년 3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동승'의 잇단 해외 영화제 초청은 사찰이 한국의 대표적인 영상 소재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한 셈이다. 빼어난 영상미가 돋보이는 영화 '동승'은 6월 상하이 국제영화제 최우수 각본상 수상을 비롯해 하와이 국제영화제, 예테보리, 티뷰튼, 파리, 트레블링 등 30여개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신기록을 세웠다.

김주일 기자 jeum@buddhapia.com



◇은행나무에 조각한 조병현씨의 '나한상'.

단청·불화제작 과정도 함께…

14~20일 대전서 한국전통문화 미술인展

불교미술의 감상과 함께 단청과 불화의 제작과정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구 경북지역 전통미술인들이 모여 결성한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민회관 대전시실에서 '제2회 한국전통문화미술인전'을 연다.

20여 작가가 회화 52점, 조각 18점, 건축모형 5점 등 총 75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구시무형문화재 14호 단청장 시연 보유자 조정우씨를 비롯해 전수자 10여명이 여러개의 모형 건물을 만들어 단청을 시연하고 5폭의 불화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 작품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조정우씨의 '심우도 병풍'과 '수월관음도'다. 특히 '수월관음도'는 선재동자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 보타락가산을 찾아가 만난 관세음보살을 배경으로 달을 넣어 그렸다.

이 그림은 고려불화에서 많이 묘사되는 수월관음과 달리 현대적인 색채 기법을 접목했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을 준다.

수묵화가 아닌 진채를 사용해 표현한 김경암씨의 '달마도'도 재미있다. 수묵에서 느껴지는 단조로움을 넘어 화사한 진채의 맛이 잘 녹아있다. 이외에도 김성희씨의 '영산회상도', 문종호씨의 '사명대사 영정', 박정환씨의 '일주문 모형', 배현근씨의 '포대화상', 이태만씨의 '석조 비로사나불', 조병현씨의 '목조 나한상' 등도 전시된다.

전연호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장은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단청과 불화 시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대구경북지역의 전통문화 발전과 보급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전시 취지를 설명했다. (053)284-7788

김주일기자

회화·조각 등 작가 20명 75점 출품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모습.

찬불가 합창제 '새벽을 여는소리'

불교소년소녀합창단 13일 세종문화회관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13일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새벽을 여는 소리'란 주제로 '제9회 정기 연주회'를 마련한다. 찬불가 CD 출반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부의 새벽 예불의식 공연과 2부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덕수 스님의 도량석 독경으로 막을 올리는 1부는 하유 스님의 법고연주, 불교TV 합창단과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예불문, 발원문, 반야심경 합창 등의 순으로 펼쳐진다. 특히 1부 공연은 인적 없는 산사의 새벽을 표현하기 위해 법고, 운판, 범종, 목어 등 사물을 무대에 등장시켰다.

또 2부에서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마음이 부처라면'을 비롯해 '해탈의 기쁨', '이별의 노래', '무상', 등 찬불가를 합창한다. 이외에도 '한강수 타령', '경복궁 타령' 등 민요와 흥겨운 클래식 음악도 레퍼토리에 포함돼 있어 신명나는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02)725-7527

전국불교만화전 작품공모

내년 1월10일 단편·만평 등 마감

영남불교대 불교만화연구소(소장 김선아)는 '제2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을 개최한다. 단편, 네컷만화, 일러스트, 만평, 캐릭터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모든 장르의 만화면 출품이 가능하다. 장르와 편수, 사이즈는 제한이 없으며 특히 컴퓨터로 제작한 작품은 프린트물과 디스켓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내년 1월 10일.

시상 내역을 살펴보면 조계종 총무원장상(연꽃대상)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상, 영남불교대학장상, 대한불교진흥원장상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수여된다. 수상 작품은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불교만화이야기〉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년 1월 26일 오전 11시 영남불교대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열린다.

김선아 소장은 "불교만화의 활성화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ww.okbuddha.com, (053)474-0344

이달에 가볼만한 국내외 답사여행

◆한국석불문화연구회=소승불교의 대표적 나라인 미얀마(양곤, 바간, 만달레이)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태국(방콕, 아유타야) 등의 불교유적지를 9박10일 일정으로 둘러보는 '해외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간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02)760-5138, 카페 http://cafe.daum.net/rheu0101(세계로 떠나는 여행).

◆터사랑=15일 정조대왕의 효심이 서려 있는 수원 용주사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화성 및 융건릉을 답사한다. 성인 3만8천원, 어린이 3만3천원. (02)725-1284.

mahamall.co.kr

마하몰이 추천하는 신상품

稀譚石 희담석

"보살님!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돌, 희담석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스님 등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최상의 상태는 순간의 집중력과 그것을 얼마나 장시간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느냐 입니다. 희담 방석은 신체를 정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 파장으로 머리를 맑게 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몸을 편안하게 이끌며 순간순간 회복력을 높여 주어 장시간의 공부도 가능하게 합니다. 아래의 체험 사례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희담석 방석 체험사례〉

예고 1학년인 내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힘겨워 했으며 그나마 졸기 일쑤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깨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지난 추석 무렵에 〈희담석 방석〉을 깔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깔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는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도 졸기는커녕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고 더군다나 밤 늦도록 공부했음에도 아침에 힘들이지 않고 잘 일어났다. 결소 자기는 32명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석 방석〉을 사용한 후 10등으로 올라갔고, 암기 과목을 어려워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와 딸에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영희 (41/여, 수험생 어머니, 부천 중동)

나는 힘이 들어서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운전석 시트에 〈희담석 방석〉을 깔고부터는 장거리 운전을 해도 힘이 들지 않았다. 단지 방석으로 사용한 것인데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희담석의 효능은 참으로 탁월한 것 같다. 원철 스님(경남, 군포시)

좌선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다보니 고질적인 치질로 인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우연히 〈희담석 방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맑은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좋다. 정안 스님(전남, 곡성사)

과음을 한 날 밤, 베개 〈희담 방석〉을 돌려 놓고 자면 다음날 숙취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 과음한 다음날 허리 위 등짝이 시큰거리기에 30분 정도 〈희담 지키미〉를 벨트에 끼워 환부에 대고 고정시켰더니 시큰거리고 뻐근했던 통증이 사라졌다. 이병수 (남/35세, 서울 위생사)



* 권장소비자가격 (100,000원
* 색상: 연두색, 살구색

마하몰 재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

모 제3회 집

국제 전문 자격사 취득 안내

"부처님의 극락 불탑의 나라 황금의 사원미얀마"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한국, 공용 국제자격증

국제 포교를 위해 증설한 미얀마 국제 아우미따지 성도 대학원에서 지식인들의 등용문이 되고자 다음 해당 학과 학생을 모집합니다.

국제전문자격취득과정

1 전통 침술 국제 자격증반
2 스포츠 지압 국제 자격증반
3 비만 클리닉 백침 자격증반
4 명예 철학박사 학위반

지원자격

1 남녀 만 27세 이상 60세 미만
2 현재 침술 또는 경력 1년 이상인자
3 학력 제한 없음
4 지원서, 등본1통, 사진6매, 이력서

(대학원 확장과 한국 분교 증설로 이번기회 전원 무시험 통과 자격 취득)

◆ 접수 및 문의 : 031)867-4131 / 팩스 031)867-4134 / 011)214-4135 / 018)370-4133
◆ 홈페이지 접수 : www.sukamony.or.kr
◆ 지원서 접수 마감 : 양력 12월 15일
◆ 출발일 : 양력 26일 ~ 30일 (4박5일 - 일정에 관광포함)

전문박물관

박 물 관	전 화	위 치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	02)724-0114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1
짚풀생활사박물관 www.zipul.org	02-743-8787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4
한국자수박물관	02)379-4117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4
김치박물관 www.kimchimuseum.co.kr	02)002-6456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지하2층
철도박물관	02)3149-3087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서울역내
우정박물관 www.postmuseum.go.kr	02)756-2858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서울중앙우체국
의학박물관 snuh.snu ac kr/~museum	02)760-2636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농업박물관 museum.nonghyup.com	02) 397-5673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농협 서울지역본부 2층
신문박물관	02)2020-1830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사 내
삼성출판박물관	02)679-459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0-2
티벳박물관 www.tibetmuseum.co.kr	02)735-8149	서울 중구 소격동 115-2
세중옛돌박물관 www.oldstonemuseum.com	031) 321-7001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산 6-1번지
만해기념관 www.manhae.or.kr	031)744-3100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912-1번지
다도박물관	031) 998-100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832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www.comicsmuseum.org	032)661-374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19 부천종합운동장내 1층
화폐박물관 www.komsep.com/museum	042) 870-1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5번지
청주고인쇄박물관 www.jikjiworld.net	043)269-055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
전주 종이박물관	063)210-81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함평나비생태관 www.inabi.or.kr	061)320-3224	전남 함평군 함평읍 123-1



◇가족과 함께 가까운 도심 속 박물관을 찾아보자. 사진은 함평 나비생태관을 찾은 가족들의 모습. 사진제공=함평시

볼만한 이색 박물관

석불·동자석 등 석조문화재 2만점
짚풀 생활사 자료 집성 '체험교실' 도
목판·금속활자본 등 시대순으로 나열

추운 날씨 탓에 가까운 공원 나들이도 쉽지 않다. 하지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일. 생생한 현장교육은 물론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도심 속 이색 박물관을 찾아보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신문로변 경희궁터에 문을 연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서울이 수도로 정해진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울의 역사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전시실은 '조선의 수도' '서울 사람의 생활' '서울의 문화' '도시 서울의 발달' 등 4개로 나뉘어 있으며, '금강반야바라밀경(보물 제974호)' 과 '삼십분공덕소경(보물 제975호)' 을 비롯한 문화재와 조선시대 궁궐 상궁들이 가지고 놀았던 '연밤윷', 선비들이 과거시험 준비에 쓴 수험서 '과문(科文)' 등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 2만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된 작품의 복제품들을 만져볼 수 있는 '터치 뮤지엄' 과 조선시대 과학기구, 놀이기구, 생활용품 등을 마련해 놓은 '체험공간' 도 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전시실을 함께 돌면 설명을 해주고, 다양한 체험교실과 시민강좌, 특별전 등을 수시로 열고 있다.(02)724-0114

용인 세중옛돌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양지리의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세중옛돌박물관은 불상과 석탑, 부도, 광배 등을 전시한 불교관과 다양한 형태의 동자석이 있는 동자관,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을 볼 수 있는 실내전시관을 비롯한 14개 전시실이 있다. 특별전시관에는 일본에 유출되었다 되돌아온 동자석 등 우리 석조문화재 70점을 한눈에 볼 수 있다.(031) 321-7001

한국자수박물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자수박물관은 1976년 허동화 씨가 전통자수, 보자기, 침장, 종이공예품 등을 전시하기 위하여 설립했으며 전통자수 500여 점과 보자기 500여 점 등을 전시한다. 눈에 띄는 유물로는 조선시대 스님들의 가사인 이십오조가사(보물 제654)와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수병풍인 자수사계분경도(보물 제653)가 있다.

이밖에도 십장생보료, 불교자수, 충정공 민영환의 부당대례견장, 왕비방석, 버선본보, 수저집 등 다량의 희귀 자수품이 전시돼 있다.(02)379-4117

짚·풀생활사박물관 짚신, 망태기, 멍석 등 짚생활용품부터 죄수의 머리에 씌우던 짚주저리까지 온갖 짚풀 생활용품을 모아놓은 짚풀생활사 박물관은 우리 민족의 농경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고(故) 신동엽 시인의 부인인 인병선 씨가 설립한 이 박물관에는 짚풀생활사 자료 2500여 점과 직접 찍은 사진 슬라이드 2만 5000여 점을 보관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씩의 특별 전시회와 달걀꾸러미, 보리집인형 등을 만들어보는 '짚풀 만들기 체험교실' 도 연다.(02)743-8787

청주고인쇄박물관 1972년 유네스코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공인한 '직지심체요절' 을 찍어낸 청주흥덕사지(사적 제315호)에 세워진 박물관이다. 우리나라 고인쇄문화의 발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목판본,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등의 고서와 그림 사진 등을 시대순으로 전시해 놓았다.(043)269-0556

전주 종이박물관 한지의 본고장인 전주에서는 종이로 만든 공예품과 종이산업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국보 제277호인 '초조본 대광불화엄경 주본경 권36' 이 있으며, 종이를 사용하기 이전 석판이나 짐승의 뼈, 나뭇잎, 나무껍질, 파피루스, 또는 짐승의 가죽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애쓴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종이의 탄생과 전파 과정, 종이가 과거 인류의 생활문화 전반에 사용된 모습 등을 유물을 직접 만져보며 배울 수 있다. 종이에 관한 애니메이션도 상영한다.(063)210-8103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대선후보의 가정정책은?

3대 종교 민간단체 공청회 열어

대통령 후보들의 가정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가 불교·기독교·천주교의 민간단체의 주최로 4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 기독가정사역연구소(소장 송길원), 우리신학연구소(소장 박현준)가 마련하고, 국민일보·평화신문, 현대불교신문이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오늘날의 가정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참석하기로 했던 세 대통령 후보들과 후보 부인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그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날 정당의 가정정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성정책전문위원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후보의 연설 비디오 녹화테이프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후보들에게 전달된 질문이 개인적인 가정관에 치우쳐 여성·가정 정책의 주요 현안인 맞벌이 가정에 대한 정책이나 호주제 폐지에 관한 답변은 끌어내지 못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도 대변인들이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 후보들의 답변서와 기본 정책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후보별 주요 가정정책>

정책/후보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가정정책 기조	가정가치의 유지 보호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형성 가정복지 지원강화 가족유지프로그램 개발	가족가치의 존중과 가정행복 추구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가정복지정책 증대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사회 기초공동체로서의 가정 정책과 복지에 주력 양성평등한 가정 추구
가장 시급한 가정 문제	가족기능 약화	가족해체	가정의 문화지체현상과 이혼율 급증
해체가정 대책	예방 프로그램 해체가정에 대한 자립 계획과 복지 프로그램 강화	공적 부조 확대로 자립 기반 형성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강화 주거지 원 확대	가정복지관을 통한 접근 홈메이커 서비스 실시 가정위탁보호 그룹 홈 확대
노인가구 대책	노인 복지 및 인구정책 특별 위원회 설치 자립기반 확보 공적부양 체계 확립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가족유대 강화	고용 확대 생계보호 확대 요양시설 확대 가족간 효를 위한 휴가 및 수당제도 도입	노인예산을 정부예산의 1%로 확대 기초연금지도시행 경로연금 향상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노인복지심의관 설치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열무 된장 볶음



열무 200g, 볶음 양념(된장 4큰술, 들기름 1큰술, 표고버섯 가루 1큰술, 현미쌀눈 가루 1큰술), 홍고추 1개, 들기름, 다시마 국물, 재피가루 약간씩

1. 열무는 누런 잎을 떼고 살짝 삶아 물기를 대충 짠 후 된장, 들기름, 표고버섯 가루, 현미쌀눈 가루를 넣고 조물조물 무친다. 홍고추는 어슷썬다.

2. 시간이 지나 간이 배면 팬에 들기름을 조금 두르고 열무를 넣어 볶는다. 자글자글 끓을 때까지 두면 물이 생기는데 봄열무는 물이 많이 생기지만 가을 열무는 물이 부족하므로 다시마 국물을 조금 더해준다.

3. 어슷 썬 홍고추를 넣어 열무의 파란 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다가 마지막으로 재피가루를 넣는다.

자료제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소

건강단신

어린이 눈건강 무료 강좌

세브란스 안이비인후과병원은 18일 오후 2시 30분 청파 회의실에서 '어린이 눈건강' 을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에서는 안과 이종복 교수가 유아 사시의 진단과 치료 및 건강한 시력관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02)361-8507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

경기도 안산시 보건소는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중 만 3~6세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약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어린이나 60세 이상 노약자, 각종 질환자 등에게는 4천원의 접종비를 받는다.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보건소 예방접종실.(031)481-3513



각종 영양소 고루게 첨가된 건강식

무심정식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무심정식은 곡류, 야채류, 해조류, 버섯류 등 27여 가지 자연식품에 홍국분말, 동충하초, 연자육, 두채분 등의 기능성 식품을 첨가해 인체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주는 건강식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약·화학센터와 공동연구개발한 제품으로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한 18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10만 5천원(30g×30포).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CHAMP 챔프그룹

농·수·축·임산업, 식품가공업 및 가정 건강생활 필독서!!

질병을 고치는 책

노벨상 3회 수상으로 입증된 목초액성분의 놀라운 효능

특차: 제1장 : 목초액이란 / 제2장 : 목초액의 유래 / 제3장 : 목초액의 효능
제4장 : 목초액의 활용법 / 제5장 :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신비의 목초액



저자 : 류창재(구. 창업) 값 8,500원

목초액 식침용1Kg ..... 현재가격 297,000원 → 132,000원 (유사제품가격 : 600,000원)
목초석류액기스 1200ml ..... 현재가격 297,000원 → 132,000원 (유사제품가격 : 495,000원)
목초석류액기스 성분: 석류액기스90%(흑식류80%+홍식류20%)+목초액10%

창나무 간질환·당뇨병·암·무좀·각종 피부병에 놀라운 효과!

목초액이 병을 고친다

현재 MBN 매경TV ch20 "류창재의 건강교실"에서 명강의 중

값 13,000원



최신간! 명강의 테이프 포함!

심보를 고쳐야 병이 낫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마음건강학
마음이 병을 부르고 마음이 병을 낫게 한다!

飮食과 養食에 의해 건강과 질병으로 변하는 과정

음식 -입 -마음 < 부정 - 부패 - 독소 - 탁한 피 - 면역기능 저하 - 세포질병, 노화촉진
궁정 - 소화 - 영양소 - 맑은 피 - 면역기능 상승 - 세포건강, 젊음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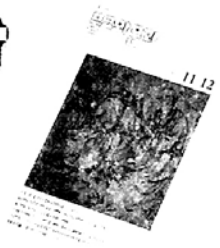
류창재(구. 창업) 소개
목초액 연구가
심성교정 연구가
환경보존 연구가
사회사업가
산업강사 : 각 기업 및 단체 출강중 (인간성 회복과 인간능력개발, 조직원의 근무자세)
방송인 : 4년간 출연방송(KBS, SBS, 인천방송, 대전방송, 이펜트방송, 제주방송), MBN(매경TV) 매주 6회 출연중

도서는 전화 주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목초관련 제품 문의 및 주문도 받습니다)
전화 011-9702-8282 / 011-344-5897 / 계좌번호 : 국민은행 394-24-0006-533 (예금주 : 류창열) /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판매합니다.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2002년 11·12월호



인터넷 "불교와 문화"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생활세계와 불교
• 매스미디어 홍수 속에서 불자들은 어떻게 신문 읽기·TV 보기를 해야 하나

영화 속에서 만나는 불교
• 에마른 헌대인의 가슴을 적셔주는 영화 - 아이 앰 샘(I am Sam)
- 내 존재의 당당한 선언 "나는 샘이다"

집중기획 - 주 5일 근무 실시와 국·내외 주말 불교활동
• 한국에도 세계적인 수행 공동체 건설, 가능한가
1 외국 불교인들의 주말 활동 - 미국·유럽·일본
2 한국에도 플럼 빌리지 건설, 가능한가
- 템플 스테이와 사찰 주말 수련회를 중심으로

미얀마 최고의 수행자 우 판디타 스님 초청법문 지상중계
• 비파사나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 '대념처경'과 비파사나 수행

컬러화보
• 시찰의 또 다른 멋, 벽화를 찾아서 -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벽화

특별기획 시리즈 / '생명' ② - 불교의 관점에서 안락사를 다시 생각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으로 안락사를 조명한다.
• 안락사에 관한 윤리학적인 쟁점과 최근 동향
• 가톨릭의 안락사 이해
• 안락사와 불교의 생사관 -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불교쟁점 - 무엇이 불교적인가
한국복알리성전협회 전재성회장이 바라보는 최근의 내·소승불교 논쟁

성닉주의 문화재소설 -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 '참고 참았던 울음'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팩스 (02)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화부터 내면 대화 '끝'

조성희 교수에게 듣는 '자녀와 터놓고 이야기 하기'

말듣는 중간 끊지말고 끝까지 들어줘야
자녀생각 수용하되 쉽게 인정해선 안돼

#장면 1. "엄마, 오늘 학교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 나중에 얘기해"

#장면 2.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중학생이 무슨 남자친구야. 대학 들어갈 때 까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서툴거나, 혹은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 자녀와 마음의 벽을 쌓는 부모들이 있다. 이런 관계일수록 부모는 자녀가 삐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부모를 원망하기 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와 마음을 터 놓을 수 있을까?

11월 29일 삼전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가족기능 강화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연회에서 조성희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자녀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법과 가족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강의했다.

"'좋은 부모 되기'류의 강좌를 많이 들어본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에 있어 일관성을 잃기 쉽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한 조 교수는 "백 가지를 알더라도 하나를 '실천' 함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자녀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물론 자녀에게 다가서고 대화를 시작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도 인간관계의 하나로 꾸준히 노력해야 개선된다"는 조 교수는 "좋은 부모가 되는 첫걸음은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는 현재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부모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으로 자녀의 일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와 관련된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캐물어봐야 의심이 풀리는지, 무슨 일이든 해주는 과보호형은 아닌지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행동이나 생각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신이 부모에게 받았던 나쁜 영향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녀의 행동을 판단하기 쉽다.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과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이제 자녀와 대화 나누는 법을 배워본다.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화를 내거나, 예전 일까지 들추어내 화를 내는 것은 대화를 차단하는 지름길이다.

화가 가라앉으며 자신이 화가 난 이유와 마음 상태를 자녀에게 말한다. 끝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이야기를 듣는 중간에는 자녀가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수용은 하되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콘서트에 가고 싶어 부모 지갑에서 돈을 훔쳤을 때, 콘서트에 가고싶어 하는 마음은 수용하되, 그 방법이 잘못되었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하고 처벌하는 식이다.

결국 평소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생활화 할 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지난 11월 29일 삼전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자녀와 재미있는 대화 나누기' 강좌에 50여 명의 학부모가 참가해 자녀와의 효과적인 대화 나누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행복한 참견

◆무료진료=아산병원 무료진료 행사가 17일 이천시 복지회관에서 열린다.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와 관련된 종합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031)636-0190

◆식사 및 운동관리 교실=마포노인복지관은 한양대 영양연구회팀과 함께, 고혈압 및 당료 환자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및 운동관리 교실을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40분. (02)333-5886

◆단전호흡=서울 중계노인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복지관 4층 휴게실에서 '단전호흡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에 와서 등록하면 언제든 참가할 수 있다. (02)972-9011

◆사랑나눔가게 초대전=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지회는 2003년 1월 31일까지 대구지역 음식점, 미용실, 한의원 등 33개 업소에서 결식노인돕기 사랑나눔가게 초대 행사를 연다. 티켓구매는 대구시내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 가능하다. 후원계좌: 농협 150080-51-0004275(예금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053)634-4113

◆무료법률상담=포항 화산복지관에서는 무료법률도우미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상속, 전세권, 담보 관련된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 담당 변호사 이용락. (054)248-6166.

가계부 함께 쓰기

엄마는 늘 쪼달린다고 걱정을 하고, 아이들은 늘 용돈이 모자란다고 투덜댄다. 그 사이에서 아빠는, 때로는 무능을 탓하기도 하고 더러는 바가지에 짜증을 낸다. 이것이 우리네 서민들의 실제 생활상이다. 그러나 어쩌랴, 행복 또한 이렇게 이웅다웅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는 어떤 문제에도 최선의 해결사다. 쪼들리는 가계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한몫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바꾸지 않고도 그것은 가능하다. 바로 가계부 함께 쓰기다. 물론 날마다 그럴 수는 없고, 일 주일에 한번 아니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짜증과 원망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엄마는 이렇게 빠듯한 생활비로 어떻게 이렇게 알뜰히 가계를 꾸리셨을까?" "다음 달에는 아이들 용돈 좀 올려 줘야겠지." "술값으로 너무 많은 돈이 나가는 것 같군. 그 돈이면 아이들한테 더 잘 해 줄 수 있을 텐데."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금강경테이프

지방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신은 시각장애자이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 없으니 혜거 스님의 금강경테이프 한질을 보내줄 수 없느냐고요. 그동안 불교방송을 통해 혜거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어왔는데 스님 강의 테이프를 구할 수 있으면 불교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 분의 전화를 받고 난 저는 혜거 스님이 계신 금강선원에 전화를 해서 금강경테이프 한 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테이프가 도착하는 대로 그 분한테 보내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분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테이프가 와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부탁한 테이프를 보내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테이프를 들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분이 13살, 누이가 16살, 형이 19살일 때 농부로 일생을 살아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혼자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형은 대학까지, 누이와 자신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분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 와 야간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분의 목표는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이 자신한테 걸었던 희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자신이 그 일을 성취해서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님 영전과 힘겹게 삼남매를 키워오신 어머님에게 선물로 바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막노동까지 힘든 줄 모르고 낮엔 일을, 밤엔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책을 읽기조차 힘들 정도로 시력이 악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쳐서 그렇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믿으며 혼자 치료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야속하게도 시력은 자꾸 떨어져 마침내 사물의 형체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합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치료도 받아보고 한방치료도 받아보았지만 모든 게 다 허사였답니다. 시각장애자. 청천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분은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 내려가 두문불출하고 몇 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절망감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자살을 하려고 시도도 몇 번 해 보았지만 그 때마다 어머니한테 들켜서 자살도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경 테이프를 틀어 놓고 경을 따라서 독송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천수경, 반야심경, 관세음보문품경, 법성게 등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보니 자기 자신도 자연스럽게 경을 독송하게 되어 이제는 테이프에 담겨 있는 경은 다 독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을 따라 독송하다보니 마음도 평화로워져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경을 독송하는 이외에 불교방송도 하루 종일 듣고 있다 했습니다. 혜거 스님의 금강경 강의도 그렇게 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그런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더 이상 기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허리가 나빠지자 할 수 없이 형님과 합가(合家)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님 가족과 함께 살자 그 때부터 어려운 문제가 하나 둘 표면에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형수가 열렬한 기독교신자이기 때문에 조카들 뿐 아니라 형님까지도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런 형님 가족이 들어오자 집안이 갑자기 기독교 분위기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벽에 걸어두었던 관세음보살님 사진은 십자가로 바뀌어졌고,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불경소리는 목사님의 설교 소리와 찬송가 소리로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형수뿐 아니라 형님까지도 어머니와 자신을 교회에 나가도록 강요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존과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 개종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모든 난관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종교를 지키는 것이 옳은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가족 평화위해 개종 해야하나…

그 분의 질문을 받고 난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한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체 고심하고 있던 저는 그 분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라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자를 택하시도록 권하실 것 같군요."라고요.

化緣 (02)704-3577

승복, 법복안내

안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동복 재질(고급) 겨울용배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 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누비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셔츠



8 셔츠 ₩50,000 (지이너형, 리운드형) 바지 ₩60,000
리운드형 지이너형 ₩30,000

적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지역 대리점 모집

(卍) 영원한 안락과 행복의 안식처 약왕사 부도탑묘(영탑)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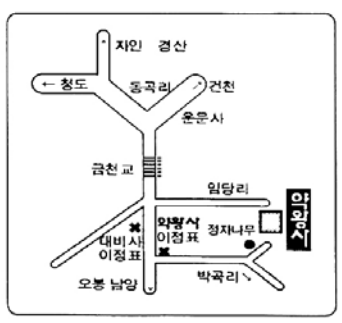
예로부터 우리풍습에는 부모님 생전에 묘터를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큰 효라 칭했습니다. 불교식 화장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약왕사에서는 아름답고 깨끗한 명당으로 알려진 청도군 금천면에 천년을 모실 부도탑묘(영탑)를 마련했습니다.

일광, 월광보살의 여러 신장님들과 봉황이 알을 품은 형상의 좋은 명당자리에 부모님의 안식처를 마련해 부모에 대한 마지막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영탑(영구) 50개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예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왕사 부도탑묘(영탑)는 사찰내에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위치해 있어 쉽게 찾아올 수 있으며, 1년 365일 스님들에 의해 정성스럽게 모셔집니다.

※ 약왕사 대웅전 불사도 진행중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당부드립니다.
※ 우울증 · 대인공포증 · 신병 · 정신분열증환자는 야광보살님 위신력으로 확실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일차 방문 바랍니다.

◇문의전화 : 054)373-6023, 0157
016-510-6023, 016-9306-8820
◇계좌번호 : 농협 727-077-56-023643 (예금주/정충근)



▲ 찾아오시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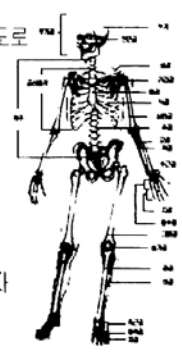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불암산 4번지
1000일 참회기도 극락도량 불암산 약 왕 사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모든 것을 다 집어 넣었으면 내놓을 줄도 알아야 보살행

날씨가 몹시 춥다고 그래서 '장소도 변변치 않은데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춥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한 찰나에 떨어졌다가 찰나에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오늘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도리를 알기 위해서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린애들은 발걸음을 떼어놓기 위해서 천방지축 걸어가는데, 그럴 때 그 어린애가 '내가 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나!' 하고 뛰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걸음을 떼어놓는다는 기쁨으로만 그냥 뗄 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구덩이에 빠지면은 어쩌나, 잘못되면 식구가 다 죽을 텐데…,' 하는 생각에 의해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선적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여금 바깥으로 바로 경계가 나옵니다. 바깥으로 작용이 나오고 작용이 나오면은 어떠한 경계가 완전히 나타나죠. 망하든지 흥하든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더하고 덜할 도 없는 그 가운데서 자유스럽게 쓰는 마음씨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 적합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구요. 그래서 크고 작고 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에 내 마음이 스스로서 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애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관습에 젖어서 고정관념에 젖어서 영 뛰지를 못해요. 이론으로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행을 하는 겁니다. 묵묵히 한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묵묵히 걸어갈 뿐이고 작용을 할 뿐이죠. 그러기 때문에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진실로서 한 발짝 떼어놓고 행을 하는 것이 문제지 아무리 말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 즉 말하자면 부처님 이름도 허다하게 많죠? 그 많은 이름의 부처님이 앞에 있어도 집어삼켜라, 역대 조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집어삼켜라, 중생이 있다 하더라도 집어삼켜라, 일체를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라는 뜻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떠할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마음을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요.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명의 선지식들, 부처님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한찰나에 이 세상을 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들고 나는 문은 한 문이요 한 구녕이에요. 그게 문 없는 문이에요. 한 세상을 다 집어넣고, 가정을 다 집어넣고, 역대 조사 역대 부처님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다 내놓아야죠? '그래서 다 버리고 나니깐 다 얻더라! 얻고 나니까 버릴 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다 집어넣었으면 다 내놓을 줄 알아야 그게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변화해서 화(化)하고 돌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 이렇게 두 자만 했어도 그 속에 엄청난 돌아감이 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변화가 어떻게 돼 돌아가나? 천차만별의 만물만생이 변하여 화(化)하고, 또는 고정됨이 없이 나투면서 찰나찰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공동분담으로서 돌아가니까, 나를 세울 게 없으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다 알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나 이론으로나 학식으로 아는 거를 놔버려야죠.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놔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구멍에다 놓는다면 놓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생겨나니까 한 구녕으로 들이고 내는 작용이 그대로 법이죠. 내가 혼자만 안다고 세워 봤자야, 여러분이 잠시 잠깐 생각을 하셔도 몸 속에 수많은 중생들과 더불어 자기 마음의 부처와 둘이 아닌데 어떻게 나 혼자 살고 있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론으로 잘 알고 마음 공부를 잘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죠. 내세울 게 없는 자기 몸을 관리인 시자로서 나갈 수 있다면 그대로 하나하나 어떠한 부분의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든지, 그 맡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만이 다 하는 거지 딴 데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입력됐던 것이 지금 나오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죠.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니 그릇이 항상 빈다는 겁니다.

모두 하루살이로 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두 사랑을 한다고 말들을 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아들을 사랑해." 뭐 누구나가 그저 만나서 좋으면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 사랑도 찰나 사랑이지 착을 두고 사랑을 한다면 그릇이 항상 비지를 못해서 진짜 사랑을 못해요. 마음도 찰나에 전하고 끝없이 연결되는 원인이, 찰나 찰나 만나고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세상만사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건 무심(無心)의 도리이고, 말과 말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건 유심(有心)의 말이에요. 무심과 유심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둘입니까? 그런데 마음 속으로는 속일 수가 없지만은, 속이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말로는 속이는 게 많다는 얘기죠. 하지 못할 말이 많고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주장자를 찰나에 너를 줄 수도 있고 찰나에 네 주장자가 나한테 올 수도 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찰나에 통신이 된다 이 소리죠. 이 세상만사가 다 어지러운 것 같지만 아주 간편합니다. 뭐 내일 걱정 어저께 걱정, 어저께 후회, 앞으로 살아나갈 걱정을 하면서 모두 야단들인데요. 그릇을 항상 비우면서 찰나 생활로 살라고 하는 건, 정말이지 영원한 삶음을 갖다주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자식지간에도 찰나 사랑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행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둘이 아니게 진정한 자비로서의 만남이, 그냥 그 마음이 그대로 떨어져야죠? 거기다 착을 두변은 진짜 사랑을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주인공 뿌리에, 나무가 푸르르게 살려면 모든 것을 뿌리에 맡겨라, 뿌리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나무는 모든 에너지를 또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서로가 서로를 상응하면서 푸르르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무가 딴 뿌리의 이름을 찾거나 딴 나무의 형상을 믿거나 한다면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에너지가 이쪽 뿌리에서 저쪽 뿌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 나무에서 내 뿌리를 믿는다면 그 뿌리로 하여금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름과 형상을 찾아 헤맨다면 공덕은 하나도 없다고 달마대사도 말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나무가 향나무를 찾으면서, "향나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니 나에게 에너지를 좀 줘."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봤던들 향나무에서 에너지가 소나무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 나무의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위해서 올려보낼 수 있죠. 그 나무는 잎새 하나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뿌리에 매달려 살면서도 자기 뿌리를 무시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쏭달쏭하게 생각하고 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그렇죠. 못 믿어서요.

먼저 배웠고 나중 배우고 이걸 떠나서 진짜 물리가 터져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라면,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면은 둘이 아닌 도리에서 체험을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지름길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말 되하고 하는 말 되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마디를 듣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손 한 번 튕기는 걸 가지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왜 절에서 종을 울리는 줄 아십니까? '영혼들을 불러서 종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그 영혼의 귀가 트이고 눈이 열려서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섭류를 알라, 네가 이거를 알아야 영원한 삶음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아이구! 그거 정말 그럴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고, 한 사람은 아예 믿질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가, 그 못난 뿌리만이 못난 나무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해주겠지, 우리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이듯이.' 그러면서 지극하게 믿고, 부모의 제삿날인데도 그저 보리죽 한 그릇을 쑤어서…, 할 게 없으니까, 부뚜막에 물 한 그릇 떠놓고 향 한 개비 켜놓고 제사를 지내면서도, '아버지 뿌리, 어머니 뿌리, 내 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한자리를 하소서! 시장했던 것이 한 떡으로서 화(化)해서 바로 양식이 되리다.' 하고 그 부모한테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친구가 별안간에 찾아와서 마름을 주더랍니다, 일 좀 해달라고.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다 맡기고 가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주 잘살게 됐더랍니다. 그 나중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랬는데 못 믿은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만큼 그렇게 살더랍니다. 나무로 친다면 잎새가 단풍이 들면 떨어지듯이, 뿌리는 영원하지만 그 잎새는 떨어지고 없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사람은 가장구가 돼서 추운 겨울에 발발 떨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고생이 많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도 허다합니다. 중병이 들었는데도 어떠한 생각을 했던지 완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완치가 못 돼요. 그게 누구의 탓입니까? 제삼자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게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거들어주는 건 모르지만 벗어나는 거는 자기가 자기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는다면…, 아니 그건 뗄래야 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해 드리죠. 또 할까요? 허허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자기 영혼에 부착이 되고, 그림자처럼 부착이 돼서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영혼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차원대로 자기 그릇대로 끼리끼리 만나야 하니까, 자동적이거든요, 그게. 즉 말하자면 무쇠는 무쇠 굴에 들어가고 금이면 금 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탄생이 된다 이겁니다.

탄생이 되면 악업 선업이 영혼에 부착이 돼서 따라 다니던 게 지금 몸 속에 다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몸 속에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대로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요. 그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팔자운명이라든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참 무서운 겁니다. 팔자운명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유전성·업보성·세균성·인과성이 한꺼번에 거기 들어있으면서 그저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당하는 사람은 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입력된 그 자리에다가,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뿌리에다 자꾸 누적되지 않게 닥치는 대로 넣고, 부처님이 닥쳐도 둘이 아니다 하고 넣고, 어떤 것이 닥쳐오더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이 입력이 돼서 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간 지옥도 무너진다는 소리죠. 그러니 자꾸 새 그릇에 담기면서 그릇이 비고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새로이 넣는 것이 현실에 나오고 현실로 나오면 즐거움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나게 하는 놈도 그놈이니까 안 나게 하는 놈도 그놈이죠. 매사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다복할 수 있고, 진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도 있죠. 지장보살은 중생들을 다 이끌어서 건져놓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간다고 문고리를 붙들고 백날 천 날 끝간 데 없이 있어도 영 문고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더랍니다. 연방 새로 오고 새로 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고 죽는 게 끝이 나는 게 있습니까, 어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진짜로 알려면은 아는 것 전체를 놓고, 오신통도 벗어나야 오신통의 이치를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신통이 이 통에 들었다면 이 통을 벗어나야 마음대로 굴리고 마음대로 쓰지 통 안에 들어가서는 그 통을 굴릴 수가 없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관하는 법만 온전히 체득을 한다면, 아예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법이 나옵니다. 못 믿지 마세요! 나무는 천차만별로 이름이 있고 모습이 다르지만 뿌리라는 그 한 마디의 이름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무 제 뿌리에서, 제 뿌리가 자기를 돕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바로 만 가지 맛을 나게 하는 거지, 아니 제 나무에서 익지 않은 과실을 무슨 맛으로 찾습니까?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야 맛이 나죠. 제 나무에서 설은 거 따서 아무리 먹으라고 둘려봤자 그거는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죠, 또. 그와 같이 지금 가르치는 관법은 생활선(生活禪)이면서 여래선(如來禪)입니다.

여래라는 뜻은 일체 상하 사방이, 사무사유(四無四有)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포착한 것이 바로 여래입니다. 그걸 또 간단히 말하자면, 몸과 몸 속에 있는 중생들과 나와 둘이 아니다, 이게 여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 속에 세포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생명들을 다 같이 하나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여래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다 부처고 여래입니다. 그것을 포착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가 여래인지도 모르고, 전체가 여래인지도 모르고, 여래가 뭔지도 모르고 여래가 어떠한 개별적인 인간 이름인 줄 알고 나가거든요. 둘이 아닌 까닭에 여래라는 이름이 나왔고 여래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들이고 내고, 즉 말하자면 여래는 여래고 중생은 중생이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법을 여러분이 아주 진실하게 믿고, 무조건입니다. 아까 어린애 얘기 했지요. '무조건 내 뿌리를 믿어라! 형상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다. 그 가운데 너부터 먼저 알아야, 형상이든 이름이든 다 포착할 수 있어서 모든 걸 지혜롭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잘되고 못되고는 생각하는 데에 따르고, 깨닫고 못 깨닫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깨닫고 못 깨닫는 거예요.

▲질문자1: 송년법회에 질문 올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올해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한마음으로 늘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전에 살기 때문에 대전에 지원이 생겼으면 하고 늘 발원을 했었는데, 스님의 큰 원력으로 대전의 모든 이에게 법을 전할 수 있게 개원되어 큰 축복으로 환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중 박수)

지구상의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구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중생들이 알기 쉽게 내면적인 면과 외적인 면에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여기는 3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3차원이 되기도 하고 4차원이 되기도 하고 6차원이 되기도 하고 2차원도 되고 1차원도 못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죠. 이건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구요. 그러나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의적으로는 우주와 인간의 근본 마음과 더불어 같이 직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고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근본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천상에서 보면 색경 속에 다 잘못하고 잘하는 게 나타나니까, '요놈은 좀 가르치기 위해서 벌을 줘야겠다. 착하게 했으니 상을 줘야겠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할 탓에 의해서

☞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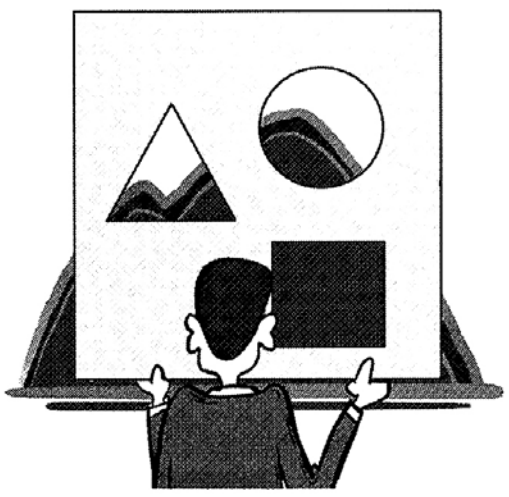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진실로 한 발짝 떼어놓고 행하는 것이 문제

착을 두고 사랑을 한다면 그릇이 항상 비지를 못해서 진짜 사랑을 못해

☞ 25면에서 계속

견성·성불은 자기 근기 따라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돌아간다면 말도 안 되죠. 우리 몸이 우주덩어리라면 이 우주 속에 전부 생명들이 들어있고 의식들이 들어있고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들어있는데 한 덩어리가 그냥 돌아가지 두 덩어리로 갈라져서 돌아갑니까? 코 가는 데 눈이 가고, 눈이 가는 데 귀가 가고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깐 모두가 직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두뇌, 즉 말하자면 대뇌로 거쳐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고 오르고 내리듯이, 똑같이 우주와 사생(四生)의 천차만별의 생명들도 전부 가설이 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거짓이 통하지만 진짜로는 마음과 마음이 직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질문자1: 우리 불자들은 스님이 되는 것을 큰 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을 극한 상황에 몰고 들어가야 승려가 되거나 불문에 드는 것입니까?

▲스님: 그것도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전자에 배우던 습이 있어서 다시 그 길을 밟는 수도 있고 또 그런 업적으로 인해서 그 뿌리의 자리에서 엄숙하게 자꾸 몸을 리드하니까 생각에 '아,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근기가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리가 좋아서 하게 되고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문에 들게 되고 서로가 공부하는 거죠.

아는 거를 다 놔버려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 거는 세세생생에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면으로는 악업 선업에서 벗어나고 또는 전체로서는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그러니깐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연 따라서 만남도 있고 인연 따라서 헤어짐도 있고, 마음과 마음이 끝없이 이어져 돌아가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문자1: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생을 살면서 불법(佛法)에 마음을 두었던 습기 아닌 습기 때문에 최상승의 마음법을 공부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단번에 뛰어들어 공부하게 된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거는 근기에 따라서, 과거의 지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오는 율이 더 많죠. 그러고 단번에 오는 인연은, 또 그 인연도 전자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상점에 가면 끼리끼리들 놓여 있죠. 끼리끼리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배든 언짢은 배든 배가 됐으니까 배끼리 모이고 사과도 사과끼리, 그건 자동적인 인연 인과죠.

▲질문자1: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안으로만 믿고 맡기고 관(觀)하면 지금 우리와 같은 마음 법에 버금가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까?

▲스님: 어떤 종교를 막론해놓고 그건 이름일 뿐이니까, 그전에도 얘기했죠. 불교는 어떤 이름을 상징한 것보다도 일체 생명은 불(佛)이요, 일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교(敎)라구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 이름이든 간에 불교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라는 건 어떤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그 안에 들어서 마찬가지의 이름이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다가 보면 둘 아닌 도리가 나올 때에, 연결이 될 때, 연결이 되면서 어린아이가 탄생을 해서 갓 나왔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석존께서 6년 고행할 때에 악마도 나왔고, 미녀도 나왔고 신장도 나왔고, 부처도 나왔고 뭐 별 게 다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깐 자세히 얘기하자면, 내 몸 안에 악업 선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그냥 몽땅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환상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다 하고 맡겨 놔야만이 다시 돌아서 새 물로 대치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나오는 대로 끄달린다면, 악마가 나오면 버리려고 애를 쓰고 부처가 나오면 가지려고 애를 쓴다면 이거는 안되죠. 예를 들어서 병이 들고 잘못되는 율이 99%나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100%까지 다 갈 줄 알고 할 줄 알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1: 예, 감사합니다. 인도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와의 합일'이 곧 불교의 '견성(見性) 체험'과 같은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건 태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하여간에,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견성이고 성불이고 있는 거지, 기복으로 막 좇아가고 형상만 보고 좇아가고 이론만 가지고 따르는데 무슨 견성이 있겠소? 그러니깐 견성을 못 하는 것도 똑같고 견성을 하는 것도 똑같고, 다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마음 근기에 따라서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것뿐이죠.

▲질문자1: 일반적으로 타 종교에서는 기적 현상을 가끔 얘기합니다. 물론 저 자신은 기적 현상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만, 불교에서의 영험과의 차이점을 누가 물었길래 한번 여쭈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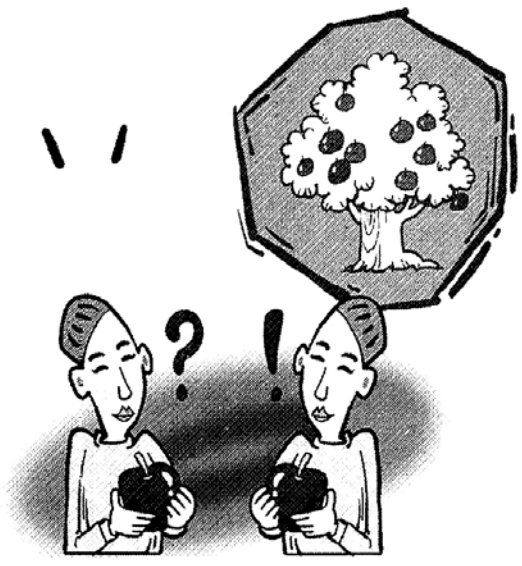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님: 지금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허허,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할 필요도 없고 믿는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우리의 근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기적도 아니고 영험도 아니에요. 단 하나, 우리들은 다 갖추어 가지고 있어요.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그대로 기적이고 영험이니까요.

▲질문자1: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님: 하하하.

▲질문자1: 본래 그러하고 그러한 것이 진리라면 굳이 불교라고 이름 붙일 것이 없는데, 생각나기 이전 자리를 알기가 힘들어서 불상이니 불경이니 불교의식들이 필요치 않으면서도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결정지어서 하는 것이 그대로 법

▲스님: 왜 마음들이 그냥 살면 될 거를 왜 몸뚱이를 갖다가 형성을 시켜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아니 몸뚱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낙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고생이 없으면 낙을 모르고, 그러니깐 이게 첨부돼서, 정맥과 동맥이 서로서로 오르고 내리듯이, 우리가 지금 상대성으로서 오르고 내리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를 비유하자면, 만물상점을 내는데 만물상점이라고 간판을 써 붙여야지 만물상점이 되는 거고 만물을 다 팔고 들이고 사고 하는 거지 아, 만물상이라고 간판을 붙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방편이자 진실이고 진실이자 방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기다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 사는 게 그대로예요. 그냥.

▲질문자1: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사이 독특한 한 점을 역력히 아는 것이 지름길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아, 그거야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을까 말까? 집을 짓는 것도 안 짓는 것도 법이다 이랬죠. 그런데 그거는 양면의 흐름이고, 집을 짓든지 안 짓든지 내가 결정을 지어야만 되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짓는다고만 고집할 수도 없고 안 짓는다고 고집할 수도 없으니 너희가 지어서 좋을 일이라면 짓고 짓지 않아서 좋을 일이라면 짓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 네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네 마음 가운데서 짓든 안 짓든 결정지어서 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니라! 이런 거죠.

▲질문자1: 긴 질문에 세세한 가르침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큰 법륜 굴려 주십사 권청드리옵구요. 다시 한 번 동체대비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중 박수)

▲스님: 허허허. 이렇게 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찰나찰나 우리는 같이 이어져서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고, 아주 광대무변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스님을 못 봤으니깐 이렇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도 멀지요? 강을 건너가야 하고 그런데도 "스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할 때 그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 내려서는 거리와 미국 가는 거리가 똑같습니다. 한생각이기 때문에! 또 달나라를 생각하든지, 뭐 태양을 생각하든지 우주 전체를 생각하든지, 그것도 바로 요기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훌륭한 건 뭐냐? 한 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건너뛰어서 껑충 뛸려고만 하지말고, 한찰나에 한 계단을 올라설 수 있는, 한 계단을 올라설 수 있다면 두 계단도 세 계단도 다 올라설 수 있을 때, 그때는 확 사방이 터져서 상하도 터지고 사방도 다 터져서, 한찰나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듣는 것 없이 들을 수 있고, 보는 것 없이 볼 수 있고, 하는 것 없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자 다섯 가지 오신통 속에서 확 벗어나면서 바로 평등공법의 상투자리를 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세세생생 삶의 보람과 내가 얻었으면 일체 중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유인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이지 간곡히 빕니다. (대중 박수)

수만 명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처가 없기 때문에 전부 한데 모아도 없으면서도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고 헤어지고 이런 것도, 이건 자유자재권이라고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에 한찰나에 불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위 법문은 1993년 12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교도소·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유취문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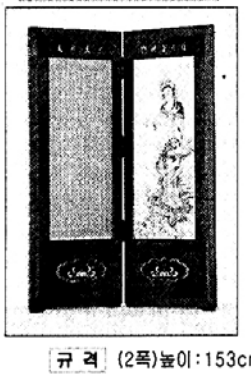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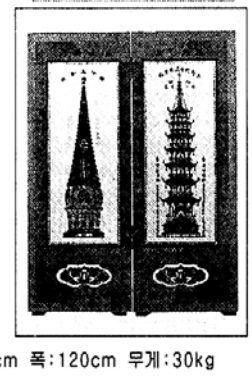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음병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불교 이래서 좋다

강지혜 성신여대 경영학과 1년



아주 어렸을때로 기억한다. 식구들이 모두 외출하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어느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지친 나는 날이 저물자 어머니가 보고싶다는 생각도 들고 차츰 혼자있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어머니가 평소 집에서 108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시던 모습이 생각났다.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매일 깨어있는 '삶' 살게 해 줘

을 외치며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시길 기원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염주 꼭 쥐고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시더니 어젯밤에 갑자기 네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오셨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참 신기해 했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어렸을때 내가 접한 불교는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기복 신앙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불교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편안해 지게 하는 보금자리이자 삶의 지침서이다. 특히 지식으로만 알고 나를 앞세우는 것 보다는 모든 참 생명을 향한 마음이 담긴 자비의 행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불교를 통해 알게 됐다.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불교에 좀 더 바르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정진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접하게 됐다. 신행활동을 하면서 나는 '아! 좋다! 날마다 깨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가지게 됐다. 방학기간의 어린이 수련회나 일요일마다 행하는 군법회를 통해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부처님 법 안에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하루하루 깨어 날 수 있게 하는 불교가 나는 좋다!

007 '훼불'의 스파이?

불상 앞에서 러브신, 남한 식민지 묘사 "말도 안돼"

불자들

한국불교 이미지 타격 관람거부 등 강경 대응

배급사

'당혹' "영화는 영화일 뿐" "절대 정치적이지 않다"



12월 31일 국내 개봉예정인 007 시리즈 20편 '다이 어나더 데이(Die Another Day)'의 마지막 장면이 사찰에서 본드와 본드걸의 적나라한 러브신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져 불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자들을 자극한 장면은 제임스 본드와 본드걸이 불상 앞에서 벌이는 마지막 러브신이다. 문밖으로 야자수가 있고 불상과 다다미로 채워진 방은 분명 한국의 사찰은 아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본드와 본드걸의 러브신이 한국 사찰의 법당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촬영됐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20세기 폭스 코리아 측은 오히려 영화를 보면 태국풍의 건물이며 한국의 사찰과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대답이다. 그러나 불자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어느 나라가 됐건 불상 앞에서 러브신을 벌인다는 설정 자체에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여중생 사망사고 무죄평결로 인해 반미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요즘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처럼 표현했고 70년대의 낙후된 모습으로 그렸다는 것에 네티즌들의 감정이 폭발한 것.



11월 22일 미국 개봉시 영화를 관람한 재미교포들에게서 퍼져나오기 시작한 '다이 어나더 데이'의 한국 및 불교 왜곡 등은 인터넷으로 급속히 퍼져 캠판(상영관의 스크린을 캠코더로 찍은 영화파일)으로 미리 영화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007관람거부운동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라구 그럴수가 있는지 정말 한국에 대해 모르는 외국인은 그렇게 오해할만 하다' (darkr), '영화 공짜로 보고 저작권문제 생기면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시다' (ditkgur1209), '007영화 수입거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까워요' (hanrall) 등 등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배급사인 20세기 폭스 코리아 측은 한국 민들의 이런 반응에 당혹해하면서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미국 본사의 공식 입장도 "007시리즈는 액션과 어드벤처, 판타지가 어우러진 영화며 절대 정치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네티즌들의 성난 불길을 진화하기에는 미흡하다.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개봉한 영화에서 부처님을 모신 불당에서 러브신을 벌이는 장면을 본 외국인들은 불교를 왜곡되게 이해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 배경을 한국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불교의 이미지도 타격이 크다. 불교계 종단과 단체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겨울방학, 청소년들 갈 곳 많네

목동청소년수련관·디지털열린상담실 등 동아리 한마당, 창작활동, 캠프 다양

겨울방학을 맞아 교계 청소년수련관 및 단체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청소년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12월 21일 오후 4시 수련관내 청소년극장에서 동아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댄스, 풍물, 방송, 성우, 밴드 동아리 등 총 8개팀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계획.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1월 중순경 충남 아산 윤정사 수련원에서 서울 경기 강원지역 내년도 간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부수련회를 개최한다. 또 부산, 충북, 대구지부도 간부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청주 디지털열린상담실도 내년 1월 18일~20일 청주시 표충사(유교사당)와 상담실 시설 등에서 청소년과 소외된 이웃과 불자가 하나되기 위한 제5회 디지털동계 캠프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우리는 선우, 양정청소년수련관, 청교련 대전지부,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천태종 연리회, 하동청소년수련관 등 교계 청소년 단체들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학생들이 유익한 방학을 보낼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단체 및 수련관	일정	행사내용	전화번호
우리는 선우	2003년 1월 17~20일	불교문화캠프	(02)2278-8672
목동청소년수련관	12월 21일	동아리 한마당	(02)2646-6815
하동청소년수련관	12월 12~13, 26~27일	전통문화수련회	(055)883-8156
양정청소년수련관	2003년 1월 중순경	자원봉사교육	(051)868-0750
디지털열린상담실	2003년 1월 18~20일	디지털동계캠프	(043)257-0807
청교련 대전지부	2003년 1월 중순경	아르바이트사전교육	(042)488-0733
천태종 연리회	2003년 1월 중순경	법화꽃 기자연수	(043)420-7267
비로자나청소년협회	2003년 1월 중순경	제주도국토순례대행진	(02)942-0635

천태종 어린이 교사 연수 교육

대한불교천태종은 11월 30일~12월 1일까지 단양 구인사 인광당 5층에서 제31회 어린이 지도교사 동계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천태종 어린이 지도교사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 교육은 성불도놀이, 찬불가, 민속놀이, 레크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10회 보리방송문화상 열려

'길위의 불자들', '600년만의 만남, 월인석보' 두 작품이 제10회 보리방송문화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12월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JRN 프로덕션이 제작하고 KBS1 TV에서 5월 19일에 방송된 다큐멘터리 '길위의 불자들' (연출 오승배)과 TJB 대전방송에서 5월 14 21일 방송된 '600년만의 만남, 월인석보' (연출 이종익)가 일반 TV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불교방송부문에는 서울불교방송의 '삶과 죽음을 통해 본 한국인의 제례의식' (박광열 외)이 연출상을, 서울불교방송의 '그리운 등불하나'의 방귀희씨, 부산BBS의 '부산 아시안게임 특집방송-아시아를 하나로 부산을 세계로',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특집방송-반야심경에 대문빗장을 만져보거라'의 지은아씨가 진행상을, 청주BBS의 '황신모의 시사포커스 기획특집 2부-흥덕사 복원 그 미래와 전망'을 기획한 강석호씨가 기획상을 받았다. 특별상은 이강훈 불교TV 기술부 차장에게 돌아갔다. 강지연 기자

명작 비디오 파일 큐브



17,576개의 큐브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의 한 부분에 당신이 갇혀 있다면?

출구의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당신의 몸은 무참히 조각날 것이다. 1999년 개봉된 빈센조 나탈리 감독의 영화 큐브는 생명을 건 탈출기이다. 나가기 위해서는 큐브들이 배열된 법칙을 알아야 한다.

경찰 쿠엔틴, 여의사 할로웨이, 겁많은 소녀 리븐, 냉소적인 인물 워스, 탈옥 전문가 렌, 자폐증 환자 카잔.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 목숨건 탈출을 시도한다. 더 이상의 탈출방법이 없어 보이는 순간 자폐증 증상으로 고비의 순간마다 일행을 위험에 빠뜨리기만 했던 카잔이 큐브 안에 감추어진 마지막 단서를 발견한다.

이들이 큐브 속을 헤매고 다니는 모습은 우리가 무명의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똑같다. 탈출하기 위해 큐브들의 법칙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영화 속 인물들은 바로 해탈의 길을 찾아나서는 구도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심밀해탈경〉에서 비로자나부처님은 굳은 매듭같은 미혹에서 해탈케 하는 것에 대해 설한다. 보살들만을 대상으로 해탈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 해탈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강지연 기자

담배를 끊읍시다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흡연가라면 누구나 담배를 끊겠다고 마음을 한번쯤은 먹게된다. 그러나 무작정 담배를 끊는 것만이 금연으로 가는 지름길이

상담, 스스로 진단 등 다양한 구성

교육 지도자에게도 많은 정보 제공

아니다.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기관리와 노력을 해야지만 금연에 성공할수 있다.

담배를 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흡연관련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표적인 금연관련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운영하는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 or.kr) 홈페이지. 금연배움터, 도전 담배탈출, 전문자료실, 전문가상담, 스스로 진단, 금연 배움터, 지구촌 금연, 커뮤니티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된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는 금연을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수 금연관련 사이트도 활용해 볼만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법운 선생님 약력

-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출연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 2002년 KBS 'VJ특공대' 출연 - '최면의 세계'
- 한양대학교 졸업
- 대한초능력협회 회원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세계 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천도 및 제령
- 특강일시 : 수시접수

※ 나노-파동 명상최면요법

인체내에는 특별한 에너지 중추가 있다. 이 미묘한 에너지 중추는 육체의 내분비선과 주요 신경중추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장 속으로도 확장되어져 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는 일곱가지 차크라가 있다.
이 차크라들을 「나-노 파동요법」을 통하여 수련하게되면 사람에 따라 우주에너지와 연결되어 神通이 열리게 된다.
한 예로, 정수리 차크라는 두뇌 꼭대기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를 열게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투시가가 될 수 있다.

※ 특강내용

나-노 파동 요법을 알게 되면 일주일만에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적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주파수 (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파수에 「나-노 파동 요법」으로 공명을 일으키게 하면 자신이나 타인이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지거나 몸속에 숨어 있는 영가들이 나타나게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영혼적 현상들을 바르게 인도(제령) 하고 정리(천도)하는 기법이「나-노 파동 요법」입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명상 - 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명상 - 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세계최고 골프화 메이커 三德通商(株)

성불화 룸비니 신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볍고 편안한 신발! 새해 선물로 스님과 불자님께 최고 !

스님! 승복과 같이 신발도 통일하시면 더욱 품위가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평상시에도 신을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



성불화 룸비니
남 · 여 공용225mm~275mm

스님께 존경의 선물! 부모님께 효도의 선물! 친구에게 자비의 선물!

발이 편해야 건강하고 장수한다.

관절염, 고혈압, 심장병, 환자 건강에도 최고!!

세계 최장수 노인 습로베니아의 아벨로 카슈(127세 수제화 기술자)는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좋은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신을 사서 신다보면 편하지 않아도 그냥 참고 신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피로가 쉽게오고 골절과 관절의 균형이 깨지며 관절과 골절의 계속적인 무리를 주어 노후에 관절염 또는 디스크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모든 피로는 발에서 부터 온다. 신발이 편하고 좋으면 건강도 좋아지며 장수한다.

성불화 룸비니에 금강저와 연꽃 문향 넣어.

성불화 룸비니에 길 떠나는 스님과 불자님께 근심,걱정, 번뇌를 떨쳐버리고 화를 풀고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며 금강의 강한 힘과 지혜를 얻어승리하라는 뜻에서 금강저를 넣어 스님과 불자님께서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 했으며 신발에 부처님 꽃인 연꽃을 넣어 성불화 룸비니를 신고부터는 연꽃이 피듯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연꽃 문향을 넣었다.

개발비 10억!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으로 개발

성불화 룸비니는 세계 정상의 골프화를 만든 축적된 노하우로 사찰 지형과 한국인 체형에 맞게 개발 됐으며 최고급 골프화에만 적용하는 최첨단 신소재와 천연방수 가죽 뉴벅을 사용 신발에 대한 발의 적응력을 높이고 초경량 골프 그립을 밑창에 부착해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게 했으며 접지력과 마모력을 강화했다.
또한 외부의 물을 철저히 차단하고 발의 습기 또는 땀을 흡수하는 F-T를 개발하여 부착했으며 추운 겨울에는 외부의 냉기를 철저히 차단해 발을 따뜻하게 하는 Skull Keeping을 고안하여 추운 산속에서도 전혀 발이 시립지 않게 했고 눈, 비 올때에 미끄럼 방지가 완벽하다. 디자인면에서는 승복과 잘 조화되고 품위가 있게 했으며 불자님들은 평상시에도 신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세련되게 만들어 졌다.
신발 안쪽 바닥에는 신발 바뀜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할 수 있는 란까지 세심하게 제작됐다.
사찰에서 평상시에 사용해도 좋고 스님의 만행 및 산행 또는 포교와 불자님들의 성지 순례와, 등산, 사찰 불공등 장시간 보행하거나 활동하시는 스님과 불자님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최고급 성불화다.
브랜드 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이며 어린시절 고향인 중인도 카필라국 수도였던 룸비니로 했다.

년말년시 새해 선물은!
성불화 룸비니로!!

부처님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개발

세계적인 골프화 메이커인 三德通商(株)에서 출시한 성불화 룸비니가 스님과 불자님들로 부터 폭발적인 인기와 신청이 쇄도 하고 있다.
직원 600명 거의가 불자인 삼덕통상주식회사(사장 문창섭)은 스님을 볼때마다 승복은 통일되었는데 신발을 보면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신발을 제조하는 불자로서 사업성 보다는 부처님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1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이 세상에서 제일 가볍고 편안하며 과학적이고 인체 공학적인 최고급 성불화 룸비니를 출시하게 됐다.

신어본 스님과 불자님들, 감탄과 찬사

스님들이 신발을 살려면 큰 고민을 했으나 이제는 룸비니 출시로 고민거리가 사라졌다. 불자들도 사찰 불공시, 성지순례시, 경건한 마음으로 성불화를 신고 갈 수 있어 기쁘다고 한다.
전생에 지은 무명업장을 녹이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큰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다니고 있는 사찰 스님께 추운 겨울 따뜻하게 성불화를 보시하는 것은 불자로서 최고의 공덕을 쌓는것이다. 또한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선물과 생신선물, 존경하는 분, 친지, 친구에게 신년 새해 선물로 성불화 룸비니는 길이 길이 남을 최고의 선물이다.
현재 각 종단별로 특별디자인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각종불자회, 합창단, 등 일체감을 주기위해 단체주문을 하고 있다.

성불화 신청전화 (02)723-4533

룸비니는 남 · 여 공용으로 225mm~275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됐으며 단 한컬레도 전화로 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전국어디든 우체국 소포로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격: 88,000원 ※신용카드 분할도 됩니다. ★농협:053-12-102911 김 남 룡
★ 일요일 공휴일도 신청을 받습니다

사찰구내 취급점 및 대리점 모집

2000만 불자님들의 성불화인 평생 성불사업에 동참할 불심강한 불자님을 초빙합니다.
사찰 구내매점인 경우 2평정도 진열칸이 있어야 하며 사찰영외 대리점인 경우 5평 이상의 점포소유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본사에서 각종 불교신문에 지속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三德通商株式會社
S D TRADING CO.,LTD
성불화 LUMBINI 사업단
서울 종로구 관훈동197-4 인정빌딩503호 (인사동4거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

년말년시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치는 금강염주

원효대사때부터 금강염주전래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워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묘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면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2002년 사법고시에 금강염주를 선물 받은 수험생이 거의 다 合格했으며 結婚 13년이 지나도록 子女가 없어 고민 고민하던 부부가 임신이 되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모두 당선되는 금강염주 반입 7개월만에 신비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치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물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은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정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복을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금강염주에는 金剛의 강한 힘과 金輪의 지혜와 영험과 품위가 있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무배국 등기소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세요.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믿는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과 같이 사용하고 3일만 사용하면 입 냄새는 없어지고 7일만 사용하면 치통, 충치,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미백 효과도 있어요.
1set면 1년이상 사용하는데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스님 저도 남는것이 없어요.
※농협 : 360-12-046446 최 능 우
문의전화는 (02)722-2890 입니다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붕어는 10분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어벗이 삼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원에서 검증을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02-1850 입니다.

★농협 170-12-056037 정애영